태백문화

http://taebaekculturalcenter.com

2012 제24집

본적사지삼층석탑 (本寂寺址三層石塔)

태백문화원

표지사진 사진 정기복

본적사지삼층석탑
(本寂寺址三層石塔)

강원도문화재자료제126호
지정일자 : 2000년 1월 22일
복원일자 : 2012년 10월 30일
위 치 : 태백시 황지동 절골

설명:

황지동 절골 본적사는 번적사 라고도 불리웠는데 절골 안쪽에 심적사,묘적사,은적사 등 3개의 말사를 거느린 규모가 큰 사찰이었다. 전형적인 신라양식으로, 붕괴되어 석축이나 우물가의 빨래돌등으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태백문화원에서 수습하여 석탄박물관의 수장고에 보관해왔다. 석탑은 거의 완벽한 형태로 남아 일부 망실된 석재를 보충해 2012년10월30일 복원되었다.

태백문화

http://taebaekculturalcenter.com

2012 제24집

본적사지삼층석탑 (本寂寺址三層石塔)

태백문화원

2007 문화비전 선언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 을 선언한다.

2007 문화비전 선언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 · 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 · 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07년 10월 10일

대한민국 224개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제9대 김강산 원장/제10대 김해운 원장 이,취임식(2012년6월13일)

2012 문화학교 개강식

국악교실

노래교실

풀루랄라미술교실

스포츠댄스교실

요가교실

천연염색교실

하모니카교실

토들러동작놀이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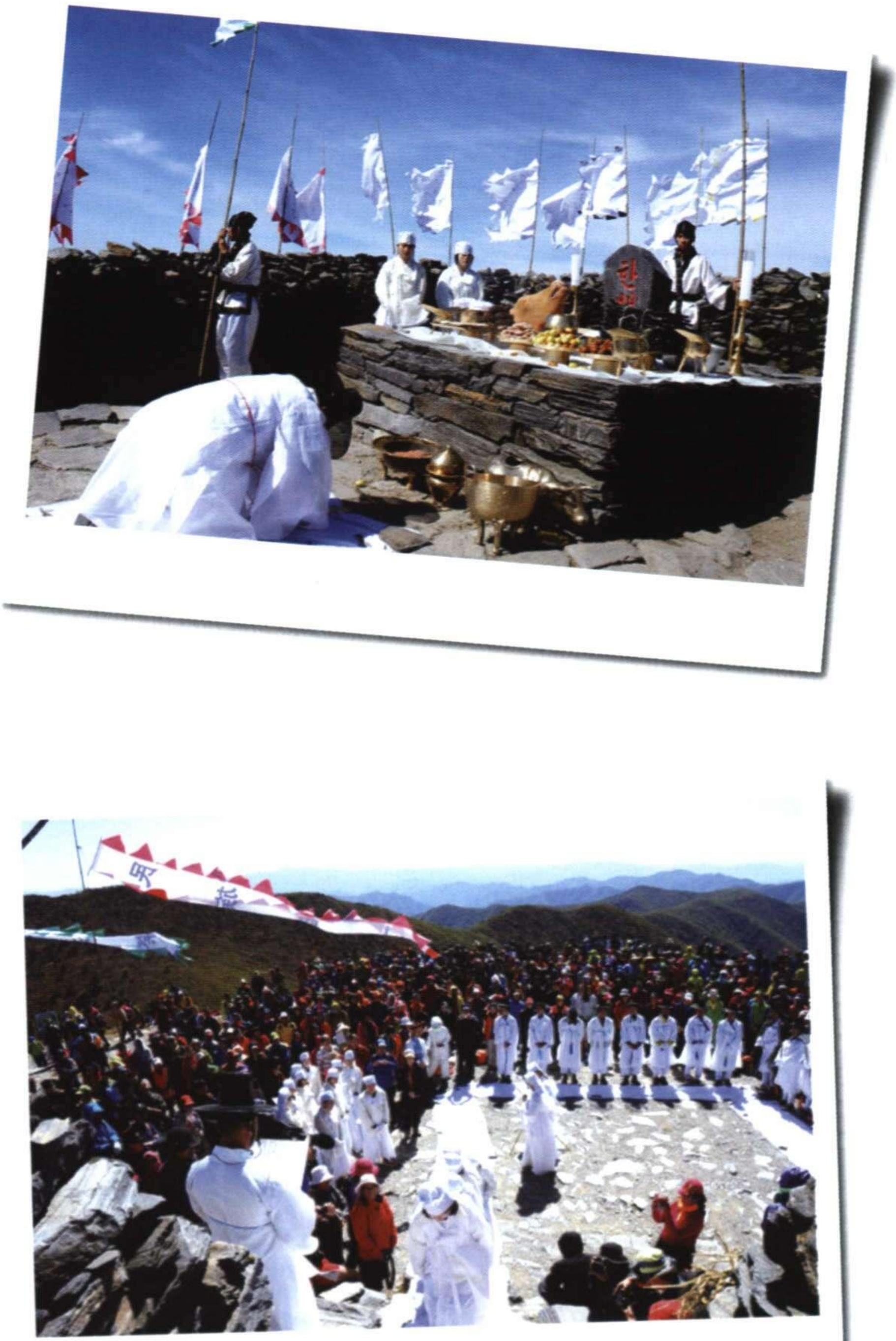
라인댄스교실

2012어르신문화학교작품전시(규방공예)

2012문화학교수료식

단군기원4345년낙동강발원제

단군기원4345년 낙동강발원수채수제



단군기원4345년 태백산천제

문화유적지탐방(만해 한용운 선생생가)

제19회 전통향토음식자랑대회

권두시

하늘에 벽보를

안과 밖이 없는 세상
창공에 원각의 닷 집을 짓자

상(相)의 안경을 벗고
물처럼 자유롭게
저
바람처럼 걸림 없이
문화의 분소의(糞掃衣)를 입히자

장구한 주목이
태백 문화의 뿌리를 지키듯

계사년
소지에 영혼을 적어
하늘에 벽보를 붙인다
새해 소망을,

양 진 모 시인

- 2006년 좋은문학 등단
- 2008~현재 한마음문학회 회장
- (주)의정산업 대표이사

포토에세이

철암 사북방동 1

철암삼방동 II

김 병 철 사진작가

태백예총회장직무대행 역임
빛그림모임 회장 역임/ 태백숲이야기 회장
동점초등학교 사진강사

-목 차-

❑ 2007문화비전선언 2

❑ 사진으로보는 태백문화원 4

❑ 권두시. 시인 / 양진모 14

❑ 포토에세이. 사진작가 / 김병철 15

❑ 발간사. 태백문화원장 / 김해운 19

❑ 축 사. 국회의원 / 염동렬 20

❑ 축 사. 태백시장 / 김연식 21

❑ 축 사. 태백시의회의장 / 고재창 22

❑ 축 사. 태백교육장 / 홍종배 23

❑ 문화논단

– 한강발원지의 역사적 논란에 대한 검토
〈용추는 검룡소가 아니다〉 – 김강산 24

– 삼수령을 통해 본 태백문화의 정체성 – 이상출 84

– 전통문화, 전설이 깃든 태백시! – 은영선 92

-목 차-

❑ 교육칼럼.태백의 교육환경과 향후 추진과제 / 홍종배 …… 112

❑ 교육소감.평생교육사 실습을 마치고 / 방부자 …… 116

❑ 문화유적지탐방 / 허주리 주임 …… 119

❑ 초대시.가을이여 안녕/단소의 향기/김창진 …… 122

❑ 독자기고 / 이수복 …… 126

❑ 2012년 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 ……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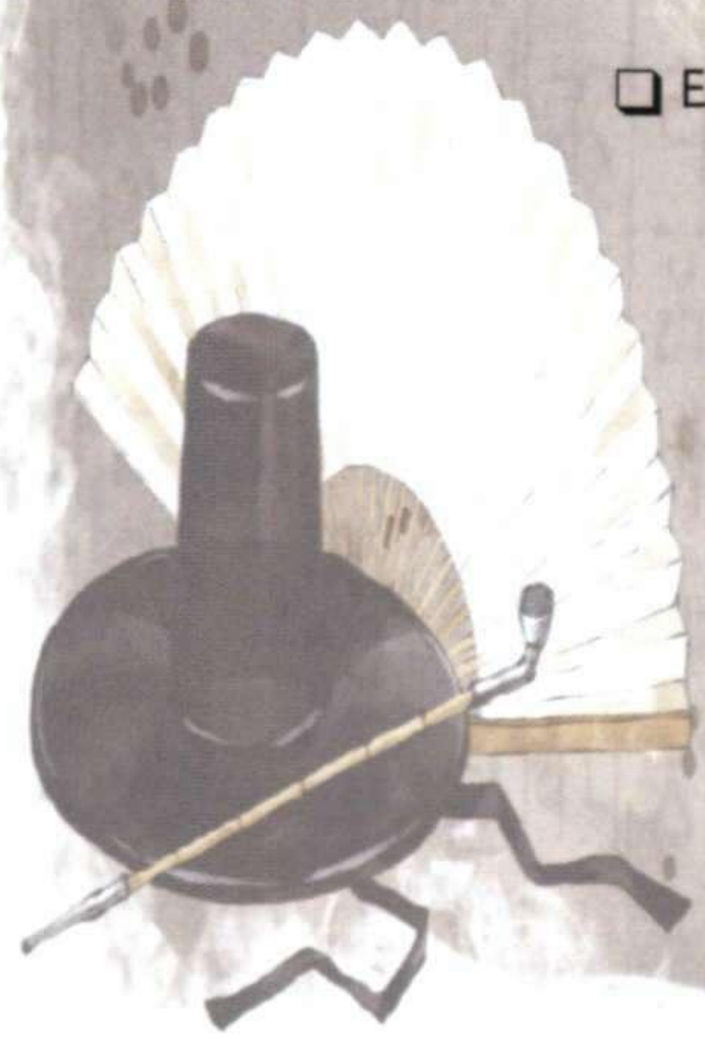
❑ 꿈나무공모전수상작 …… 148

❑ 태백문화원 연혁 …… 167

❑ 임원/사무국 현황 …… 169

❑ 문화학교 강사진 …… 170

❑ 태백의 12경 설정과 설명 …… 171



발/간/사

김 해 운
태백문화원장

옛말에 하루 종일 길을 가다 보면 소도 보고 중도 본다는 말이 있다. 세상사 모든 일에 있어 갖가지 변화를 겪는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

궂은 일이 있은 다음에 좋은 일이 오고 좋은 일 다음에 또 궂은 일이 오듯이 변화무쌍한 삶에 늘 마음의 준비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문화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문화란 단어를 끼워 넣으면 안 되는 말이 없다.
음식에 맞추면 음식문화요, 오락에 맞추면 오락문화요

운전에 맞추면 운전문화요 그렇게 맞추면 되지 않는 말이 없다. 하다못해 언쟁에도 문화라는 말을 집어넣는다.

논리적으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이해시키고, 강단을 조절하여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면서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양식 있는 언행의 풍토를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것은 다시 말해 어떤 행위에 아름답고 지혜로운 언행을 함으로서 질 높은 삶을 구하고자 함이라 하겠다.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온갖 일들로 인해 분열되는 작금의 세태에서 우리는 문화의 참 뜻을 헤아려 보다 품격 높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익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인간관계를 더욱 소중히 하여 적대시하는 마음들을 가라앉혀야 되겠다.

그야말로 문화인다운 격식을 갖추어 저급한 문화를 쇄신시켜야 할 것이다.
지난 일 년의 우리 문화원을 돌이켜보면서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름의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본다.

각계의 성원과 질책 속에서 길을 찾고 지금까지의 좋은 일들을 밑거름으로 삼아 모두가 사랑하는 태백문화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태백문화를 외쳐본다.

염 동 열
국회의원

축/사

태백문화 제24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염동열입니다.

사랑하는 태백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난히 일찍 찾아온 한파와 폭설로 인해 겨울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와 있음을 느낍니다. 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녹일 정도로 풍성한 내용을 가득 담은 '태백문화 24집' 을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태백문화 24집 발간을 맡아 준비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태백시민을 위해 다양한 문화활동과 예술공연을 준비하셔서 우리 태백시민들이 고품격의 문화생활을 향유할 있도록 해주시는 태백문화원 임직원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태백문화원은 조상의 얼과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과 전설, 사라져가는 옛 생활의 풍습 등을 기록, 보존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백의 자랑과 역사를 잘 간직하고 알림으로써 앞서간 어르신들이 남긴 전통문화와 정신을 후세에 계승시켜 애향심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태백시의 크고 작은 문화행사를 주최하고, 시행하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젊은 세대들에게 지금의 태백이 있기까지의 역사에 대해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등대가 되어, 새롭고 희망찬 태백의 내일을 열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태백의 문화예술인들이 새해에도 더욱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지역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보여주셔서 태백이 강원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태백시민들께 마음의 휴식과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시는 태백문화원 관계자 분들을 비롯한 지역의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2013년 새해에도 태백문화원의 더 큰 발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태백문화 제24집 발간을 축하드리며

김 연 식
태백시장

2012 임진년 한해 태백산천제를 비롯한 낙동강발원제 등 향토문화의 전승과 창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태백문화원 김해운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태백문화지는 태백문화원의 한해 활동을 정리, 기록하며 우리시의 지역문화예술의 자취를 남기는 소중한 자료입니다. 또한 향토사 연구의 맥을 이어가며 미진한 부분들을 느끼며 앞으로의 갈방향에 대한 디딤돌이자 후학들에게는 배움의 자료이기도 합니다.

세상사는 흔히 파도로 비유가 되기도 합니다. 한 배의 선장으로서 험한 파도가 두려워서 항구에만 정박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의 숙명은 항구가 아니라 바다가 그의 전쟁터이며 인생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해 즐거운 일이나 슬펐던 일이나 모두 다 과거에 묻습니다. 우리에게 태백시에게 내일은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일구어 노력한 만큼의 수확으로 풍성한 임진년이 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가내에 모두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며 다시한번 태백문화 제24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31.

태백시장 김 연 식

축/사

고 재 창
태백시의회의장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풍경과 시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담아 낸 「태백문화 제24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지역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의 향기를 전달하기 위해 애써오신 김해운 태백문화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흔히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창의적 사고와 절제된 표현력이 빚어내는 문학은 모든 문화의 바탕이라 생각됩니다. 문학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데서 비롯된 순수함의 결정체입니다.

갈수록 삭막해지는 이시대에 문화로 소통하고 문화로 행복해지고, 문화로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복지를 실현하는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로 스물네번째 발간을 맞이하는 "태백문화" 는 독특하고 자연적 소재가 풍부한 우리시의 기반과 역량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고취하고 향토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태백문화 제24집" 이 문학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함께 문학의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삶의 희망을 나누는 의미있는 문화의 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한번 「태백문화 제24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태백문화원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축/사

홍 종 배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
교 육 장

먼저 신묘년 한해 동안의 태백지역 문화의 총화라 할 수 있는 「태백문화 24집」 이 발간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태백문화의 진흥 ·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해운 원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 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구성원의 습성 · 태도 등이 어우러져 하나의 독립된 사고체계 또는 생활습관 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태백지역' 은 매우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 형성의 토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태백에는 민족의 영산 '태백산' , 한강의 발원지 '검용소'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 등 민족의 정신을 담아 내고 겨레의 젖줄을 품어 내고 있는 소중한 자연 환경이 여럿 있으며, 태백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탄광 경제를 찾아 전국 팔도에서 모여 들어 다양한 언어와 생활 습관들이 형성 · 융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태백시민 개개인의 다양성과 태백의 자연이 뿜어내고 있는 아름다움이 다른 의미 있는 여러 요소들을 자연스럽게 하나의 '태백 문화' 로 녹아들게 하고, 이를 절제된 언어와 호소력 짙은 문장으로 다듬어 내는 것이 앞으로도 '태백 문화' 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태백문화지 발간을 계기로 '태백 문화' 의 역동적 담론을 이끌어 내고 태백시민의 문화적 정서 함양과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는 선도적 역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며, 다시 한번 「태백문화 제24집」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강 발원지의 역사적 논란에 대한 검토
– 용추(龍湫)는 검룡소(儉龍沼)가 아니다 –

김 강 산
전)태백문화원장

1. 서　론

2. 본　론

1) 자료의 수집
2) 자료의 독점
3) 지도의 제작
4) 동여도(東輿圖)는 어떤 지도인가?
5) 동여도(東輿圖) 속에 나타나는 표기오류의 사례들
   (1) 활기촌(活耆村)
   (2) 고석령(孤石嶺)
   (3) 용연(龍淵)
   (4) 아곡천(阿谷川)
   (5) 죽현천(竹峴川)
   (6) 갈전산(葛田山)
   (7) 토산(兎山)
   (8) 대전리(大田里)
   (9) 용추(龍湫)
6) 용추(龍湫)는 어디 인가?
   (1) 한소리(汗沼里) 용소(龍沼)
   (2) 용연리(龍淵里) 용소(龍沼)
   (3) 역둔출장소(易屯出場所) 관내의 용소(龍沼)들
   (4) 고지도(古地圖)에 나타나는 용추(龍湫)
7) 검룡소(儉龍沼)는 새로운 발견이다.

3. 결　론

문화논단

한강 발원지의 역사적 논란에 대한 검토
– 용추(龍湫)는 검룡소(儉龍沼)가 아니다 –

1. 서 론

한강(漢江)은 대개 백두대간(白頭大幹)의 마루금 서쪽에서 발원되어 강원도의 영서(嶺西) 땅을 적시며 수도권을 관통하여 서해로 흘러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강이다.

한강의 기적이라 하여 발전된 대한민국의 상징처럼 된 강이기에 현대인들에게 한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남다르다 할 것이다. 또한 조선조의 도읍터인 서울을 관통하는 강이자 수운(水運)을 통한 내륙의 중요한 수로교통(水路交通)의 요충이었기에 한강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대단하였다.

이렇게 중요한 강이다 보니 발원지에 대한 인식도 오래되어 고려시대에 편찬한 삼국유사의 보질도태자 조에 우통수(于筒水) 물로 차를 끓여 공양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는 권근(權近)의 수정암기(水精庵記)에 의해 우통수(于筒水)가 한강의 발원지로 언급 되어 지기 시작하였다. 그 뒤 각종 문헌은 권근의 글을 무비판적으로 인용하여 한강의 발원지가 우통수라는 기록이 넘쳐나 근대적 지도의 효시라 할 서기1921년경 일제에 의해 제작된 등고선이 있는 현대적 지도가 나오기 전까지 회자되었고 그 뒤에도 깊은 성찰 없이 오대산(五臺山) 우통수(于筒水)가 각종 사전류에 게제 되었다.

하지만 서기 1662년 저술된 척주지(陟州誌)의 장생리(長生里:현재의 태백시와 삼척시 하장면 지역) 조에 이미 한강(大江)의 가장 먼 물줄기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면 상징적 발원지와 실제적 발원지에 대한 인식이 일찍부터 있어 왔다고 보여 진다.

서기 1981년 경 강을 연구하던 이형석씨가 강의 발원지에 대해 글을 쓰면서 세인들의 관심을 끌었고 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강의 발원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가 뒤를 이었다. 그 여파로 서기 1984년 경 한강(漢江)의 발원지(發源地) 검룡소(儉龍沼)가 발견되었고 우통수와 지루한 발원지 논쟁 끝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검룡소가 한강의 발원지로 공인 받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서기 2010년 국가지정 명승지 제 73호로 지정이 되었다.

그런데 최근 일부에서 동여도(東輿圖)라는 지도에 용추(龍湫)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그 용추가 바로 검룡소(儉龍沼)라는 논지의 글이 유포되면서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발원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 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하며 진위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게 하였다.(1)

용추(龍湫)를 검룡소(儉龍沼)로 비정하는 사례는 정확한 기초조사 내지는 현장성이 없이 정확도가 떨어지는 옛 지도(地圖)나 문헌(文獻)에만 의존하고 나아가 그 도서(圖書)나 문헌을 잘못 이해함으로서 생겨나는 편견이라는 등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기에 이 글에서는 그 지도와 문헌에 기록된 것의 진위(眞僞)를 가려 한강(漢江) 발원지(發源地)의 역사적(歷史的) 논란(論難)에 대한 검토(檢討)를 확실히 하고자 한다.

2. 본 론

1) 자료의 수집

교통과 측량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조정에서 어떤 편찬사업을 하게 되면 각 지방 관아에 시달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세종(世宗) 16년(서기1434년) 5월 24일자 기록을 보면,

"호조에 전지하기를, '이 앞서 그린 우리나라의 지도(地圖)가 자못 서로 틀린 곳이 꽤 있어 이제 이미 고쳐 그렸으니, 각 도의 각 고을 수령으로 하여금 각각 그 경내(境內의 관사 배치의 향배처소(向排處所)와 산천내맥(山川來脈), 도로(道路)의 원근이수(遠近里數)와 그 사면(四面)의 이웃 고을의 사표(四標)를 갖추어 자세하게 그림으로 그려 감사(監司)에게 전보(轉報)하도록 하고, 감사는 각각 주군(州郡)의 차례로 폭(幅)을 이어 올려 보내서 참고하도록 하라' . 하였다." (傳旨戶曹,前此畵成本國地圖頗有相錯處今已改畵令各道各官守令各其境內官舍排置向排處所及山川來脈道路遠近里數與其四面隣郡四標備細圖畵轉報監司監司各以州郡次第連幅上送以備參考)(2)

라고 하였으니 지도를 만들거나 그 밖의 도서를 만들 때도 지방관아에 지시하여 각종 자료를 올려 보내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성군으로 알려진 세종의 지시에도 제대로 일이 되지 않았는지 문종(文宗) 때 다시 지시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문종 즉위년(서기1450년) 12월 28일자 기록에 보면,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여러 도의 군읍(郡邑)은 서로 거리가 멀고 가까움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비록 혹은 군사를 징발하는 일이 있어도 그 멀고 가까움이 애매하여 조치하기를 잘못할까 두렵다. 각 도(道)로 하여금 주군(州郡) 간의 거리의 이수(里數)를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고 참고하여 지도(地圖)를 만드는 것이 좋겠

다.' 하였다." (親事上曰我國諸道郡邑相距遠近未知故雖或有徵兵之事昧於遠近恐失措置其令各道詳錄州郡相距里數以聞參考作地圖可也)(3)

라고 하였으니 세종 때 호조에 지시하여 주군(州郡)간의 현황과 도로(道路)의 원근과 이수(里數)를 보고하라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그것이 미비하니 문종이 다시 지시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조정에서는 지도(地圖)뿐만 아니라 사초(史草)와 그 밖의 각종 문서자료도 강제적으로 수집하고 만약 수집에 응하지 않으면 벌로 다스리기도 하였으니, 같은 책 세종 6년(서기1423년) 12월 29일자 기록에 의하면,

"변계량이 아뢰기를, '건문2년 경진 11월부터 영락16년 무술 12월까지 춘추관 이하에 보임되었던 여러 사람들의 사초를, 서울은 오는 영락22년 2월 그믐날까지, 경기 충청 황해 강원도 등은 3월 그믐날까지, 경상 전라 평안 함길도는 4월 그믐날까지를 한도로 하여 일체로 모두 수납하게 하고, 미납하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전례에 의하여 자손을 금고(禁錮)하고, 백은(白銀) 20냥쭝을 징수하여 나라의 법을 엄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 (卞季良等謹言:建文二年庚辰十一月至永樂十六年戊戌十二月充春秋館以下各人史草京中則限來永樂二十二年二月晦日京畿忠淸黃海江原等道三月晦日慶尙全羅平安咸吉道四月晦日一皆收納其有未納者宜倣前例子孫禁錮徵白銀二十兩以嚴邦典從之)(4)

라고 하였다. 세조 6년에는 전국 8도 관찰사와 개성유수에게 시문의 수집을 명하니,

"8도의 관찰사와 개성부 유수에게 유시하길, '고금의 우리나라사람들이 지은 시문(詩文)은 좋고 나쁨을 논하지 말고, 비록 남아있는 편(編)이나 짧은 장(章)이라도 남김없이 찾아내어 주석(註釋)한 자들이 기술한 것과 아울러 보내라.' 하였다" (諭八道觀察使及開城府留守曰:古今東人所製詩文勿論善惡雖殘編短章無遺搜訪井釋家所著以送)(5)

라고 하였고, 이어서 세조 12년(서기1466년) 11월 4일자 기록을 보면, 대사헌 양성지(梁誠之)가 상소하길,

"신이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사기(史記)는 전대(前代)의 선악(善惡)을 상고하여 만세(萬世)의 권계(勸戒)를 삼는 것이므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에 가장 간절하게 되어 성리(性理)의 책과 더불어 서로 체(體)와 용(用)이 되는 것입니다. 지리(地理)는 주군(州郡)의 연혁과 산하(山河)의 액새(阨塞)를 기재한 것이므로, 소하(蕭何)는 이로써 먼저 도적(圖籍)을 수집하였고 동파(東坡)는 지장도(指掌圖)를 만들었으니 이것은 진실로 대국(大國)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병법에 이르러서는 정전(征戰)의 승패(勝敗)를 말한 것이니 더욱 마땅히 요점을 추려서 장수와 군사들에게 가르쳐야할 것입니다. 빌건대, 제가(諸家)의 병법(兵法)과 사기(史記)와 지도(地圖)를 모두 집록(輯錄) 하도록 하여 일대(一代)의 전고(典故)를 이루게 하소서..." (臣竊意史記所以考前代之善惡爲萬世之勸戒最切治體與性理之書相爲體用者也地理所以載州郡沿革山河阨塞蕭何以之先收圖籍東坡以之指掌作圖是誠大國之不可無者也至於兵法所以論征戰勝敗尤當撮要以訓將士者也乞諸家兵法史記地圖竝令輯錄以成一代之典...)(6)

하며, 각 가정에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각종 서책이나 지도 등을 수집하도록 상소하고 있다.

예종(睿宗) 1년(서기1469년) 9월 18일 기사를 보면,

"모든 천문(天文) 지리(地理) 음양(陰陽)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집에 간수하고 있는 사람은, 서울에서는 10월 그믐날까지, 한정하여 승정원에 바치고 외방(外方)에서는 가까운 도(道)는 11월 그믐날까지, 먼 도(道)는 12월 그믐날까지 거주하는 고을에 바치라. 바친 자는 2품계를 높여 주되 상 받기를 원하는 자 및 공사천구(公私賤口)에게는 면포(綿布) 50필을 상 주며,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고(陳告)를 받아 드려 진고한 자에게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論賞)하고, 숨긴 자는 참형(斬刑)에 처한다. 그것을 중외(中外)에 속히 유시하라.(及凡于天文地理陰陽諸書家藏者京中限十月晦日呈承政院外方近道十一月晦日遠道十二月

晦日納所居邑納者超二階自願受賞者及公私賤口賞綿布五十匹隱匿不納者許人陳告告者依上項論賞匿者處斬其速諭中外)(7)

고 하면서 왕이 예조에 명하여 모든 천문 지리에 관계되는 자료를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숨기면 참수하여 죽이겠다고 유시(諭示)하니 개인이 감히 소장할 수 있겠는가. 왕조시대에 있어서 모든 자료는 국가 곧 왕의 것이기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거두어들일 수 있었다. 적당히 회유하고 듣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 있기에, 자료는 백성들이 보관하고 있지만, 국가는 언제라도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집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2) 자료의 독점

사실 왕조시대에 개인의 사유(私有)나 개인의 자유(自由)는 곧잘 국가라는 대의명분에 의해 박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한다. 혹시 지도(地圖)를 개인(個人)이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국가에 바치지 않고 개인이 몰래 소장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국가의 기밀을 사사로이 가지고 있었다 하여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세상이 왕조시대 였다.

지도(地圖)라던가 지지(地誌)가 다른 나라로 유출(流出)되어 침략(侵掠)에 도움이 된다면 역적죄(逆賊罪)를 면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반대로 다른 나라의 정세를 알고자 하면 그 나라의 지도를 입수하는 것이 필수일 수도 있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 중종(中宗) 31년(서기1536년) 5월 10일 기록을 보면,

"정원(政院)에서 예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천하여지도의 일에 대해 일을 잘 아는 통사(통사)에게 물어보니, 전에 가지고 온 지도는 여염에 있던 것으로 구역이 상세하지 못합니다. 다만 계사년과 갑오년부터 제독주사(提督主事) 장오(張鏊)가 이 일에 뜻을 두어 우리나라 도로의 멀고 가까운 것까지 모두 탐문하여 지도를 상세하게 만들어 놓고는 늘 앉아있는 곳에 병풍처럼 걸어놓고 쇠못으로 박아 놓아서 형편상 가져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글씨 잘 쓰는 자로 하여금 모사하더라도 1~2일에 끝내지 못할 것이며 이것이 또한 관청에 있는 물건이라서 혹 보지도 못하게 금지시킬지도 모를 일이나, 다행히 여염에 이러한 지도가 있으면 사올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도는 한 폭의 종이에 인쇄한 것이니 그 값이 반드시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선 성절사(聖節使)가 가는 편에 하유하여 사 올 수 있으면 사오고 사올 수 없으면 다음 성절사가 가는 길에 사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전교하기를, ' 중국의 민간에 천하지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어찌 없겠는가. 지금 만일 가포(價布)를 보내지 않고 사적(私的)으로 사오라고 하면 혹 사지 못하였다고 핑계할 수도 있을 것이니, 곧 해조(該曹)를 시켜 가포를 마련하고 서장(書狀)을 만들어서 특별히 말을 주어 빨리 가서 하유하게 하라. 그리고 이것이 중국 조정에서 금하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다방면으로 널리 구하여 사가지고 올 일로 아울러 하유하라." (政院以禮曹意啓曰天下輿地圖事問於事知通事則前者出來地圖乃閭閻間所有也其爲區別未詳但自癸巳甲午年間提督主事張鏊有志於此如我國道路遠近竝皆探問而爲圖詳盡乃於常坐處掛置如屛釘之以金勢不可取觀而欲令善書者摸之則亦不可一二日而畢也是又在官之物亦或禁之而使不得見也幸閭閻間如有此圖則可以貿來矣圖乃一紙幅所印之物其債必不甚重今姑下諭聖節使之行可貿則貿來不可則待後行貿之何如傳曰天下地圖中原閭閻間豈無有之者乎今若不送價布而私自貿來則或托以不貿矣卽令該曹價布磨鍊爲書狀給馬下諭此雖禁物多般廣求貿來事并下諭可也)(8)

라고 하여 중국으로 가는 사신에게 천하지도를 사오라고 하고 있다.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임금의 권위를 위해서도 천하지도 같은 것은 필요하기에 꼭 구해 오도록 한 것이다. 지도라는 것은 국가의 기밀도 되고 왕권의 권위의 상징이 되기도 한다.

서기 1592년 임진년(壬辰年) 4월에 왜군(倭軍)이 쳐들어오니 임진왜란(壬辰倭亂)이다. 왜병(倭兵)이 쳐들어오고 얼마 지나서 그들이 사용

하던 해로지도(海路地圖)를 입수하게 되어 살펴보니 아주 정밀하였다고 한다. 선조(宣祖) 25년(서기1592년) 5월25일 기록을 보면,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왜인들의 해로지도를 보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우리나라의 간사한 무리가 만들어 적과 내통한 것입니다." (備邊司啓曰臣等得見倭人海路地圖其於形勢周議極備此必我國奸細如許通謨而然也)(9)

라고 하였으니, 국가의 기밀에 해당하는 지도를 적에게 넘겼으니 적이 그 지도를 보고 쉽게 우리 강토를 유린하였다고 믿는 것이다. 그만큼 지도는 중요하며 국가의 안위 문제와도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다.

명나라 때는 천하지도를 사오기도 했지만, 청나라가 건국되면서 간섭이 심해져 몰래 들여오던 지도가 발각되면서 국제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 숙종(肅宗) 3년(서기1677년) 5월 7일 기록을 보면,

"청나라 사람들이 동지사(冬至使) 일행에게서 지도(地圖)를 찾아낸 것을 들어 자문(咨文)을 보내 우리나라를 책망하고 ,지도를 매매한 실정을 조사하여 주달하도록 했다. 임금이 비국(備局) 제신(諸臣)들을 인견(引見)하고 의론하게 하니, 좌의정 권대운(權大運)이 아뢰길, '이는 큰 일이 아닌데도 저들이 바야흐로 우리를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니, 마땅히 따로 사주사(査奏使)를 보내야 할듯 합니다마는 재차 사신을 보내기는 폐단이 있습니다. 또한 저 사람들은 비록 큰일이라도 오는 사신편에 부치지 않는 것을 그르게 여깁니다. 사신 복창군 이정(李楨) 등이 또한 관서에 머무르며 회보(回報)를 기다린다고 하니, 내일 빈청(賓廳)에 모여 시급하게 주문(奏文)을지어 파발마(擺撥馬)로 내려 보내고, 방물(方物)도 시급히 마련하여 보낸다면 10일이 지나지 않아서 마땅히 의주(義州)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淸人以冬至使行中搜得地圖事移咨責我又令查奏其買賣事情上引見大臣備局諸臣議之左議政權大運曰此非大事而彼方疑我故如是耳似當別遣查奏使而再使有弊且彼人雖大事不以順付來使爲非使臣福昌君李楨等亦留關西以待回

報云明日會賓廳速製奏文以撥馬下送方物亦速備送則不過十日當到義州矣上從之)(10)

라고 하여, 지도를 숨겨 들여오다가 짐짝을 뒤지는 바람에 들켜서 아니 할 말로 뇌물을 주고 무마시키는 일이 벌어졌었다.

지도는 국가의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가에서 관리하고 자기 나라의 지도를 다른 나라에게 준다는 것은 군사적 기밀을 주는 것과 같으니 위험한 일이 된다. 만약 자기 나라의 지도를 다른 나라에게 준다면 그것은 그 나라에 대해 침략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의 침략을 받은 우리나라는 절치부심하며 한 때 북벌론(北伐論)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숙종 때 청나라 사신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지도를 보자고 하여 조정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으니, 조선왕조실록 숙종(肅宗) 39년(서기1713년) 6월 2일 기록을 보면,

"대신과 여러 신하들이 품정(稟定)할 일이 있어 청대(請對)하여 입시(入侍)하였다. 영의정 이유(李濡)가 말하기를, '...(전략) 지금 듣건데 (청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의 전지도(全地圖)를 보고자 한다 하므로... 비국(備局)의 지도는 너무 자세하므로 내보일 수가 없고, 근래에 얻은 1건의 지도는 상세하지도 않고 간략하지도 않지만 틀린 것이 많으니, 마땅히 이 지도를 내보이게 해야 합니다.' 하니, 공조판서 김진규(金鎭圭)는 아뢰기를, '처음에는 황제의 뜻이 있었다고 일컫다가 지금은 갑자기 병을 핑계 삼아 상칙사로 하여금 대신 말하게 하니, 간사하고 음흉함이 심합니다. 저들의 뜻은 우리나라의 팔도 지형을 탐지코자 하는 것인데, 지금 만약 한 번 이런 길을 열어 놓으면 후일에는 이보다 더 큰 것이 있게 될 것이니, 장차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하니, 좌의정 이이명(李頤命)은 말하기를, '사체(事體)는 그렇습니다만, 이는 대단한 일이 아닌데, 반드시 고집해 다투고자 하면 한갓 치욕만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 말을 옳게 여겨 명하기를, 말을 잘 만들어 언급한 뒤에 내보이도록 하라. ' 하였다." (大臣諸臣有稟定事請對入侍領議政李濡

曰...今聞欲見東國全地圖...但備局地圖太詳不可出示近得一件圖不詳不略...以此措辭言及宜矣工曹判書金鎭圭曰初稱以有帝旨今忽稱病而使上勅替言其回諵甚矣彼意欲探知我國八路地形今若一開此路則日後有大於此者將何以處之左議政李頤命曰事體則然而此非大段必欲爭執徒貽辱矣上然其言命善爲指辭言及後出示)(11)

라고 하였다. 남의 나라에 지도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 영의정과 공조판서는 국가의 기밀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좌의정과 임금은 별것 아니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청나라를 무시하고 오랑캐라고 멸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들에게 간섭 받고 억압받으며 살던 때가 조선조 후기였다. 국내적이던 국제적이던 군사기밀이 중요한데, 관건은 지도이다. 지도 속에서 가장 중요한건 군사정보이고 지리정보이다. 청나라 사람들이 지도를 보자고 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니 조선의 조정이 긴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지도(地圖)이기에 지도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밀과 연관된 자료는 모두가 국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3) 지도(地圖)의 제작

우리나라에서 지도를 처음 제작한 것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구당서(舊唐書)에 의하면, 고구려 영류왕(營留王) 11년(서기628년)에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면서 '봉역도(封域圖)' 라는 지도를 보냈다는 기록이 나온다. 구당서(舊唐書) 열전(列傳) 제일백사십구(第一百四十九) 상(上) 고려(高麗) 조에 보면,

" 정관2년 힐리가한의 돌궐을 격파하였다. 건무가 사신을 보내어 축하하였고, 아울러 봉역도(封域圖)를 바쳤다." (貞觀二年破突厥頡利可汗建武遣使奉賀并上封域圖)(12)

라고 하였으니 이로 미루어 보면 고구려는 그 이전부터 지도가 제작되

었음을 알 수 있다.

서기 1953년 북한의 평안남도 순천군에서 발굴된 고구려 고분에서 '요동성시' 의 그림지도가 발견되었다. 이것은 당시에 그림 형태의 지도가 성행하였다고 보며 조선시대 전기에 유행하던 회화적 지도와 유사한 점이 많다.

김정호의 〈청구도〉 부록에 삽입된 '신라구주군현총도(新羅九州郡縣總圖)' 를 참고해 보면 이미 통일신라에서도 구주의 강역을 나타내는 지도를 만들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도 지도를 만든 증거가 여러 사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요사(遼史)에 보면 목종 5년에 거란에 고려지도를 보낸 일이 있다고 하였으니 고려시대에도 나름 지도가 있었다고 보며 이때에 '오도양계도(五道兩界圖)' 라는 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이 지도가 조선 초기 지도 제작자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려 말에 나흥유(羅興儒)가 그린 오도양계도(五道兩界圖)는 조선 태조 5년에 이첨(李詹)이 그린 삼국도(三國圖)나 태종 2년에 이회(李薈)가 그린 팔도도(八道圖)의 기본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고 그 지도의 형태는 역대제왕혼일강리도(歷代帝王混一疆理圖)라는 지도를 보면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고 한다.

조선 세조 때 양성지(梁誠之)가 그린 동국지도(東國地圖)는 기존의 지도를 능가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도였으며 나중에 정상기(鄭尙驥)의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가 제작될 때까지 표준지도 역할을 하였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지도(地圖)들은 회화식(繪畵式) 지도에서 방안식(方眼式) 지도로 발전하고 다시 백리척(百里尺)의 축척식(縮尺式) 지도로 발전하게 된다. 이러한 새로운 지도의 제작은 조선후기로 오면서 청나라와의 교류로 새로운 지도 제작법이 전해지면서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그 효시는 정상기(鄭尙驥)였다. 정상기는 백리척(百里尺) 축척(縮尺)이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를 제작하였기 때문에

기존의 어느 지도 보다 정밀하였다.

조선후기에 한동안 정상기류(鄭尙驥流)의 지도가 표준이 되었고 그 뒤 김정호류(金正浩流)의 지도 제작에 영향을 주었으며, 김정호류(金正浩流)의 지도는 현대지도가 나올 때까지 표준지도가 되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연산군 3년(서기1497년) 11월 15일 기사를 보면,

"판중추부사 이극균(李克均)이 경상우도(慶尙右道)의 지도를 그려서 올리고 인하여 아뢰기를, '좌도(左道)의 지도는 성종 때 그려 올렸는데 숭문전(崇文殿)이 불났을 적에 타 버렸으며, 신(臣)도 또한 일찍이 그 본(本)을 소장해 두지 않았기에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判中樞府事李克均畵慶尙右道地圖以進曰左道地圖則成宗朝畵進而燒於崇文殿失火時臣亦未嘗藏本故不悉其祥) (13)

라고 하여 경상우도의 지도를 그려 바치고 아울러 경상좌도의 지도도 그렸음을 밝히고 있다. 같은 책 중종 8년(서기1513년) 2월 4일 기사를 보면,

"순변사 황형(黃衡)이 함경도 지도를 올리다." (巡邊使黃衡進咸鏡道地圖)(14)

라고 하여 뜻있는 사람들이 지도를 그려 올렸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극균의 말이다. 이극균은 경상좌도의 지도도 본인이 그렸음을 말하고 있지만, 원본을 임금에게 바치고 부본을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 부분이다. 시사하는 바가 큰 말이다. 이 부분을 유추해 보면, 개인은 지도의 소장이 불가함을 은연중에 밝히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모든 지도 제작자들은 개인이 소장하려고 지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나라에 바치려고 만든 것이며 나라에 바치므로 해서 공(功)을 이룰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지도의 제작은 개인이 하지만 그것은 곧 국가(國家)를 위해 하는 것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각 지방의 군현(郡縣)에 지시하여 여러 자료를 수집

하여 그것들을 짜깁기하여 만드는 것이 고지도(古地圖)였다. 여기에서 한발만 삐끗하면 국가의 기밀을 누설하게 되어 벌을 받기도 한다. 그래서 지도의 개인 소장은 엄격히 제한되었고 어쩌다 지도를 제작하게 되면 곧 나라에 바쳐 충성을 표하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 영조(英祖) 33년(서기1757년) 8월 9일 기사를 보면,

"임금이 함인정에 나아가 신하들을 불러 소고(召誥)를 강(講)하게 하였다. 임금이 이르기를, '지도(地圖)를 자세히 보니 과연 기이하였다. 인군(人君)이 보고 싶어 하기만 하면 가히 얻지 못할 물건은 없겠다.' 하니, 수찬 홍양한이 말하기를, '임금님이 좋아하면 아래 사람들도 더욱 심하게 좋아할 것이니, 임금의 호오(好惡)는 신중하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이 한 가지 일에서도 역시 경계하여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하매, 임금이 이르기를, '그러하다.' 하였다. 홍양한이 말하기를, '또 팔도(八道) 분도첩(分圖帖)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니, 가져오라 명하고는 이를 보고서 하교하기를, '이제 팔도 분도를 보니, 더욱 지극히 정밀하다. 역시 전도(全圖)에 의거하여 모사하여 들이고 아울러 모사한 것을 본관(本館)과 비국(備局)에 비치하라.' 하매, 홍양한이 말하기를, '신은 지도의 일에 대하여 삼가 소회가 있습니다. 대개 여도(輿圖)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소중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서 〈여지승람(輿地勝覽)〉의 편찬이 이루어진 것이 이미 수 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 뒤의 연혁은 다시 고징(考徵)할 수가 없으니 이어서 편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경솔히 의논드리기 어렵습니다. 열읍(列邑)의 읍지(邑誌)는 곧 여지(輿地)의 근본으로서 근래의 연혁을 가히 고징(考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본관으로부터 8도에 글을 보내어 열읍에서 읍지가 있는 것은 등본(謄本)이나 인본(印本)을 막론하고 모두 모아서 올려 보내게 하며, 글로써 이루어진 것이 없거든 곧 수집(修輯)해 엮어서 올려 보내게 하여 고거(考據)에 대비토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아뢴바가 매우 좋다. 곧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上御涵

仁亭召儒臣講召詰上曰細覽地圖果奇矣人君欲見則無不可得之物矣修撰洪良漢曰上之所好下必甚焉人主好惡不可不愼於此一事亦有鑑戒之道矣上曰然良漢曰又有八道分圖帖命取入覽之敎曰今覽八道分圖尤極精該亦依全圖模寫以進竝令摸置本館及備局良漢曰臣於地圖事竊有所懷夫輿圖者有國之所重也我國勝覽之纂成已過數百年其後沿革更無所考不可不續成而此則姑難輕議至於列邑邑志卽輿地之本挽近沿革可以考徵請自本館移文八道列邑之有志者無論謄本印本竝收聚上送其無成書者卽令修輯編成上送以備考據焉上曰所奏甚善卽宜擧行)(15)

라고 하였으니, 영조 이후에 봇물처럼 터져 나온 지도(地圖) 제작이 왕의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왕이 지도(地圖)에 관심을 표하므로 해서 너도나도 공을 세워 출세하려고 좀 더 정밀한 지도를 제작하는데 불을 당긴 것이 아닌가 한다.

김정호 보다 앞선 시대에 살았고 동국대지도(東國大地圖)를 만들어 후세 지도 제작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 정상기(鄭尙驥)도 지도를 만들기 위해 팔도를 헤맨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도(地圖)나 지지(地誌)를 참고하여 당시로는 가장 정밀하고 발전된 지도를 만든 것이다.

그의 문집 농포문답(農圃問答)에 보면,

"나의 발자취가 미친 곳은 수백리에 불과하고, 듣고 본 것도 또한 한 고을 밖을 나가지 못했는데, 무엇으로서 온 나라의 고질적인 폐단을 갖추어 알겠는가? 그러나 가까운 것으로써 미루어 보면 먼데 것도 알 수가 있다." (16)

라고 하였으니, 정상기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 전국을 답사한 것이 아니라 집안에 전해오는 지도(地圖)나 지지(地誌) 등을 참고하여 그렇게 멋지고도 정밀한 지도를 만든 것이다.

신헌(申櫶)이 지은 대동방여도서(大東方輿圖序)에 보면,

"나는 일찍이 우리나라 지도(地圖)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비변사나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지도나 옛날 집에 좀먹다 남은 지도(地

圖)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증거로 삼고 여러 지도(地圖)를 서로 대조하고 여러 지지(地誌) 등을 참고하여 하나의 완벽한 지도(地圖)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나는 이 작업을 김백원(金百源:김정호)에게 위탁하여 완성 하였다." (余嘗有意於我東輿圖如籌司奎閣之藏古家蟫蠹之餘廣蒐而證定參互群本援據諸書合以褒輯因謀金君百源屬以成之)(17)

라고 하였으니, 신헌 또한 전국을 답사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도(地圖)와 지지(地誌)를 참고하고 대조하면서 대동방여도(大東方輿圖)를 만들었고 김정호를 각수(刻手)로 하여 판각(板刻)을 한 것이다.

김정호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최한기(崔漢綺)는 청구도(靑丘圖)의 청구도제(靑丘圖題)에서 김정호를 평하길,

"김정호는 어려서부터 지도(地圖)와 지지(地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찾고 살펴 여러 지도 만드는 법을 상세히 알아 매번 조용한 시간에 궁구하여 간편한 비람식(比覽式)을 확실이 구했다." (金正浩年自童冠深留意於圖志歲久搜閱祥諸法之輸贏每値靜閑時確論求得比覽式簡便)(18)

라고 하여, 김정호 역시 기존의 지도(地圖)나 지지(地誌) 등을 참고하여 지도를 제작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유재건(劉在建)의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 김고산정호(金古山正浩)에 보면,

"... 여지학을 좋아하여 깊이 고찰하고 널리 수집하여..." (...癖於輿地之學博巧廣蒐...)(19)

라고 하며 기존의 지도(地圖)나 지지(地誌)를 널리 수집하여 참고하였음을 말하고 있다.

서기1999년 발간된 이상태(李相泰)의 〈한국 고지도 발달사〉 '김정호의 전국 답사설' 에 보면,

"...유재건, 최한기, 신헌, 이 세 사람은 김정호와는 같은 시기에 활약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 김정호가 전국을 두루 답사하였다

고 지적한 사람은 없다. 세 사람 모두 오로지 기존의 지도들을 두루 모아 좋은 점을 따서 집대성 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김정호는 유재건이 지적한 것처럼 '깊이 고찰하고 널리 자료를 수집' 했거나, 최한기가 말한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자료를 찾고 수집 열람' 했으며, 신헌이 말한대로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증거로 삼거나' '여러 지도들을 상호 비교' 하여 『청구도』나 『대동여지도』를 만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심나는 곳은 직접 답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방동인(方東仁)의 지적처럼 단빌은 프랑스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았지만 당시로는 가장 정확한 세계지도를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20)

라고 하면서, 전국을 발로 뛰며 지도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지도(地圖)나 지지(地誌)를 참고하고 대조하면서 지도를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미천한 일개 각수(刻手)에 지나지 않았던 김정호(金正浩)가 동여도(東輿圖)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만들면서 면천(免賤)하며 출세하여 유명인이 된 것에는 왕실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지도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며, 신헌(申櫶)과 같은 인물을 만나 지도에 눈 뜨게 됐고, 재정적 자료적으로 도움을 준 최한기(崔漢綺) 같은 인물의 도움과 김정호 개인의 타고난 재주와 결합하여 당시로는 가장 정밀한 지도를 만든 것이라 본다.

아울러 지도 제작은 국가 차원에서 하지만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특정인들이고 그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조합하여 지도(地圖)를 만드는 것이다. 지도(地圖) 제작법을 익힌 현지인들이 그려 올린 지도를 모아 붙이고 수정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쳐 현대에 근접한 지도를 만든 것이다.

4) 동여도(東輿圖)는 어떤 지도(地圖)인가?

동여도(東輿圖)는 조선 철종(哲宗) 연간(年間)인 서기 1849년~ 1863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를 만든 김정호(金正浩)가 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의 저본으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조선전도(朝鮮全圖)이다. 일부에서는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의 제작이후에 필사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목판본(木版本)인 대동여지도와는 달리 채색으로 그린 필사본(筆寫本) 지도이다. 지도에는 설명과 약18,700여개에 달하는 지명(地名)이 실려 있는데 이 숫자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전도(全圖) 가운데에서 가장 많다. 수록된 고을의 이름이 적혀있는 1층과 지도가 그려져 있는 22층 등 총 23층의 분첩절첩식(分帖折疊式)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도(原圖)에는 각 층 마다 동쪽으로부터 서쪽 방향으로 지도가 연결되어 있으며, 책의 형태에 맞추기 위해 접혀져 있다. 이 원도(原圖)를 모두 연결하여 펼쳐 놓으면 세로 약 7m 가로 약 3.2m에 이르는 대형 전도(全圖)가 된다.

백두산(白頭山) 위쪽으로는 조선(朝鮮)의 수도(首都)였던 한성부(漢城府)와 도성(都城)이 다른 부분보다 대축척(大縮尺)으로 그려져 있어 보다 많은 양의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대동여지도에서는 목판본 제작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범례가 더 간단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바뀌어져 있는데 반해, 동여도는 필사본(筆寫本)답게 조선후기의 상황을 보여주는 많은 인문정보가 담겨져 있다. 육로, 해로 등의 교통로와 진보(鎭堡) 봉수(烽燧) 등의 군사시설이 특히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십리(十里)마다 방점을 찍어 각 지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평지와 산지(山地)의 방점 길이를 달리하여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거리를 표시하였다. 아울러 군현(郡縣)의 경계와 역사지리적인 정보가 많이 수록된 점이 이 지도의 자료적 가치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한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판각(板刻)의 어려움으로 글자를 많이 넣지 못하였지만 동여도(東輿圖)는 필사본(筆寫本)이기에 제작자가 얼마든지 글자를 써 넣을 수 있었을 것이다.

서기1999년 이상태(李相泰)가 저술한 〈한국 고지도 발달사〉를 보면,

"전체적으로 「대동여지도」 주기(註記) 내용은 총 13,138개 인데 비하여, 「동여도」는 18,736개의 주기 내용이 있다. 「동여도」의 주기 내용이 「대동여지도」 보다 5,548개가 더 많은 것이다. 「대동여지도」에서는 판각의 어려움 때문에 상당량의 주기 내용을 줄였기 때문이다." (21)

라고 하며 정확한 조사와 필사본과 판각본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여도(東輿圖)의 전체적인 윤곽은 현재와 매우 유사하지만 평안도(平安道)의 중강진 부분 등 일부 다른 부분도 있고, 18,736개에 이르는 방대한 지명(地名)을 일일이 수작업(手作業)으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의 각종 문헌이나 지지 등을 참고하여 18,730여개의 지명을 수록하였는데, 위치는 틀린 것이 많으나 없는 지명을 표기하지는 않은 것 같다. 특히 이 글에서 문제가 되는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역둔출장소(易屯出場所) 관할의 7개리의 지도를 다르게 그렸는가 하면 부근의 많은 지명(地名)의 표기오류(表記誤謬) 등 완벽한 지도라고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다.

5) 동여도(東輿圖) 속에 나타나는 표기오류의 사례들

동여도(東輿圖)에 표기된 용추(龍湫)를 한강 발원지로 알려진 검룡소(儉龍沼)라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례가 있기에, 과연 동여도(東輿圖)가 믿을 수 있고 정확한 지도(地圖)인지 알아보고 또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지도(古地圖)에 표기되는 지명(地名)이라면 그 지역에서 꽤나 이름

이 난 곳이거나 지방에서 발간된 지지(地誌)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야 지도에 표기하는 것이 대체적인 상식이다. 왜냐하면 지도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김정호(金正浩)처럼 발로 뛰는 것이 아니라(발로 뛰었다고 하는 김정호도 오류가 많음) 지방에서 편찬한 서책(書冊)을 인용하여 관념적(觀念的)으로 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개가 현장을 직접 가보지 않고 자료에 의존하며 자료에서 말하는 곳을 나름대로 찾아 표기하는 행위가 반복되기에 현장감이 떨어지고 엉뚱한 곳에 표기하는 일이 많은 이유이다. 그 엉뚱한 표기를 현장감 없이 그대로 믿는 일부 현대인들의 안이한 생각이 더 큰 문제이긴 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지도(古地圖)에서 제시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현장조사가 있어야 하고 목적한 곳의 광범위한 주변조사가 병행될 때 소기의 성과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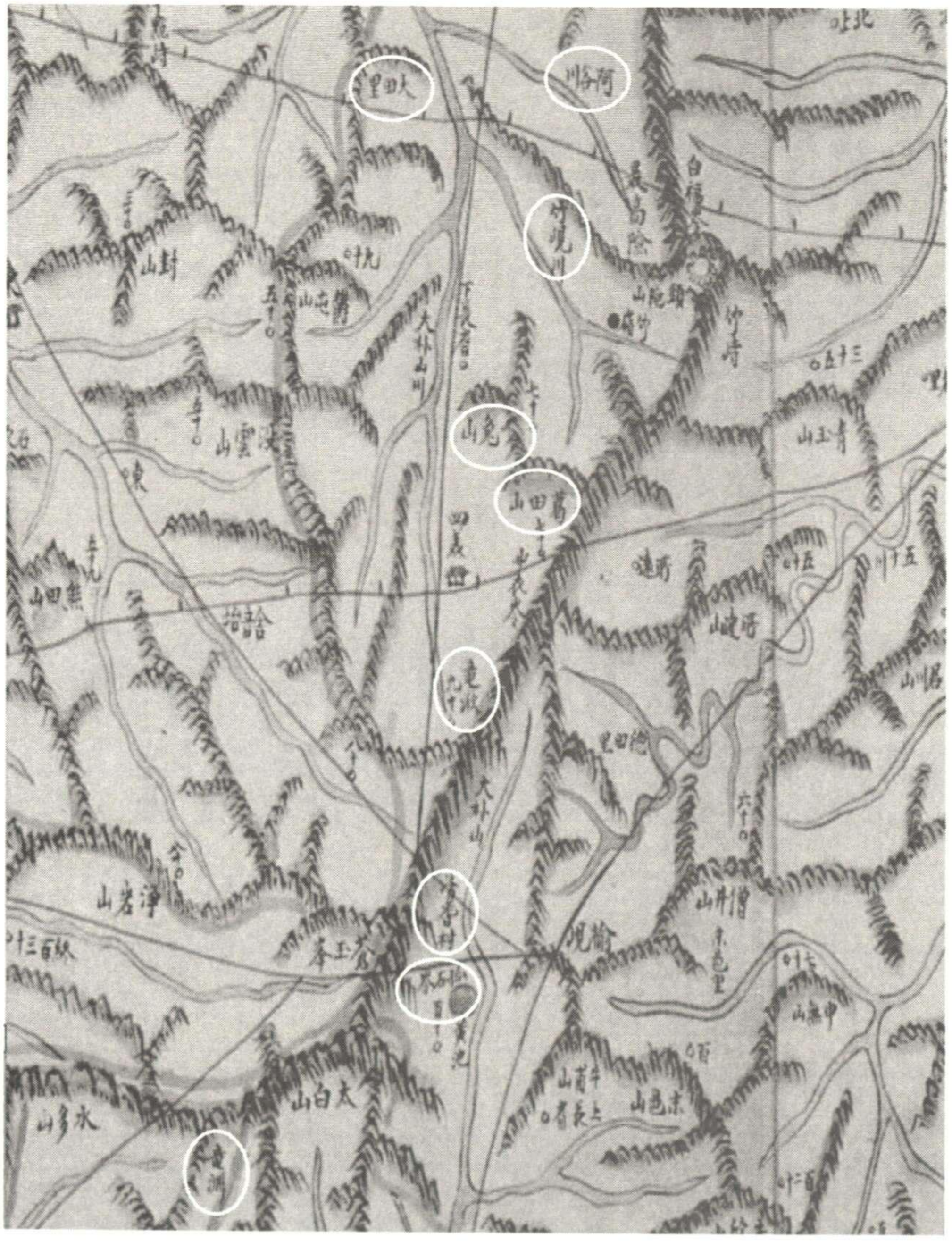
현대적 시각에서 고지도(古地圖)의 오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 될 수도 있으나 그 모순투성이의 지도를 신봉하며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우스운 일을 해서라도 바로 잡으려 하는 것이다.

동여도(東輿圖)에 오류가 많으나, 태백산 부근으로 좁혀서 용추(龍湫)와 그 밖의 위치가 잘못된 표기지명(表記地名) 몇 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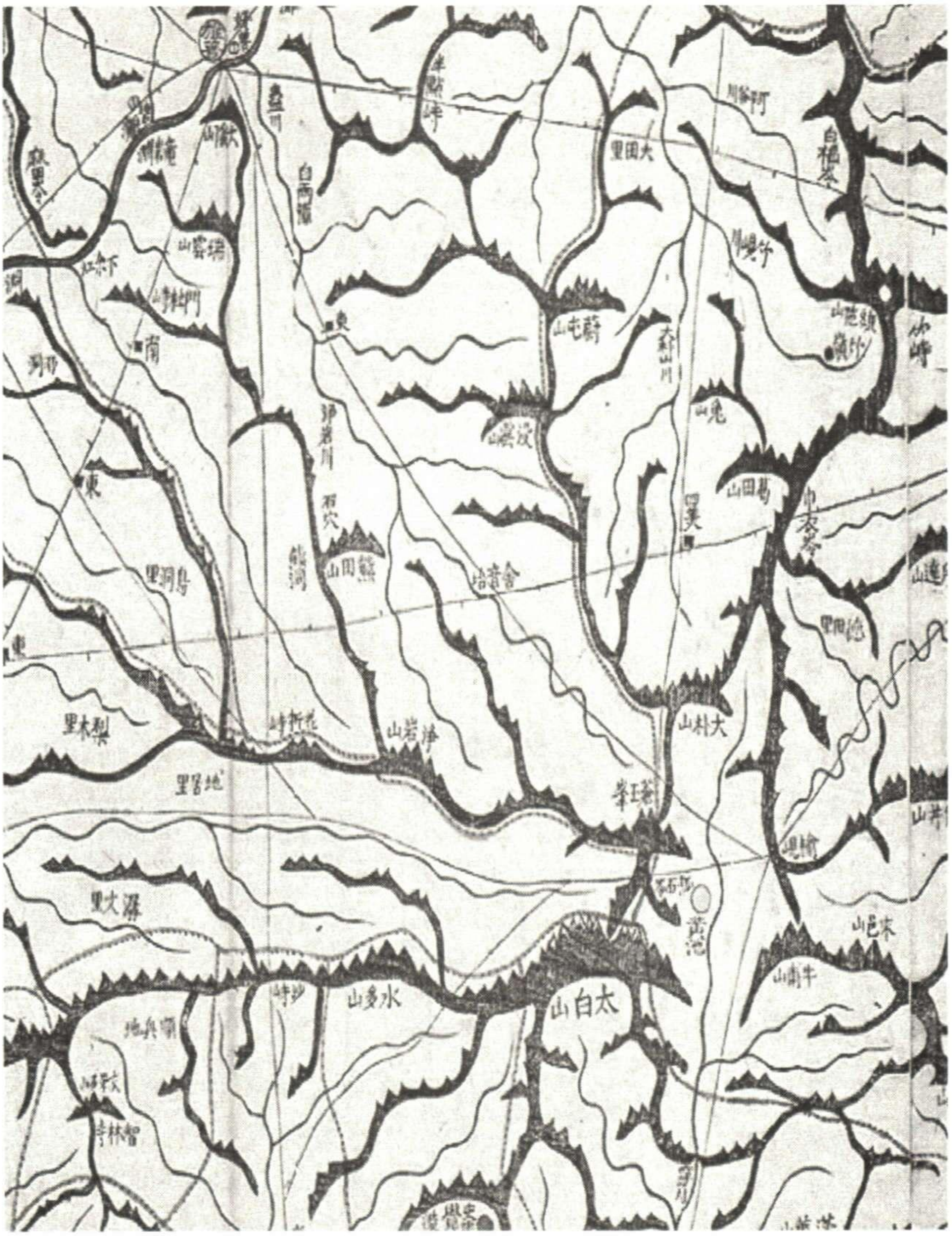
(1) 활기촌(活耆村)

동여도(東輿圖)에 보면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黃池) 바로 위에 활기촌(活耆村)이 표기되어 있다. 이는 지도 제작자가 현장을 와 보지도 않고 자료에만 의존해 지도를 그렸음을 대변하고 있다.

활기촌(活耆村)은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5대조 묘(墓)가 있는 현재의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활기리(活耆里) 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 활기리(活耆里)가 황지(黃池)에서 100리도 넘게 떨어져 있는데 황지(黃池) 가에 표기되어 있으니 이 지도가 얼마나 관념적인지 알 것이다.



동여도(奎10340) 태백산 부근에 잘못 표기된 곳이 10곳이 넘는다.


白雲洞
白雲洞
大田里
白楮洞
山屯蔚
山芭線
山兎
山田葛
山岩淨
山林大
山多水
山白太
山邑木
山南牛
里大潭
里木梨
里昌地
里陽德
里烏洞
里南
里東
里洞
里下江
里門杜
里川石
里川碧
里川禾
里川禾
里川禾

(2) 고석령(孤石嶺)

동여도(東輿圖)를 보면 황지(黃池)와 활기촌(活耆村) 사이에 고석령(孤石嶺)이 표기되어 있다. 이 또한 엉뚱한 곳에 표기한 사례인데,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또한 비슷한 우를 범하고 있다.

고석령(孤石嶺)은 태백산(太白山) 남쪽 자락인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에서 천평리로 넘어오는 강원도와 경상도의 경계 지점에 있는 고직령(高直嶺)의 옛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고직령도 황지에서 100리가 넘게 떨어져 있는 곳이다. 고직령의 남쪽에는 예배령(禮拜嶺.禮佛嶺)이 있어 경상북도 봉화군 물야면으로 통하는 길이 있다.

대동지지(大東地志)의 삼척(三陟) 산수(山水) 조에 보면 고석령(孤石嶺)이 나오는데,

"삼척도호부에서 서쪽으로 일백 십리에 있는데 길이 좁고 매우 험하다. 안동으로 통하는데 춘양의 서쪽이고 영천 예불령의 북쪽 이다."(西一百十里路極細險通安東春陽之西榮川禮佛嶺之北)(22)

라고 하였다.

대동지지는 강원도 삼척에서 고석령(孤石嶺)을 언급하였지만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위치가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쪽이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동여도(東輿圖)는 고석령(孤石嶺)을 황지(黃池) 가에다 표기하였으니 얼마나 관념적인가?

(3) 용연(龍淵)

동여도(東輿圖)에 보면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쯤으로 보이는 지역, 태백산 남쪽 자락 하천의 끝 지점에 용연(龍淵)이라고 표시 하였다. 그래서 옛 문헌을 찾아보기로 하고 아울러 현재의 용연은 어떤지를 살펴보았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이십오(卷二十五) 봉화현(奉化縣) 산천(山川) 조에 보면 용연(龍淵)이 나오는데,

"용연은 태백산 아래에 있는데 가물 때 기우제를 올리면 효험이 있다." (在太白山下値旱禱雨有驗)(23)

라고 하여 가물 때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라 하였다. 위치는 확실치 않은 채 막연히 태백산 아래에 있다고 하였다.

대동지지(大東地志) 봉화(奉化) 산수(山水) 조에 보면 용연(龍淵)이 나오는데,

"용연은 태백산 아래에 있다." (龍淵:在太白山下)(24)

라고 하여 더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위치 확인이 어려웠다. 옛 문헌에 의하면 태백산 둘레가 700리라 했는데, 너무 막연하다.

그래서 다른 문헌인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초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상북도봉화군읍지(慶尙北道奉化郡邑誌)를 살펴보니 다행이도 산천(山川) 조에 용연(龍淵)이 나와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문헌과는 달리 장소가 언급되어 있었는데,

"용연은 매토천에 있다. 하나는 오룡연이고 하나는 백룡연으로 2개의 못이 있다. 가물 때 기우제를 지내면 다 영험이 있다." (在買吐川一曰烏龍一曰白龍爲二淵値旱禱雨皆有驗)(25)

라고 하였으니 장소가 매토천이라고 하였고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 언급한 기우제(祈雨祭) 부분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제 매토천이 어디인지 밝히기만 하면 된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봉화현(奉化縣) 산천(山川) 조에 매토천(買吐川)이 나오니,

"매토천은 매토부곡에 있는데 태백산 황지에서 흘러온 물로 예안현의 나화석 상류이다." (買吐川:在買吐部曲出太白山黃池卽禮安縣羅火石上流)(26)

라고 하였고, 대동지지(大東地志)의 봉화(奉化) 산수(山水) 조에 보면,

"매토천은 봉화 동쪽 50리에 있는데 황지에서 발원한 물로 도미천과 더불어 합류하여 남쪽으로 흘러가 예안 땅 단사계에 이른다." (買吐

川:東五十里源出潢池與道美川合而南流至禮安地爲丹砂溪)(27)

라고 하여 약간 다르게 기술하고 있지만 봉화 동쪽 50리에 있다고 구체적인 방향과 거리를 제시하고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봉화현(奉化縣) 고적(古跡) 조에 보면 매토부곡(買吐部曲)이 나오는데,

"매토부곡의 다른 이름은 청둔이라 한다. 본래 안동부에 속했으나 고려 공양왕 3년에 봉화현에 속하게 되었다. 현의 동쪽 14리에 있다." (別號靑屯本屬安東府高麗恭讓王三年來屬在縣東十四里)(28)

라고 하였다.

위에서 예시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대동지지(大東地志) 경상북도봉화군읍지(慶尙北道奉化郡邑誌) 등 세 가지 기록을 종합해보면 용연(龍淵)은 매토천(買吐川)에 있고 매토천(買吐川)은 매토부곡(買吐部曲)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매토부곡(買吐部曲)은 봉화현(奉化縣)의 동쪽 14리에 있고 매토천(買吐川)도 봉화 동쪽 50리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용연(龍淵)은 매토천(買吐川)에 있는데 매토천은 황지(黃池)에서 흘러가는 낙동강(洛東江)의 본류(本流)로 지금의 청량산(淸涼山) 서쪽의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일대라는 것이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봉화현(奉化縣) 산천(山川) 조에 태백산(太白山)이 나오는데,

"태백산은 봉화현의 북쪽 73리에 있다." (太白山:在縣北七十三里)(29)

라고 하였다.

태백산(太白山)은 봉화에서 북쪽으로 73리이고 용연(龍淵)은 봉화에서 동쪽으로 50리에 있다고 하였으니 이 기록만으로 봐도 동여도(東輿圖)의 표기가 얼마나 엉뚱한 것인지 알만하다.

참고로 경상북도 북부 지방의 대표적 지지(地誌)라 할 영가지(永嘉誌)에는 용연(龍淵)에 대한 기록이 없었다. 그리고 봉화군청(奉化郡廳)을 찾아 문의하니 서기 1996년에 발간된 〈봉화의 촌락과 지명〉이라는

책자가 있기에 살펴보았으나 거기에도 태백산(太白山) 아래에 용연(龍淵)이라는 지명(地名)은 없었다.

(4) 아곡천(阿谷川)

동여도(東輿圖)에 보면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중봉리(中峯里) 쯤 되는 곳의 하천을 아곡천(阿谷川)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아곡천은 다른 이름으로 아시천(鴉柴川)이라고 부르는데, 현재의 두타산(頭陀山) 남쪽에 있는 번천리(番川里)의 옛 이름이다.

서기1916년에 심의승(沈宜昇)이 쓴 삼척군지(三陟郡誌)의 하장면(下長面) 번천리(番川里)에 보면,

"본 마을은 황무지 들이 꽤 넓으므로 처음에는 벌내(벌안,버덩안)라 하더니 이것이 와전되어 번천(飜川) 또는 번천(番川)이라 하며, 또 아시내(鴉柴川)란 속어(俗語)도 있더니 이것은 곧 전계(前溪:아시내)가 오전(誤傳)됨이더니 지금은 번천(番川)으로 관칭(官稱) 하다." (本里난 荒野稍廣함으로써 最初, 伐內(벌안,버덩안)라 稱하더니 此가 訛傳하야 飜川 又난 番川이라하며 且, 鴉柴川(아시내)이란 俗語도 有하니 此, 卽, 前溪가 誤傳됨이더니 今에난 番川으로 官稱하다.)(30)

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아시내'를 '아실내'라고도 했는데, 고어(古語)에 '실'은 골짜기를 뜻하는 말이기에 한자(漢字)로 '谷(곡)'으로 쓰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그러므로 阿谷川(아곡천)은 '아실내'의 이두적기이므로 阿谷川(아곡천)이나 鴉柴川(아시천)이나 '아시내'를 한자로 표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계(前溪)는 '앞내' 인데 고어(古語)에 '아시내' 라 하였다.

김정호의 대동지지(大東地志) 삼척(三陟) 산수(山水)에 보면, 아곡천(阿谷川)이 나오는데,

"아곡천은 삼척의 서쪽 50리에 있는데 그 근원은 두타산으로 죽현천에 합류한다." (西五十里源出頭陀山合于竹峴川)(31)

라고 했다. 같은 책 같은 곳 죽현천(竹峴川) 조에 보면,

"죽현천은 서쪽 60리에 있는데 정선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西六十里詳旌善)(32)

라고 하였으니. 같은 책 같은 곳 정선(旌善) 산수(山水) 조의 죽현천(竹峴川)을 보니,

"죽현천은 동쪽 50리에 있는데 그 근원은 창옥봉에서 흘러나오고 북쪽으로 흘러가서 여량역에 이르러 소래동천을 지나 서쪽으로 흘러가서 성석촌에 이르러 세천으로 들어간다." (東五十里源出蒼玉峯北流至餘粮驛過素來洞川西流至省石村入細川)(33)

라고 되어 있다. 이 기록을 보면, 아곡천(阿谷川)은 두타산(頭陀山) 아래에 있고 죽현천(竹峴川)은 창옥봉(蒼玉峯) 아래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창옥봉은 현재의 금대봉(金臺峯)이나 천의봉(매봉산) 쯤으로 보고 두타산(頭陀山)은 현재의 두타산이다. 그러니 대동지지(大東地志)도 김정호(金正浩)가 지었고 동여도(東輿圖)도 김정호(金正浩)가 그렸다고 하는데 두 기록이 서로 모순점이 있다면 지도(地圖) 자체가 관념적이라고 할 수 밖에 더 있겠는가.

(5) 죽현천(竹峴川)

죽현천(竹峴川)은 죽현원(竹峴院)이 있는 곳에서 발원하는 물줄기라서 그 이름을 따서 죽현천(竹峴川)이라고 했다. 태백문화원에서 발간한 〈사조동지명지〉에 보면,

"죽현천(竹峴川)은 바로 원동(院洞)에 있었던 죽현원(竹峴院)의 명칭을 따서 붙인 이름으로 되찾아야 할 하천의 이름이다." (34)

라고 하였다.

결국 죽현원(竹峴院)이 있던 원동(院洞)에서 흐르는 하천이 죽현천(竹峴川)이므로 두타산 밑에서 흐르는 하천은 아곡천(阿谷川) 내지 아시천(鴉柴川)이지 죽현천(竹峴川)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동여도(東輿圖)에서는 두타산(頭陀山) 아래에 죽현천(竹峴川)을 표기해 놓았으니 죽현천(竹峴川)의 위치가 잘못 되었음을 알 수 있다.

(6) 갈전산(葛田山)

갈전(葛田)은 죽현천(竹峴川)과 아곡천(阿谷川)이 합수한 다음 30리는 더 흘러가야 있는 마을이다. 그런데 동여도(東輿圖)를 보면 두타산에서 흘러나오는 아곡천(阿谷川) 위쪽인 사미창(四美倉) 부근에 표기하여 놓았다.

(7) 토산(兎山)

토산(兎山)은 갈전(葛田)에서 10리는 더 하류(下流)에 있는 마을이다. 역시나 사미창(四美倉) 부근에 표기하여 놓았다.

(8) 대전리(大田里)

대전리(大田里)는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역둔출장소(易屯出場所) 관할에 속한 마을로 역둔출장소 관할 7개리 가운데 대표적인 마을로서 밭이 넓고 커 한밭 또는 큰 밭이라 한 동내로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에 나오는 마을이다. 척주지 장생리(長生里) 조에 보면,

"대전 서남쪽 20리에 한이수(汗伊藪)가 있고 그 위에 용추(龍湫)가 있다." (大田西南二十里汗伊藪其上龍湫)(35)

라고 하여 한이수(한소리)와 대전리(大田里)는 불과 20리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데, 실제로도 한소리(汗沼里)와 대전리(大田里)는 2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이웃 동네로 이 마을에서 흐르는 물은 서류(西流)하여 강원도 정선군 동면으로 흘러가 정선 읍내 앞에서 조양강과 만난다. 그런데 동여도(東輿圖)에서는 북류(北流)하여 죽현천(竹峴川)에 합류하는 지점에 다가 표기하여 놓았으니 얼마나 방향과 산맥 표시가 잘못 되었는지 알 수 있다. 대전리(大田里)에서 고개 하나 넘어 죽현천

(竹峴川) 하류(下流)로 50리는 가야 갈전리(葛田里)가 나오는데, 더 상류(上流) 쪽에 갈전리(葛田里)와 토산리(兎山里)가 표기되어 있으니 얼마나 엉터리인가? 역둔출장소(易屯出場所) 관할 7개리(七個里)는 대전리(大田里)를 비롯하여 둔전리(屯田里), 역둔리(易屯里), 용연리(龍淵里), 어리(於里), 판문리(板門里), 한소리(汗沼里)로 이들 7개리의 하천(河川) 물은 서류(西流)하여 정선군(旌善郡) 동면(東面)으로 흘러간다.

(9) 용추(龍湫)

이 글에서 가장 문제가 된 지명(地名)으로 일부에서 한강(漢江)의 발원지로 추정하며 검룡소(儉龍沼)의 옛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곳이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검룡소(儉龍沼)와 용추(龍湫)는 다르다는 것이다.

옛날 지도(地圖)에 표기되는 지명(地名)들은 당시 향토지(鄕土誌)나 각종 문헌에 한번이라도 등장하는 이름이거나 현지 주민들에게 상당히 지명도(知名度)가 있어야 가능하였으리라 생각 된다.

지도(地圖) 제작자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명을 표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찬가지로 동여도(東輿圖)를 만든 사람도 위치는 틀릴 수 있어도 표기한 지명(地名)은 분명한 근거가 있는, 예컨대 각종 문헌이나 지지(地誌) 향토지(鄕土誌) 등에 나오는 지명을 표기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용추(龍湫)도 상당히 널리 알려진 명소(名所)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삼척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향토지 격인 척주지(陟州誌)에 용추(龍湫)가 나온다.

척주지(陟州誌)는 서기 1662년 조선 현종(顯宗) 3년에 당시 삼척도호부사(三陟都護府使)로 재직하던 허목(許穆)에 의해 저술되었다. 그 책의 장생리(長生里) 조에 보면,

"대전리 서남쪽 20리에 한이수(汗伊藪)가 있고 그 위에 용추(龍湫)가

있다. 냇물은 바위굴에서 나오는데 깊어서 바닥을 알 수 없다고 한다. 가물면 곧 기우제를 지낸다." (大田西南二十里汗伊藪其上龍湫川出嶌竇其深無底天旱則禱雨)(36)

라고 하며 용추(龍湫)가 가물 때 기우제를 올리는 장소임을 밝히고 있다.

한이수(汗伊藪)는 지금의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한소리(汗沼里)이다. 한소리는 사미창(四美倉)이 있던 상사미리(上四美里:上士美里)를 지나서 죽현원(竹峴院)이 있던 원동리(院洞里)를 지나 고개 하나를 넘어가야 닿을 수 있는 동네이다.

삼척시(三陟市)가 되기 전 삼척군(三陟郡) 시절 만든 삼척군지(三陟郡誌)의 읍면리지(邑面里誌) 하장면(下長面) 용연리(龍淵里) 조에 보면,

"마을 서북방에 龍湫(용추)가 있으므로 龍沼洞(용숫골)이라 일러오더니 이것이 龍淵(용연)이 되었다." (37)

라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책 같은 곳 한소리(汗沼里) 조에 보면,

"이 마을은 정선군 경계에 龍沼(용소)가 있어 한소(大沼)라 일러 왔는데, 許穆(허목)이 쓴 陟州誌(1662)에는 「汗伊藪」(한이수)라 기록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정비에 따라 汗沼里(한소리)로 하였다." (38)

이어서 용소(龍沼)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하니,

"龍沼는 매우 깊어 그 밑바닥을 헤아릴 수 없으며 가뭄이 들면 祈雨祭를 지낸다." (39)

라고 하였다.

과거 허목(許穆)이 지은 척주지(陟州誌)에는 한이수(汗伊藪)에 용추(龍湫)가 있다고 하였는데 근대에 발간된 책에서는 한이수(汗伊藪) 곧 한소리(汗沼里)의 이웃 마을인 용연리(龍淵里)에 용추(龍湫)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척주지(陟州誌)의 한이수(汗伊藪) 대

목의 글과 근대의 삼척군지(三陟郡誌) 속의 한소리(汗沼里)와 용연리(龍淵里) 대목의 글을 합친 것이 비슷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제 강점기 때인 서기 1916년에 심의승(沈宜昇)에 의해 발간된 삼척군지(三陟郡誌) 때부터 용연리와 한소리의 기록이 나오며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와 어긋나게 되지 않았나 한다. 허목 시절엔 용연리(龍淵里)라는 마을이 없었기에 척주지에 기록이 없고 한소리(汗沼里:汗伊藪)만 기록한 것이 아닌가 한다.

현실적으로 한소리(汗沼里)에서 흐르는 물은 정선군 동면으로 흘러가서 정선 읍내 앞에서 조양강과 만난다. 그러나 각종 고지도(古地圖)를 보면 대개가 한소리(汗沼里), 용연리(龍淵里) 또는 대전리(大田里)에서 흐르는 물은 북류(北流)하여 죽현천(竹峴川)에 유입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동여도(東輿圖)에 표기한 용추(龍湫)는 한소리(汗沼里:汗伊藪) 용추(龍湫)를 표기한 것이라고 추단한다.

태백산(太白山) 남쪽에 엉뚱한 용연(龍淵)을 표기하듯이 태백산(太白山) 북쪽에도 기록에만 의존한 채 엉뚱한 용추(龍湫)를 표기한 것이라고 본다. 물론 용추에서 흐르는 물줄기조차도 잘못 그려진 채 말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속담이 있다. 동여도(東輿圖)에 나오는 잘못된 표기 가운데 태백산 부근으로 좁혀 보아도 10여개의 오류(誤謬)가 보이는데, 지도 전체를 보면 표기오류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러니 동여도에 표기 되었다고 하여 다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동여도 역시 기존의 지도(地圖)나 지지(地誌) 등을 참고하고 짜깁기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기에 정밀함에는 한계가 있고 사람도 많이 살지 않는 첩첩산중의 강원도 산골을 일일이 답사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지도(古地圖)라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그리는 사람의 주관적 생각이 많이 이입된, 그림에 가까운 관념적 지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측량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 이만큼이라도 지도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를 둬야지, 모순 덩어리 지도를 신봉하고 그것을 사실인양 하면서 기초조사에 소홀하면 역사의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다.

6) 용추(龍湫)는 어디인가?

극히 일부에서 한강(漢江)의 발원지(發源地)라고 주장하는 동여도(東輿圖)에 표기된 용추(龍湫)의 실제 위치가 어디이며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우리나라 곳곳에 가보면 물이 고여 깊은 소(沼)를 이루면 용소(龍沼)니 용연(龍淵)이니 용추(龍湫)니 하는 곳이 많다. 강원도 태백시에만 용소(龍沼)로 불리는 곳이 무려 5개나 되고 용연(龍淵)이 하나 용담(龍潭)이 하나 있다.

태백시 주변으로 넓히면 용소(龍沼)는 수십 개가 되며 용추(龍湫)라 하는 곳도 10여개나 된다. 용추(龍湫)는 대개 폭포 아래의 깊은 소(沼)를 일컫는 말로 지방에 따라서는 폭포 자체를 용추(龍湫)라고 한다. 그러니 용추(龍湫)가 되려면 폭포 비슷한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가까운 동해시 무릉계(武陵溪)에 가면 용추폭포(龍湫瀑布)가 있는데, 바위 절벽 아래에 크게 한자(漢字)로 용추(龍湫)라고 써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문헌 가운데 용추(龍湫)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서기1662년 삼척도호부사(三陟都護府使)였던 허목(許穆)이 저술한 척주지(陟州誌)이다. 척주지 장생리(長生里) 조에 보면,

"대전리 서남쪽 20리에 한이수(汗伊藪)가 있고 그 위에 용추(龍湫)가 있다. 냇물은 바위굴에서 나오는데, 깊어서 바닥을 알 수 없다고 한다. 가물면 곧 기우제(祈雨祭)를 지낸다." (大田西南二十里汗伊藪其上龍湫

川出晷竇其深無底天旱則禱雨)(40)

라고 하여 하장면(下長面) 부근의 용추(龍湫)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다.

동여도(東輿圖)에서 표기한 용추(龍湫)의 위치가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일대와 강원도 태백시 북쪽 한강 수계 일대로 추정되는 곳이기에 이 일대의 기록으로는 척주지(陟州誌)가 최초인 것이다.

척주지(陟州誌)에는 용추(龍湫)가 한이수(汗伊藪)라는 마을에 있다고 하였으니 한이수(汗伊藪)가 어딘지 밝히면 될 것이다. 서기 1916년 일제 강점기 때 삼척군수(三陟郡守) 심의승(沈宜昇)에 의해 발간된 삼척군지(三陟郡誌)의 하장면(下長面) 한소리(汗沼里) 조에 보면,

"許穆,時에 汗伊藪라 記하얏고, 今에난 汗沼里로 官稱하니라.(又一說, 寒水里라 云)" (41)

라고 하여 오늘날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한소리(汗沼里)가 그 옛날 한이수(汗伊藪)였음을 밝히고 있다. 혹시나 하여 서기 1963년 발간된 최만희(崔晩熙)의 진주지(眞珠誌) 읍면리(邑面里) 조의 하장면(下長面) 한소리(汗沼里)에 보면,

"옛날에 한이수(汗伊藪)라고 불렀고, 또 한소(大沼)라 했고, 한수리(寒水里)라 하기도 했다. 병진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舊稱汗伊藪又大沼(舊誌)一云寒水里丙辰改今名)(42)

라고 하며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를 인용하여 한소리(汗沼里)의 옛 이름이 한이수(汗伊藪)였음을 밝히고 있다. 더욱 확실히 하기위해 서기 1988년 발간된 삼척군지(三陟郡誌)의 읍면리지(邑面里誌) 하장면(下長面) 한소리(汗沼里) 조에 보면,

"許穆이 쓴 陟州誌(1662)에는 「汗伊藪」라 기록하였고 1914년 행정구역 정비에 따라 汗沼里로 하였다." (43)

라고 하여 한소리(汗沼里)가 한이수(汗伊藪)였음을 확실히 하고 있다.

한이수(汗伊藪)가 나중에 한소리(汗沼里)로 변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기록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용추(龍湫)의 위치에 대해서는 허목(許穆)

만 한소리(汗沼里:汗伊藪)에 있다고 했고, 심의승(沈宜昇)이나 삼척군(三陟郡)에서는 용연리(龍淵里)에 용추(龍湫)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실 동여도가 제작된 뒤에 저술된 서책은 인용할 가치가 없지만 그래도 참고하여 살펴보겠다.

서기1916년에 발간된 심의승(沈宜昇)의 삼척군지(三陟郡誌) 하장면(下長面) 용연리(龍淵里) 조에 보면,

"本里 西北方에 龍湫 有하얏슴으로써 龍沼洞(용소골)이라 稱하더니 此가 龍淵으로 되다." (44)

라고 하여 용연리(龍淵里)의 용소(龍沼)가 용추(龍湫)라고 하였다.

처음 용추(龍湫)를 언급한 허목(許穆)은 용추(龍湫)가 한이수(汗伊藪) 곧 한소리(汗沼里)에 있다고 했다. 그런대 약 250년 뒤에 편찬된 심의승(沈宜昇)의 삼척군지(三陟郡誌)에 의하면 용추(龍湫)는 한소리(汗沼里)의 이웃 동내인 용연리(龍淵里)에 있다고 했다.

약 300년 뒤에 편찬된 진주지(眞珠誌)에는 언급이 없고 326년 뒤에 나온 삼척군(三陟郡)에서 편찬한 삼척군지(三陟郡誌)에는 심의승(沈宜昇)의 설(說)을 좇아 용추(龍湫)가 용연리(龍淵里)에 있다고 하였다.

왜 이러한 일이 생겼을까 하고 여러 이유를 조사하면서, 한 때 한소리(汗沼里)와 판문리(板門里), 어리(於里), 용연리(龍淵里) 일대에 사람이 살지 않아 공촌(空村)이 된 적이 있어서 원주민이 모두 떠나고 수 십 년이 지나 겨우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으니 마을의 역사가 단절된 시기가 있었다. 그 뒤 마을 사람들이 보니 한소리(汗沼里)에도 바위굴 속에 시퍼런 물이 고여 있는 소(沼)가 있고, 용연리(龍淵里)에도 바위굴 속에 시퍼런 물이 고여 있는 소(沼)가 있고 그 물이 굴 밖으로 쏟아져 내리며 폭포를 이루기에 각자 용소(龍沼)라고 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서기 1662년에 허목(許穆)이 지은 척주지(陟州誌) 가운데 척주지하(陟州誌下)에 보면,

"장생리에 사는 노인이 전하는 말에, 장생리는 한강(大江)의 가장 먼 곳에 있어 광해군 시절에 각종 궁궐 짓는 재목을 벌재(伐材)하는 부역(負役)은 이곳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징포(徵布)를 무수히 하므로 인해 견디지 못하고 도망하는 사람이 이어졌고 울탄내외촌 일대는 사람이 살지 않아 비어 있는데, 지금까지 40여년이나 되어도 아직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쓸쓸한 마을이라고 했다." (長生父老傳言大江最遠光海時諸營建伐材之役不及於此然收布無數流亡相接蔚呑內外村落空虛至今四十餘年烟戶蕭條云)(45)

라고 하였으니, 울탄내외촌이 한소리 용연리 일대이므로 이곳에 수 십년간 사람이 살지 않았으니 지역의 역사인들 제대로 전해졌겠는 가 의문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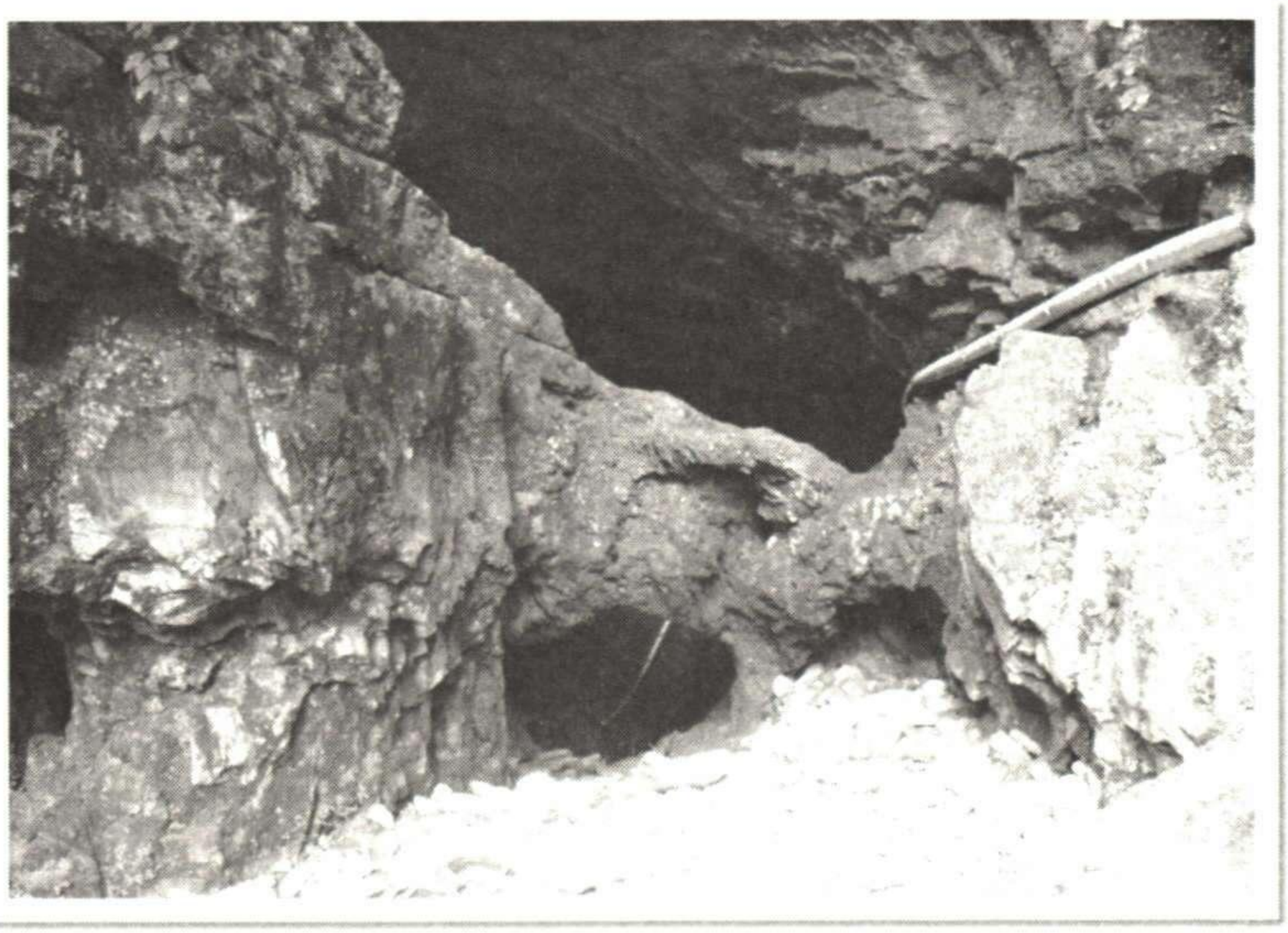
후대에 와서 사람들이 살고 자료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소리 보다는 용연리 쪽 주장이 더 강하고 타당성이 있어 심의승(沈宜昇)은 용연리(龍淵里)의 용소(龍沼)를 용추(龍湫)로 비정하지 않았겠는가 하고 유추한다.

(1) 한소리(汗沼里) 용소(龍沼)

한소리(汗沼里) 용소(龍沼)는 폭포를 이루지 않고 바위굴에서 물이 솟아나오는 형태인데 말이 한소리 용소지, 행정구역으로는 강원도 정선군 백전리(柏田里)에 있다. 이것은 과거의 행정구역은 같은 마을이었으나 현재는 마을 한가운데로 흐르는 하천을 경계로 동쪽은 강원도 삼척시이고 서쪽은 강원도 정선군이다. 용소는 하천 건너 서쪽 정선군 땅 대지산(大枝山) 아래에 있으며 어귀는 거대한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암벽 아래에 세 개의 굴이 있는데 가장 아래쪽 굴로 장마 때 물이 넘쳐흘러 나온다. 평소에는 물이 넘치지 않고 아래쪽 굴속을 들여다보면 시퍼렇게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동굴 바깥쪽 약100m 아래쪽 하천 한가운데에서 물이 솟는 곳이 있는데 아마도 용소의 물이 이곳으로 솟아나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가물 때 개의 머

리를 잘라서 용소에 던지면 3일 안에 비가 내려 개머리를 토해 낸다고 한다. 한소리(汗沼里) 용소(龍沼)는 너무나 유명하여 인근 마을뿐만 아니라 정선군 지방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명소(名所)이다.

한소리 용소



(2) 용연리(龍淵里) 용소(龍沼)

용연리(龍淵里) 용소(龍沼)는 동굴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며 폭포를 이루기에 형태상으로 볼 때는 용연리의 용소(龍沼)가 용추(龍湫)에 가깝다고 느껴진다. 용연리의 용소는 산 중턱에 있으며 물이 흘러나오는 동굴 속을 들어가면 동굴 가득 물이 차 있으며 그 물이 흘러넘쳐 약2m 정도의 폭포를 이룬다. 현재의 용소는 숫용소라고 하고 반대편 너래골에 암용소가 있다. 숫용소는 물이 쏟아지며 폭포를 이루는데 암용소는 독처럼 생긴 바위 홈에 물이 고여 있는 형태이다. 용연리의 용소도 가물 때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용연리 용소

(3) 역둔출장소(易屯出場所) 관내 용소(龍沼)들

역둔출장소 관내 용소(龍沼)들을 거론하는 것은, 역둔출장소 관할 7개리의 하천 물은 여느 하장면 지역의 하천 물이 북류(北流)하여 죽현천(竹峴川)에 유입되는데 반해, 서류(西流)하여 정선군 동면으로 흘러가는 같은 유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은 석회암(石灰巖) 지대이기에 석회동굴(石灰洞窟)이 많고 물이 흘러나오거나 솟는 곳이 많아 용소(龍沼)라고 불리는 곳 또한 많기에 함께 다룬다.

참고로 역둔출장소(易屯出場所)는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에서 멀리 떨어져 큰 산맥을 넘어야 면사무소로 갈 수 있기에 주민 편의를 위해 서기1964년 2월 1일 삼척군 조례 제72호에 의거 설치된 출장소로 대전리(大田里), 역둔리(易屯里), 둔전리(屯田里), 용연리(龍淵里), 어리(於里), 판문리(板門里), 한소리(汗沼里) 등 7개리를 관할하고 있다. 이 글에 등장하는 용연리(龍淵里)와 한소리(汗沼里)가 역둔출장소 관할이다.

앞에서 말한 한소리(汗沼里) 용소(龍沼), 용연리(龍淵里) 용소(龍沼) 말고도 용연리(龍淵里)에 12개의 용소(龍沼)가 있다고 하며 둔전리(屯田里)에도 기우제를 지내던 용소(龍沼)가 있었으나 지금은 메워지고 한태골(汗太谷)에는 물이 나오는 석굴(石窟)이 있는데 산멕이하는 제당(祭堂)이라 한다. 어리(於里)와 대전리에도 구룡소(九龍沼)라는 곳이 있다. 용연리(龍淵里)에서 산하나 넘어 광동리(廣洞里)에 용소(龍沼)가 있고 추동리(楸洞里)에도 물이 흘러나오는 석굴(石窟)이 있으며 판문리(板門里)에도 바위굴에서 엄청난 물이 솟아나와 마을 주민들이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고, 피골에도 물이 흘러나오는 용굴(龍窟)이라 부르는 피골굴이 있다.

용연리 작은 용소

(4) 고지도(古地圖)에 나타나는 용추(龍湫)

동여도(東輿圖)에서는 한소리(汗沼里)나 용연리(龍淵里)나 대전리(大田里)에서 흐르는 물이 죽현천(竹峴川)으로 유입되어 북류(北流)하여 임계(臨溪)로 흘러가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역둔출장소(易屯出場所) 관할 7개리의 하천 물은 오두재에서 대지산(大枝山)으로 이어지는 말굽형의 산맥을 넘지 못하고 모두 서류(西流)하여 강원도 정선군 동면으로 흘러가서 정선 읍내 앞에서 조양강과 합류한다. 방향이 완전히 틀리다. 그러므로 김정호류(金正浩流)의 지도(地圖)들은 모두가 한소리(汗沼里), 용연리(龍淵里), 대전리(大田里) 등 역둔출장소 관할 7개리의 삼척 땅 물은 정선읍내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북류(北流)하여 죽현천(竹峴川)에 합류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대동여지전도(大東輿地全圖)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청구도(靑丘圖)도 마찬가지다. 동여도(東輿圖)도 김정호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김정호는 용연리, 한소리, 대전리 일대를 가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삼척 땅이니 그 지방 하천의 물은 당연히 삼척 땅으로 흘러간다고 믿고 관념적으로 그린 지도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참고로 말하자면 정상기류(鄭尙驥流)의 지도(地圖)들도 비슷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지역의 행정구역은 이미 서기1662년 허목(許穆)이 쓴 척주지(陟州誌)에 등장하니 200여년 뒤에 그려진 김정호류(金正浩流)의 지도(地圖)들에 위치나 산맥이 잘못 그려졌다는 것은 무슨 착각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지도(古地圖)가 관념적이긴 해도 그래도 그 가운데에는 용추(龍湫)에서 흐르는 물이 정확히 정선 읍내로 흐른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린 지도(地圖)가 있다.

18세기 조선 영조(英祖) 연간(年間)인 서기1724~1776년경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미상의 지도 해동지도(海東地圖:古大4709-

해동지도(古大4709-4)
해동지도 가운데 정선군 지도이다
용추의 물이 정확히 서류하여 정선읍내 앞에서 조양강과 만나게 그려졌다.
김정호의 동여도 보다 90~100년 앞서 그려진 지도이다

광여도(廣輿圖)(古4790-58)
광여도 가운데 강원도 정선군 지도,해동지도와 그림은 같으나 용추(龍湫)를 신추(薪湫)로 표기하고 있다.

여지도(輿地圖)(古4709-68)
여지도 가운데 강원도 정선군 지도 해동지도와 도안은 같으나 용추(龍湫)에 대해서는 광여도를 따라 신추(薪湫)로 표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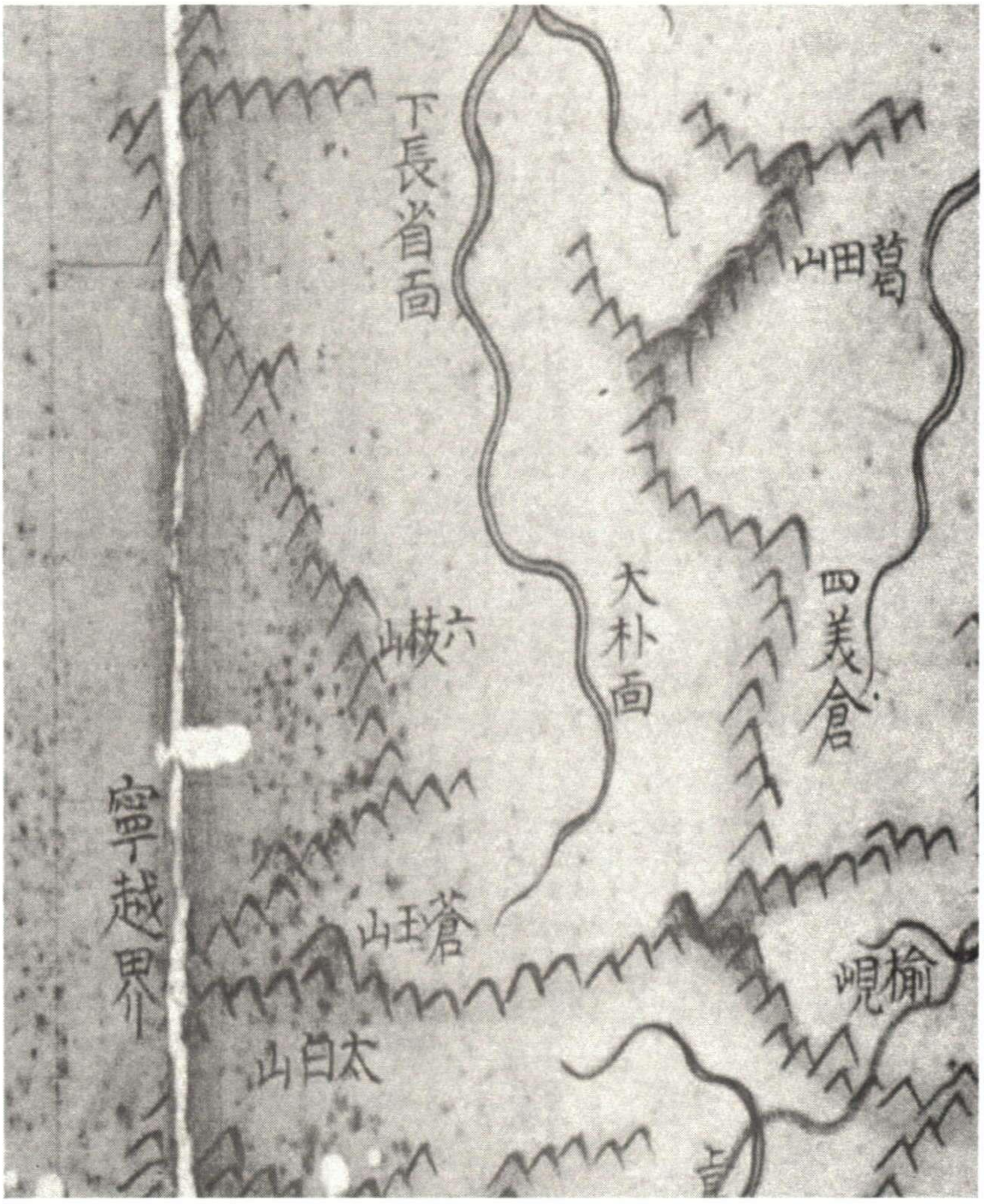
지승(地乘)(奎15423)
지승 가운데 강원도 정선군 지도, 전체적으로 도안은 해동지도와 같으나 용추(龍湫)에는 아무런 표기가 없다.

41-v.1-8)의 제3책 관동전도(關東全圖) 가운데 정선군(旌善郡) 지도를 보면 용추(龍湫)가 나오는데, 정확히 서류(西流)하여 정선 읍내 앞에서 조양강과 합류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 현대의 시각과 비슷하다. 다만 용추(龍湫)를 좀 과장되게 그려 상징성을 부여한 것 같다. 해동지도(海東地圖)는 동여도(東輿圖) 보다 적어도 90~100년 정도 앞서서 그려진 지도인데도 용추(龍湫)에서 흐르는 물이 정확히 서류하여 정선 읍내로 흘러가는 것을 그려 놓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김정호의 위대함이 빛을 잃는 대목이다. 이미 용추(龍湫)는 유명한 명소였고 각종 지지(地誌)나 지도(地圖)에 기록되거나 그려지는 중요한 곳이었던 것이다.

해동지도(海東地圖) 이후에 그려진 것으로 알려진 광여도(廣輿圖:古4790-58)는 지도의 형태는 해동지도와 같으나 용추(龍湫)를 신추(新湫)라고 표시한 점이 다르고, 여지도(輿地圖:古4709-68) 또한 지도의 형태는 해동지도와 같으나 용추(龍湫)를 광여도와 같이 신추(新湫)라고 표기하였으며, 지승(地乘:奎15423)이라는 지도는 형태는 해동지도와 같으나 용추 부분에 이름이 없다. 참고로 100여년 뒤에 나온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신추(新湫)를 신추(神湫)로 기록하고 있다.

용추(龍湫)를 신추(新湫)라고 표기한 것을 유추하자면, 지도가 닳거나 보존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혹은 좀이 먹어 龍(용)자가 닳아 新(신)자로 보이므로 해서 오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한다. 왜냐하면, 각종 고지도(古地圖)를 보면 글자가 마멸되어선지 당치도 않는 표기가 보이기 때문이다.

여지도(輿地圖)(古4709-68)
여지도 중에서 강원도 삼척부 지도인데 황지(黃池)를 석지(昔池)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지도(奎16030)
조선지도 가운데 강원도 삼척지도이다.
대지산(大枝山)을 육지산(六枝山)으로 표기하고 있다.

용추(龍湫)를 신추(新湫)로 표기한 여지도(輿地圖:古4709-68)를 보면, 낙동강의 발원지로 알려진 황지(黃池)를 석지(昔池)로 표기하였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黃(황)자가 마멸되어 윗부분만 남아 昔(석)자로 보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조선지도(朝鮮地圖:奎16030)에 보면,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한소리 용추(龍湫) 뒷산인 대지산(大枝山)을 육지산(六枝山)이라고 표기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청구도(靑丘圖:古4709-21)에도 나타난다. 이는 大(대)자가 마멸되면 六(육)자로 보일수도 있기에 하는 말이다.

용추(龍湫)가 어디인가 하고 여러 문헌과 현지조사와 고지도(古地圖) 등을 검토해본 결과 김정호류(金正浩流)의 지도, 특히 동여도(東輿圖)에서 용추(龍湫)의 위치가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정작 동여도(東輿圖) 보다 90~100여년 앞서 그린 해동지도(海東地圖)에는 용추(龍湫)의 위치가 정확하게 그려진 것을 확인하였다.

앞에서 말했듯이 지도(地圖)를 제작하던 가 지지(地誌)를 만들 때는 이미 지방에서 발간된 서책(書冊)이나 조사하여 올린 자료를 참고하여 만드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므로 모든 고지도(古地圖)에 그려지거나 표기되는 지명(地名)은 기존의 문헌이나 지역에서 발간된 지지(地誌) 등을 참고하거나 지역 사람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는 것이라 본다. 여기에서 확실한 것은 용추(龍湫)는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한소리(汗沼里)나 용연리(龍淵里)의 용소(龍沼)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고, 동여도(東輿圖)의 표기가 잘못되었음을 다른 고지도(古地圖)가 밝혀주고 있다. 또한 용추(龍湫)와 검룡소(儉龍沼)는 위치와 의미가 다른 별개(別個)의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7) 검룡소(儉龍沼)는 새로운 발견이다.

서기 1980년대 초에 강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연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이형석(李泂石)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한강의 가장 먼 물줄기가 강원도 태백시(太白市) 창죽동(蒼竹洞)이라고 주장하며 창죽동 금대봉골 안쪽, 금대봉(金臺峯)에서 대덕산(大德山)으로 가는 산능선 아래에서 샘을 하나 발견하고 '고목나무샘' 이라 명명하고선 한강(漢江)의 발원샘이라고 언론에 소개 하였다.

그 뒤 한 동안 '고목나무샘' 이 한강의 발원지로 인식되어 각종 매스컴에 소개되고 뜻있는 사람들이 찾아오곤 했다. 그가 서울 사는 사람이기에 수도권에서는 제법 알려졌지만 정작 태백 사람들은 몰랐고 몇 년 지나서야 겨우 알게 되었다.

뜻있는 태백 사람들 몇몇이 '고목나무샘' 을 찾아낸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였다. 이형석씨는 지역 사람들을 못마땅하다고 여겼는지 발원지에 관한한 지역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수도권의 언론들만 상대해서 언론 보도하니 태백 사람들은 한참 뒤에 알게 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그리고 지역 사람들을 배제하다보니 지명(地名)의 오류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한강의 발원지가 있는 산이 금대봉인데, 그는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두문동의 대성국민학교 뒤쪽에 있는 산이라고 '금대봉(金臺峯)' 을 '대성산(大成山)' 이라고 임의 명명한 사실이 있고, 필자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서도 한동안 사용한 바 있다. 그리고 금대봉골을 '움추나무골' 이라고 하는 등 오류가 있었고, 특히 그가 낙동강의 발원샘으로 명명한 '너덜샘' 도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서덜' 이라하지 '너덜' 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물론 '너덜샘' 위쪽에서 새로운 샘을 필자가 발견함으로서 낙동강 발원샘의 지위는 사라졌지만, 이런 것이 지역민과의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공명심에선지 독자 행동이 낳는 결과이다. 이러한 현상은 용추(龍湫)를 검룡소(儉龍沼)라고 하는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마땅히 경계해야 할 덕목이다.

검룡소 준설 되기전 사진 I

검룡소 준설 되기전 사진 II

'고목나무샘' 을 찾아보고 이형석(李泂石)씨를 만나 토론 하면서 발원지에 대한 의구심과 견해 차이가 생겨, 지역민으로서 자존심 같은 것이 발동해 산속을 찾아 헤맨 끝에 발견한 것이 '제당굼샘' 이고 '검룡소' 이다.

〈태백문화〉 제17집 속에 김강산(金剛山)의 '이제는 말한다.' 에는 검룡소의 발견에 대해 상세히 밝혀놓은 것이 있으니,

"내가 검룡소를 발견한 것은 단군기원 4317년(서기1984년) 6월 어느 날이었다." (46)

라고 하며 발견한 때를 밝히고 있다. 이어서,

"크고 작은 돌이 쌓여 있는 돌서덜에서 엄청난 물이 솟아 나오는데 그 아래쪽에는 석회암반이 깊게 파여 용트림하듯 한데 그리로 물이 흘러 와폭(臥瀑)을 이루는 것이었으니, 간밤의 꿈이 연상되는 기이한 형상이었다. 물이 솟는 돌서덜에는 이끼와 물풀이 자라고 크고 작은 돌덩이가 어지럽게 박혀 있었고 굵은 나무가 박혀 썩어가고 있었다. 장차 검룡소가 될 곳과 처음 만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47)

라고 하면서 처음 발견 당시의 정황과 준설되기 전의 메워진 상태를 비교적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처음 검룡소에는 이름이 없었다는 것도 밝히고 있는데,

"그곳에서 내려와 마을사람들에게 물이 솟아나오는 곳의 땅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으나 마을사람들은 말하길 그곳에는 이름이 없다고 했고, 그냥 물이 나오니 물구덩이가 아니겠냐고 했다." (48)

라고 하면서 지명이 없었음을 마을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밝히고 있다. 이어서,

"그러면서 말하길 일제시대 그곳에 물이 솟아나오는 물구덩이가 있었는데 일본사람들이 금대봉의 원시림을 베어가기 위해 그곳 물구덩이에 돌과 나무를 넣어 메우고 그 위로 산판길(임도)을 닦았다고 했다. 일본사람들이 물러가고 한국동란 뒤에도 산판 트럭들이 이 길을 통해 금대

봉의 원시림을 실어 날랐다. 그 후 이 길은 차량이 다니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나무가 자라고 토사가 밀려와 쌓여 그 밑으로 겨우 물이 흐르는 형상이 되었던 것이 그 당시 모습이었다." (49)

라고 하면서 물구덩이가 메워지게 된 내력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김강산은 검룡소가 메워진 뒤 준설하게 되는 과정의 당위성을 부여하고자 전설(傳說)을 만들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모델이 바로 검룡소(儉龍沼)에서 산하나 넘으면 태백시 화전동에 있는 '굴거랑' 전설이었다. 〈태백의 지명유래〉 화전동(禾田洞) 조에 보면 굴거랑이 나오는데,

"...(전략) 옛날엔 굴거랑 안쪽 물이 나오는 부분에 깊은 굴이 있고 그

소지올리는 모습

굴 앞에 깊은 소(沼)가 있었는데 마을의 소가 물을 마시다가 못 속에 있는 이무기에게 잡혀 먹혔다. 마을사람들이 가보니 길다란 소고삐만 물가에 있었다. 그 후 마을사람들이 못과 굴을 메워버렸다.(후략)..." (50)

라고 하였으니, 산하나 너머에 있는 화전동(禾田洞)의 굴거랑 전설과

준설

검룡소 전설이 유사한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김강산(金剛山)에 의해 발견되고 작명(作名)되어진 검룡소(儉龍沼)는 새로운 발견이지 동여도(東輿圖)에 표기된 용추(龍湫)가 아니다.

다시 〈태백문화〉 제17집 속의 김강산(金剛山)의 '이제는 말한다' 를 보자,

"그 물구덩이가 있는 산이 금대봉(金臺峯)이고 나의 성(姓)이 김(金)가이기에 금(金)자를 생각하고 그 물구덩이에서 솟아나온 물이 용트림하듯 와폭을 이루며 흘러가기에 용(龍)자를 생각하여 금룡소(金龍沼)라고 이름을 짓게 된다. 한강 발원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창죽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당시 창죽마을의 이해석(李海石) 통장을 통해 마을사람들을 모아놓고(이 시기에 김강산은 태백의 민속놀이인 '갈풀썰이' 를 발굴하여 창죽사람들을 동원하여 지도를 하고 있었다.) 내가 꾼 꿈이야기를 하며 그 물구덩이를 이제는 금룡소(金龍沼)라고 불러줄 것과 그 금룡소가 한

강의 발원지라는 사실과 앞으로 이 마을이 금룡소 때문에 크게 발전할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다...(중략)... 가만히 생각해보니 금룡소는 발음이 되서 노인들에게는 발음이 쉽지 않아 금룡소를 검룡소로 부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경상도 사람들이 경제를 갱제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나는 금룡소를 고집할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검룡소도 괜찮다는 생각을...(중략)... 왕검(王儉) 할아버지가 우리겨레의 시조(始祖)이시니 우리의 뿌리가 되고 금룡소(金龍沼)가 한강의 시원(始源)으로 한강의 뿌리가 되니 발음이 어려운 금룡소(金龍沼) 보다는 왕검(王儉) 할아버지의 검(儉)을 따서 검룡소(儉龍沼)라고 부르는게 발음도 부드럽고 또한 검이라는 말이 고어(古語)에 신(神)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여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처음 금룡소(金龍沼)라고 부르던 이름을 이때에 이르러 검룡소(儉龍沼)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어물쩍 바꿔 부르게 된 것이다." (51)

라고 하며 검룡소(儉龍沼)를 처음엔 금룡소(金龍沼)로 작명 했다가 나중에 검룡소(儉龍沼)로 바뀌게 된 내력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그리고 묻혀있던 검룡소(儉龍沼)를 준설(浚渫)하는 과정도 상세히 밝혔는데,

"당시 준설에는 박명순씨, 이해담씨 3형제, 또 이름이 기억나지 않은 몇 사람이 참여했는데 내가 하는 일이 황당하다고 여겼는지 반신반의하며 작업에 임했다. 나는 하얀 한복으로 갈아입고 먼저 용신에게 고사를 지냈으며 곡괭이, 괭이, 삽을 준비해 삽에 줄을 연결시켜 가래로 만들어서 검룡소의 돌과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변변찮은 일당을 주기에 내가 직접 물에 들어가 작업을 독려하며 자부심을 일깨우길 1주일, 돌무더기였던 검룡소가 드디어 웅장하고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52)

라고 하면서 검룡소(儉龍沼)를 준설(浚渫)할 때의 일과 주민들과 함께 작업하던 과정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강원대학교 전상호(全相浩) 교수의 '검룡소의 명승지정과 한강 발원

검룡소

지 설정 타당성 검토' 라는 논문의 조사내용 가운데 '⑲강원일보' 대목을 보면,

"1986년 4월 16일, 김강산은 금대봉 기슭의 한 골짜기에서 용출량이 많아 연중 물이 흐르고 창죽천에 직접 흘러드는 한 소(沼)를 찾아 이의 이름을 검룡소로 명명하고 이를 한강의 발원지로 발표하였다. 또한 고목나무샘 위쪽 100m쯤에 무명샘이 발견됐으나 옹달샘 정도로 아래쪽으로 물이 흐르지 않고 있었다는 기사가 있다. 1987년 1월 25일, 김강산은 고목나무샘 위쪽의 200m지점에 있는 제당 옆의 샘을 한강의 발원샘으로 제안하면서 이름을 제당굼샘으로 지었다." (53)

라고 하면서 신문 기사 내용을 조사한 바를 기록하고 있다.

검룡소(儉龍沼)를 발견하고 명명하고 준설(浚渫)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거기에 대한 자료와 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동여도(東輿圖)에 표기된 용추(龍湫)를 검룡소(儉龍沼)라고 주장하는 예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논문이라는 형식을 빌려 발표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데 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는 각종 문헌의 내용을 잘못 적용 해석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편견이라고 본다.

허목(許穆)의 〈척주지(陟州誌)〉, 노사신(盧思愼)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김정호(金正浩)의 〈대동지지(大東地志)〉, 심의승(沈宜昇)의 〈삼척군지(三陟郡誌)〉, 김정경(金鼎卿)의 〈삼척 향토지〉, 최만희(崔晩熙)의 〈진주지(眞珠誌)〉. 삼척군(三陟郡)의 〈삼척군지(三陟郡誌)〉. 〈삼척군 지명유래지〉, 김강산(金剛山)의 〈태백의 지명유래〉, 〈사조동 지명지〉, 등 삼척시(三陟市)와 태백시(太白市)에 관련된 그 어떤 문헌에도 용추(龍湫)가 검룡소(儉龍沼)라는 기록은 없다. 아울러 검룡소(儉龍沼)라는 지명이 나오지도 않는다. 그리고 검룡소가 있는 창죽마을 부근에는 용추(龍湫)라는 지명이 아예 없다. 하기야 서기 1984년에 새로이 발견되고 작명된 지명(地名)이 옛 문헌에 나올 리가 있겠는가?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5만분의1 지형도(도엽변호NJ52-10-26태백)를 보면, 금대봉 아래에 있는 검룡소에 '한강 발원지' 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것으로 검룡소(儉龍沼)는 국가가 인정한 공식적인 한강(漢江)의 발원지(發源地)이며, 서기2010년 국가지정 명승 제73호로 지정까지 되었으니 검룡소는 명실상부한 국가적 명소가 된 것이다.

검룡소(儉龍沼)는 현대적 지도(地圖)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역사적 기록에만 의존하던 강의 발원지에 대한 인식이, 과학적 척도(尺度)의 새로운 강의 발원지에 대한 인식에서 발견된 현대인의 쾌거이다. 그러므로 검룡소(儉龍沼)는 과거의 유산이 아닌 현대의 새로운 발견이자 자산이다.

국립지리원 발행

1:50000지형도 도엽번호 NJ52-10-26태백 . 도엽번호 NJ52-10-19임계

3. 결 론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儉龍沼)를 발견한 사람은 김강산(金剛山)이며 그에 의해 검룡소(儉龍沼)라고 명명되어지고 묻혀있던 물구덩이가 준설(浚渫)되면서 지금처럼 신비한 명소가 되었고 국가지정 명승지 제73호가 되는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는 과정을 알게 되었다.

또한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동여도(東輿圖)에 표기된 용추(龍湫)를 검룡소(儉龍沼)로 보는 견해가 잘못되었음을 밝히는데 노력하였다. 그리고 잘못된 견해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발간되는 책자에 실어 널리 배포하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한강 발원지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었는데,(54) 어찌하여 조금만 주의(注意)하면 진실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감행하였는지 그것을 요약하면,

1), 특정인의 검룡소(儉龍沼) 발견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2). 갈수록 검룡소(儉龍沼)의 명성과 가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역사(歷史)는일천하다,

3), 검룡소(儉龍沼)의 있지도 않은 역사를 조작하기 위한 견강부회(牽强附會)의 결과이다.

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배웠다는 사람은 사회의 양심이고 지성이며 인격의 모범이요 인간의 도덕성을 내면에 간직한 채 부와 귀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보다 더 높은 가치를 향하여 상승하고자 하는 존재일 것이다. 얄팍한 앎을 스스로 질타하며 세상 무서운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배운 자 일 것이다. 자연 지리적 인식을 말하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통설적 역사 인식을 버리지 못하는 한 배우고자 하는 자의 자질은 절대 현대적 지리학으로 진일보하지 못할 것이다.

어느 시대이건 선구자(先驅者)는 있었고 그 앞서가던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풍토가 이 땅에 또한 있어 왔다.

처음 발견 당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가며 사비로 길을 닦고 준설하며 검룡소라고 명명하여 한강 발원지로 대내외에 알리기를 거듭한 지 27여 년, 이제 그 결실이 되어 명실상부한 한강의 발원지로 공인되고 아울러 국가지정 명승지 제 73호로 지정까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혼란을 야기하는 일들이 생겨나니 한심한 생각이 든다.

이제라도 검룡소(儉龍沼)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알리고 역사를 왜곡하려 하지 말기를 바라는 바이다.

주(註)

(1) 洪性益. 문화역사지리 제22권 제1호. 漢江 發源地의 역사적 인식에 대한 再檢討: 太白山 龍湫를 중심으로. 2010

(2) 朝鮮王朝實錄. 世宗 16年 5月 24日

(3) 朝鮮王朝實錄. 文宗 1年 12月 28日

(4) 朝鮮王朝實錄. 世宗 6年 12月 29日

(5) 朝鮮王朝實錄. 世祖 6年 8月 4日

(6) 朝鮮王朝實錄. 世祖 12年 11月 4日

(7) 朝鮮王朝實錄. 睿宗 1年 9月 18日

(8) 朝鮮王朝實錄. 中宗 31년 5月 10日

(9) 朝鮮王朝實錄. 宣祖 25年 5月 25日

(10) 朝鮮王朝實錄. 肅宗 3年 5月 7日

(11) 朝鮮王朝實錄. 肅宗 39年 6月 2日

(12) 劉煦 舊唐書 列傳 第一百四十九上 高麗 中華書局 1995

(13) 朝鮮王朝實錄. 燕山君 3年 11月 15日

(14) 朝鮮王朝實錄. 中宗 8年 2月 4日

(15) 朝鮮王朝實錄. 英祖 33年 8月 9日

(16) 李相泰. 한국 고지도 발달사 혜안 1999 (재인용)

(17) 申櫶. 大東方輿圖序. 琴堂初稿(奎古3428-339)

(18) 崔漢綺. 靑邱圖題 靑邱圖(乾)

(19) 劉在建. 里鄕見聞錄 金古山正浩

(20) 李相泰. 한국 고지도 발달사 혜안 1999

(21) 李相泰. 한국 고지도 바달사 혜안 1999

(22) 金正浩. 大東地志 三陟 山水 亞細亞文化社 1976

(23) 盧思愼. 東國輿地勝覽 卷二十五 奉化縣 山川 明文堂 1981

(24) 金正浩. 大東地志 奉化 山水 亞細亞文化社 1976

(25) 慶尙北道奉化郡邑誌 山川

(26) 盧思愼. 東國輿地勝覽 奉化縣 山川 明文堂 1981

(27) 金正浩. 大東地志 奉化 山水 亞細亞文化社 1976

(28) 盧思愼. 東國輿地勝覽 奉化縣 古跡 明文堂 1981

(29) 盧思愼. 東國輿地勝覽 奉化縣 山川 明文堂 1999

(30) 沈宜昇. 三陟郡誌 下長面 番川里 1916

(31) 金正浩. 大東地志 三陟 山水 亞細亞文化社 1976

(32) 金正浩. 大東地志 三陟 山水 亞細亞文化社 1976

(33) 金正浩. 大東地志 旌善 山水 亞細亞文化社 1976

(34) 金剛山. 士助洞地名誌 院洞 太白文化院 2007

(35) 許穆. 陟州誌 長生里 三陟鄕土文化硏究會 1991

(36) 許穆. 陟州誌 長生里 三陟鄕土文化硏究會 1991

(37) 三陟郡. 三陟郡誌 邑面里地 下長面 1988

(38) 三陟郡. 三陟郡誌 邑面里誌 下長面 1988

(39) 三陟군. 三陟軍誌 邑面里誌 下長面 1988

(40) 許穆 陟州誌 長生里 三陟鄕土文化硏究會 1991

(41) 沈宜昇. 三陟郡誌 下長面 汗沼里 1916

(42) 崔晩熙 眞珠誌 邑面里誌 下長面 1963

(43) 三陟郡 三陟郡誌 邑面里誌 下長面 汗沼里 1988
(44) 沈宜昇 三陟郡誌 下長面 龍淵里 1916
(45) 許穆 陟州誌 長生里 三陟鄕土文化研究會 1991
(46) 金剛山 太白文化 第17輯 이제는 말한다 太白文化院 2003
(47) 金剛山 太白文化 第17輯 이제는 말한다 太白文化院 2003
(48) 金剛山 太白文化 第17輯 이제는 말한다 太白文化院 2003
(49) 金剛山 太白文化 第17輯 이제는 말한다 太白文化院 2003
(50) 金剛山 太白의 地名由來 太白文化院 1989
(51) 金剛山 太白文化 第17輯 이제는 말한다 太白文化院 2003
(52) 金剛山 太白文化 第17輯 이제는 말한다 太白文化院 2003
(53) 全相浩 太白文化 第23輯 검룡소의 명승지정과 한강발원지 설정 타당성 검토 2010
(54) 김도현. 고문헌과 고지도로 만나는 태백산 문화권 3대 강 발원지. 태백시. 2010

프로필

김 강 산

경력 – 국편 태백시사료조사위원
독립기념관 자료조사위원
강원도문화재 전문위원
태백산천제위원회 위원장
태백향토사연구소장

저서 – 호식장
태백의지명유래
우리고향태백
백경문/영산태백
태백시지 공저
태백의제당

삼수령를 통해본 태백문화의 정체성

이 상 출
태백효문화센터 원장

1. 정체성(正體性)

드디어 세상은 인터넷세상이 되었다. 인터넷세상이란 사이버상 즉, 가상공간에서 전지구촌 구석구석을 언제 어느 곳이라도 접근하여 실시간을 통해 실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을 보고 듣고 느끼고 감상하며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가장 쉽고도 빠르고 값싸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전에는 결코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세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만끽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먼저 체험하여 수집한 정보를 공유해야하고 이러한 경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나타내는 아이디(ID, Identity)와 자신의 정보나 사생활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비밀번호(Password)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아이디가 곧 정체성이다. 정체성이 없다면 자신의 존재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결국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도 사는 것같이 느끼지 못할 것이다

물론 실제 겪어보는 것과는 사뭇 다른 점도 많겠지만 가상과 현실사이의 갭을 줄여가며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나타내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체성은 자신의 존재가치이다. 이를테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한민족으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다.

2. 태백문화의 정체성

문화(文化)라 함은 사전적 의미로서 우선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자 사회 구성원에 의해 습득, 공유, 전달이 되는 행동양식 또는 생활양식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는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따위를 모두 포함한다. 또는 높은 교양과 깊은 지식 또는 세련된 아름다움이나 우아함, 예술풍의 요소 따위와 관계된 일체의 생활양식이나 현대적 편리성을 갖춘 생활양식의 총체이며 학문이 진보되어서 사람이 깨어 밝게 되는 일이며 문덕(文德)으로써 백성을 가르쳐 인도하는 일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태백문화의 정체성은 태백시민의 행동양식이나 생활양식의 총체적인 의미로서 태백시민의 의식주를 비롯한 언어, 풍습. 도덕, 종교, 학문, 예술 및 각종 제도 등을 포함한다.

김강산원장은 태백문화를 '성역문화, 화전농경문화, 도참문화, 광산문화' 로 고찰하였다.(태백문화 제1집, 태백문화의 고찰,1987) 이제 25년이 지난 태백문화는 무엇으로 특징지어져야 하는가? 아마도 광산도시에서 관광도시로서 거듭나고 있으므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태백문화는 '관광문화' 로 일컫기를 원한다. 필자는 태백문화는 '성역문화로 출발하여 광산문화' 에 이어 '관광문화' 로 덧입혀져 '크고도 밝은 땅' 인 '태백' 에서 꽃피는 정신문화로서 우리민족을 대변해줄 뿌리와 같고 샘과 같은 고귀한 문화로서 영원히 빛날 것으로 믿는다.

3. 삼수령과 삼수문화

태백문화는 광산문화에 이어지는 관광문화는 이제 삼수 즉 한강, 낙동강 및 오십천의 발원지인 삼수령에서 만발하게 될 것이다.

삼수령에서 꽃피는 태백문화는 삼수유역의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삼수문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삼수문화는 삼수등에서 갈라진 세 줄기의 물줄기가 낙동강 한강 오십천을 이루듯이 우리민족의 원류로서 앞으로는 통일문화로 승화될 것이라 믿는다.

그러므로 삼수문화가 태백문화의 새로운 관광문화로서 거듭나기 위해서는 향토사학자의 끊임없는 연구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4. 통일의 광장, 삼수령센터

삼수령센터는 통일을 준비하는 만남의 광장이다. 전세계에서 우리 한민족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수련도장이다.

삼수령센터은 한민족의 정기가 깃든 백두대간의 피재에 있다. 피재는 피안의 언덕이라 부른다. 삼수령센터를 제대로 알려면 예수원의 역사를 알아야한다.

삼수령센터는 태백시의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의 하나로 추진되는 청소년수련장이다.

대천덕 신부 즉, 토레이가문의 4세대가 동양 특히 우리나라에 끼친 영성은 대단하다. 1세가 중국에서, 2세는 북한에서, 3세인 대천덕신부은 47년전 남한 하사미리에서 세계적인 영성지인 예수원을 설립하고 그의 아들 벤신부인 4세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삼수령센터 추진본부장이며, 그의 아내 리즈자매는 대안학교 생명의강학교 교장이다.

바로 이 삼수령센터에서 필자는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보았다. 즉, 동양

인 김강산원장과 서양인 벤토레이신부의 영적인 만남은 필자의 머릿속을 통해서 우선 이루어지고 있지만 언젠가 두 분의 실재적인 만남은 통해 태백문화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히 공고하게 다져 주리라 믿는다.

5. 다시 거듭나야 하는 태백문화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그러므로 '가장 태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라는 전제하에 '세계적인 태백시' 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태백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태백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태백산 천제단과 삼수령에서 비롯될 것이다.

백두대간의 모산인 태백산 천제단은 하늘에서 내리는 한민족의 정기가 깃든 곳이요 백두대간의 천의봉아래 있는 삼수령 즉, 엄밀히 말하자면 삼수등에서 갈라지는 세 줄의 물줄기는 한강(서) 낙동강(남) 오십천(동)으로 흐르는 한민족의 생명수이다. 그 물줄기외에 또 하나의 물줄기는 대동강(북)으로 흐르는 성령의 생명수이다.

그 네 번째의 물줄기는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우리 한민족이 동시에 세계통일에 기여하는 물줄기이다. 그 물줄기가 실제 시작되는 시기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이 되리라 믿는다.

평창동계올림픽은 고대 근대 올림픽의 역사를 머금고 그리스 아테네에서 첫채화된 성화가 전세계를 순회하여 한국에서의 첫성화봉송은 아마도 백두대간의 모산인 태백산 천제단에서 시작될 것이다.

인류가 만약 하나의 조상이라면 태초에 하나님(한배하느님)은 지상낙원 에덴동산(갈대아 우르)에서 남편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대를 하나를 끄집어 내어 아내 이브를 만들어 최초의 가정을 꾸리게 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아래서 서로 행복하게 살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는 사탄에게 꾀어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 에덴에서 추방되어 유랑하다가 10대 노아에 이르러 함, 셈, 야벳이 태어났고 셈의

후손 에벨에게 두 형제가 있으니 하나는 벨렉 즉 이스라엘 유대인이요 또 하나는 욕단 즉, 배달민족이 즉 알이랑(하느님과 함께) 아리랑 고개(파미르고원~천산산맥~알타이산맥)를 넘어 동방의 땅 끝 한반도에 정착하여 아침에 해 뜨는 밝은 땅, 밝달나라(배달나라)를 세월을 것이다.

알이랑 알이랑 알알이요 알이랑 고개로 넘어 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청천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엔 수심도 많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임은 십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여기서 '알' 은 '하느님(한배하느님)' 을 지칭한다.

그리하여 일찍이 역사철학자 슈펭글러는 하느님은 한국을 제2의 이스라엘로 삼아 아시아에서 새로운 정신문화를 꽃피워 세계만방에 알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리고 인도 시성 타고르는 한국을 '동방의 등불' 이라고 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러므로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이후 30년만에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은 결코 예사롭지 않다.

왜냐하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된 성화가 한국에서의 첫성화봉송이나 합화봉송은 이곳 분명 백두대간의 모산 태백산 천제단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지며 이는 분단된 한민족의 남북평화통일과 세계평화통일의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태백산 천제단은 우리 태백시를 하느님(한배하느님)의 도성, 신시(神市)로서 세계적으로 부각될 것이다.

그때 우리 태백시는 어떠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는가?

태백시는 시개청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 강원도민일보사로 하여금 태백 삼수발원지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올해 세번째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2) 삼수령센터는 이미 47년전부터 하사미리에 예수원이 설립되면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삼수령프로젝트(네번째강르포젝트)를 기획하여 대안학교 생명의강학교를 개교하였고 통일세대를 양성하며 북한개방에 대비하고 있다.

이 두 가지의 움직임은 삼수강의 발원지인 삼수령을 소재로 태백산 천제단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의 삼수점(예수원에서 주장하는 곳과 태백향토사연구소에서 주장하는 곳은 서로 다르다)에 표지석을 세움으로써 한민족이 온누리의 주인공으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태백시의 정체성이다!.

즉, 태백시의 비전은 강원도민일보사가 강 발원지를 활용한 지역활성화와 지오투어리즘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예수원이 이를 받아들이며 삼수령청소년수련센터가 세워지고 통일을 위한 만남의 광장 속에서 태백향토사연구소가 태백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바로 태백문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찾는 유일한 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미 김강산원장의 숨은 노고로 이루어진 태백산 천제단에서의 개천대제와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에 대한 업적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제 불과 5여년 남은 2018년에는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야 한다. 그 세상은 바로 굿거리 '태백타령(조운파 작사 김점도 작곡)' 이 될 것이며 아마도 이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은 필자가 유일할 것이다.(오래전에 라디오에 출연한 바 있다)

만경대에 올라가서 사방을 바라보니
눈아래 천산만봉 네가 높다 내가 높다
구름걸린 산허리가 한폭이 그림인데
신선인양 흥에 겨우니 바로 여기가 낙원일세

산목련 곱게 피고 주목은 푸르르고
울울창창 머루다래 기암절벽 당골계곡
황지천 흐르는물 낙동강의 원류되고
해뜨는 태백영봉 아침이 찬란하다

숨가쁘게 올라가면 추전역이요
한잠자고 지나가는 정암터널이라네
석탄캐는 남정네의 방울방울 땀방울
빨래하는 아낙네의 주물주물 물방울

도토리묵 올챙이묵 고냉채소 태백산채
감자찰떡 토종꿀이 혀끝에서 살살녹네
할아버지 단군님전 천제단에 소원빌어
사랑하는 벗과 함께 태백에서 살고지고

어얼사 좋고 좋네 태백 태백이 좋을시고~

인간중심 자연중심 산소도시 태백시가 과연 태백문화의 정체성을 재정립하여 새로운 세상을 맞아 영원히 빛날 것인가?

이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안을 얼마나 슬기롭게 풀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필자는 2010강원도 스토리텔링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현재 강원관광대학 강사로서 문화관광해설사, 지질해설사, 숲해설가로 활동하고 있다.

전통문화, 전설이 깃든 태백시!

은 영 선
영혼을 그리는 화가

최첨단 과학

며칠 전 친분의 출판사대표를 만났다. 5년 전만해도 친분의 출판사는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보유한 회사였는데 요즘은 초등학생 서책으로 버틴다고 했다. 이유는 스마트폰과 유튜브 때문이란다. 언제 어디서나 세계명작을 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세계의 사소한 일들까지 안방으로 끌어 들인다는 유튜브, 둘은 지구를 하나로 만들었다.

지구 밖에서 땅에 떨어진 바늘을 찍는 인공위성 디지털카메라, 분초 단위로 접하는 동영상은 외계인, UFO, 불가사의한 현상조차 진실과 허구를 분명하게 갈라놓게 되었다. 세계는 최첨단 과학으로 무장된 새로운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 최첨단 과학은 우리의 생활과 인식을 편리하게 바꿔놓았다.

결혼은 적합한 배우자를 찾아주는 결혼정보회사가 해결해주고, 배우자의 다양한 국적은 글로벌시대의 또 다른 산물이 되었다.출산은 계획임신, 시험관아기와 같은 최첨단 의료기술에 기댈 수 있다. 계획임신은 부부의 삶을 증진시키고, 시험관아기는 불임부부에겐 희망이다. 보편화된 입양은 부족한 가족관계를 채워준다. 직장은 과거와는 달리 열거가 버거운 다양한 직종의 직업들이 많이 생겼다. 다양한 직업은 젊은 인재들의 능력을 폭

넓게 펼칠 수 있게 해주었다.

건강 또한 최첨단 의료기기 덕분으로 작은 질병까지 조기에 찾아내는 검진이 가능해졌다. 요즘은 60~70년대와 비교하면 상상이 불가능한 풍요로운 시대다.

그런데 세계뉴스의 초점은 불황이고 대한민국도 1000조에 육박한 가계빚이 불안거리다. 그뿐인가, 암, 당뇨, 고혈압 같은 고위험 질병은 물론이고 불임, 이혼, 실업률 등 꺼리는 단어들이 증가된다는 소식이 방송으로 전해진다. 최첨단 과학으로 무장된 젊은 인재들이 넘쳐나는데도 버거운 단어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질병, 불임, 불황

요즘 고위험 질병에 대한 예방은 건강밥상이 최고라며 670년대 보리 고개 음식을 소개하는 방송프로가 인기다.

불임의 증가는 개개인이 처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아프리카에서는 불임이 적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아프리카, 그곳은 아직까지 최첨단 과학기기가 진입하지 못하고 자연에 의존하는 대륙이다.

세계적 불황의 시작과 원인은 세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밝힌 이 말은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 말의 원조격으로는 일본 도요타의 '인재경영' 을 꼽을 수 있지만, 인재경영이라는 게 어느 한 기업의 전유물이겠는가. 인재경영은 일본이란 나라의 힘일 테고,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뉴욕경제의 바탕이다. 중국과 인도도 세계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장기적 목표를 세운 것이 일본과 미국을 능가하는 인재양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인재경영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한 사건이 세계 여기저기서 터져버렸다. 미국 경제를 상징하며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 있다는 뉴욕의 금융시장이 휘청거렸고, 자동차의 대명사인 GM이 파산보호신청을 했다. 그리

고 인재경영의 핵심인 도요타가 그들이 생산한 글로벌(global)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엄청난 비용을 치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의 대형 금융시장이 휘청거린 것은 금리정책이나 증권투자 같은 고난위의 경영, 경제 이론이 아닌 주택담보대출의 남발 때문이라고 한다. 도요타의 결함도 천재만이 파헤칠 수 있는 초정밀 과학 분야가 아니라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교환수리가 가능한 것이라고 한다.

미국과 일본에서 터진 사건들로 인해 언론에서는 일상의 업무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문제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류기업 도요타가 최첨단기술과 인재를 자랑스러워한 만큼 노동자와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평범한 이들도 중요하게 배려했다면 이번 사태는 없었을 거라고 꼬집었다.

인재가 만든 신제품은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고 생명을 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런데 인재가 개발해낸 신제품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평범한 이들의 노력과 희생이 받쳐져야 가능하다. 그러나 세상은 '평범한 이들의 노력과 희생' 을 무시하고, 평범한 이들조차 인재가 되기 위해 발버둥친다. 평범한 이들의 인재를 향한 발버둥,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신에게 남아 있는 평범함까지 말살하게 된다. 거액의 부채, 가족불화, 질병 같은 폭풍을 겪고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평범함, 그것은 참으로 묘한 존재다.

사실, 일등만 인정하고 기억하는 요즘의 풍토에서 평범함을 유지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을 원망하기보다는 내 안의 평범함을 끄집어내어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이 방법일 테다. 그러고 보니 조강지처가 최고이고, 보리밥이 건강이고, 장작패기가 정력이라던 할아버지 할머니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60년대 또는 그 이전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절약이 일상이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물 한 그릇 앞에 두고 간절함을 토로하던 답답한 분들이었다. 우리는 그들을 미신이나 믿었던 무지한 이들로 몰았다. 최

첨단 과학기기를 잠시 밀쳐두고 무지한 이들이 가까이 했던 것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옛 사람들은 자연을 중요시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 여겨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실생활과 연관시켜 해석했다. 돌은 명예운, 나무는 경재운, 적당한 물은 예술운, 안정운을 상징했다. 그런 연유로 신성한 돌에 변고가 생기면 국운이 쇠하고, 숲이 마르면 나라의 재물이 줄어들고, 홍수가 이어지면 젊은이들의 앞길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다. 자연변화가 실생활과 밀접했던 예전에는 자연으로 미래를 가늠할 수 있었고 역술, 부적, 고사, 굿은 그에 따른 부산물이었다. 조선시대까지는 역술, 부적, 고사, 굿 따위는 양반과 평민 모두가 애용하던 평범한 것이었다.

부적

예로부터 부적은 학문이 깊고 지식이 풍부했던 지식층에서도 폭넓게 작성되었다. 지식이 부족해서 부적을 만들지 못하는 평민들은 새해가 되면 마을에서 학식이 있는 원로를 찾았다. 그리고 한해의 길흉을 상담하며 자신에게 맞는 부적을 받았다. 자신이 이루고자하는 소망을 부적에 담아 대문, 방문, 기둥 등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 붙여 놓았다.

그것은 부적이라는 형태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알리고 소망을 위해 노력하는 성실함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부적의 종류로는 대부분 결혼부, 재물부, 관직합격부, 자손부, 건강부로 이런 부적이 대문이나 방문에 붙으면 마을에서는 합심해서 도와주었다.

관직합격부의 집 앞에는 소란을 삼가 했고, 자손부에는 부부가 함께 해도 흉을 잡지 않았고, 재물부에는 돈에 혈안이 되어도 탓하지 않았으며, 결혼부에는 앞장서서 중신을 섰다. 위의 내용 중 요즘에도 이어지길 바라는 것은 자손에 관한 부분이다. 요즘 부부들에게 계획임신, 시험관아기, 입양은 발달된 의학과 좋은 사회제도 이긴 하다. 하지만 그것들의 선택은

당사자가 결정해야하고, 결과도 선택을 행한 부부의 몫이다. 그러기에 그 과정을 겪는 동안 사이가 돈독해지는 부부도 있지만 고통을 가지는 부부도 허다하다. 그러고 보면 임신과 양육 문제를 당사자들의 몫으로 인식하는 지금의 시대가 조금은 버겁다.

삼국~ 고려~조선시대까지 임신과 양육은 남녀의 합방, 의술보다는 '하늘의 뜻과 치성' 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스런 영역이었다. 최첨단 과학시대에 미신적 요소는 아니라도 임신과 양육에 깃든 성스러움과 정성은 외면하지 말아야한다. 조상은 남녀가 만나고, 동침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아이에게 내재된 하늘의 뜻이 있다고 믿었다. 그러기에 동량지재(棟梁之材)의 욕심을 가진 부부들은 합방 전부터 정성이 일상이었다. 부부가 함께 보약을 먹고, 좋은 기운의 장소를 찾고, 성현들의 서책을 가까이하고, 튼튼한 아이를 가진 여인의 속옷까지 마련하는 등 갖은 노력을 했다. 그렇게 정성으로 태어난 자식의 훈육은 서릿발 같았지만 그 자식이 좋아하는 부분은, 그것이 놀이일지라도, 눈감아 주고 기다려주는 아량을 베풀었다. 이유는 자신들의 정성과 자식에게 내재된 하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고사

과거 시대의 고사는 조상과 자연에게 한해의 평안함을 감사드리고 이웃과 나눔을 즐기는 문화였다. 고사는 음력10월에 많이 행해졌고 부득이한 경우 음력12월까지 지낼 수 있었는데 장소는 집, 사업장, 산, 당산나무, 당산석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다. 고사음식은 가족과 함께하는 음복이 철칙이었고 걸인을 위해 당산나무에 놓아두는 것이 불문율이었다. 고사음식 중 제한된 일부만 동물들을 위해 산에 뿌렸는데 건포(재물), 건대추(자손과 덕망), 생콩(힘과 건강) 등이 가능했다.

음력 1월부터 3월 곡우까지는 설, 보름, 머슴날, 삼칟날 같은 명일에 음

식을 장만하여 마을단위로 함께 즐겼다. 고사가 가족과 자연을 중시했다면 1월부터 3월까지의 명일은 한해를 고생할 머슴이나 소를 배불리 먹이는 행사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즉 고사가 가족, 불우한 이웃과 함께 하는 모임이라면 1~3월까지는 한해의 목표를 위해 마을단위로 결의를 다지는 행사였다. 곡우이후부터는 5월 단오, 6월 유두, 7월 백종 때와 개인적인 제사를 제외하곤 추석까지는 일에 전념하였다.

굿

무속인을 불러다 벌이는 굿에도 격식과 철차가 있었다. 굿은 설, 보름, 단오, 유두, 백종 등의 명일과 제관의 주관 하에 진행되는 동제와 같은 마을단위의 행사에서 주로 행해졌다. 마을행사에서 이루어지는 굿은 주민들의 흥을 돋우어 한해의 액을 잠재우고 복을 불러들이는 놀이였다. 마을단위로 행해진 굿 덕분으로 개인은 따로 굿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개인이 굿을 해야 할 상황은 집안에 병자가 있거나 부모님 생신을 크게 하여 마을잔치를 벌일 때였다. 병자 굿도 여러 의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마지막으로 기대 보는 절차정도였다. 고사에는 굿을 하지 않았는데 굳이 굿을 하고 싶으면 마을주민에게 한 턱 낸다는 개념으로 행해졌다. 이처럼 굿은 숨어서 하는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여 즐기는 화합의 놀이문화였다.

부적, 고사, 굿을 즐기는 방법최첨단 과학의 무분별한 추구가 질병, 불황을 낳을 수 있고 그 해결책이 자연, 건강밥상, 평범함의 유지에는 수긍을 해도 부적, 고사, 굿으로까지 발전되는 것에는 이의제기가 있겠다.

그러나 함께 모여 웃으며 즐기던 예전의 새해점술, 부적, 고사, 굿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일부 계층에서 부적과 굿을 이용하여 경쟁자를 모함하기도 했지만 악용하는 자들의 결과는 언제나 비참했다.

세계의 전통문화

서양에서는 아메리카 인디언의 주술, 태양과 달을 숭배했던 마야 유물, 힌두교 장식물 등이 액세서리(accessory), 패션, 펜던트(pendant)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그뿐인가,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 할로윈(Halloween), 추수감사절은 축제를 넘어 이윤을 남기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

첫 번째 유래는 고대 애급(Egypt:현재 이집트 아랍공화국)의 관습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애급에서는 동지제(冬至祭) 때 나뭇가지 장식, '로마' 축제 행렬에서 촛불을 단 월계수 가지 장식 등 옛날의 성목(聖木) 숭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유래는 독일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전나무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 산길을 눈 쌓인 겨울밤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두웠던 주위가 달빛에 밝아지면서 아름다운 빛을 전나무로부터 목격하게 되었다 그것은 전나무에 쌓였던 눈들이 달빛에 반사되어 아름다운 빛을 비추게 된 것이다

달빛에 반사되어 아름답기 그지없는 눈빛을 쳐다보던 루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고 집으로 전나무 가지를 갖고와 장식을 하였다고 한다. 전나무 장식을 하면서 하얀 눈 대신 아름다운 꼬마전등으로 장식을 하여서 달빛에 반사된 눈빛을 대신하여 아름다운 트리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것이 요즘 크리스마스트리의 유래가 되었다 한다.

할로윈(Halloween)

10월 31일 밤에 행하는 서양의 연례 풍속행사로 고대 켈트인(人)의

삼하인(Samhain) 축제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삼하인(Samhain) 축제는 죽음의 신(神) '삼하인' 을 찬양하고 새해와 겨울을 맞는 축제였다. 이 날 밤에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그들의 집으로 돌아온다고 믿어 이 축제는 유령 · 마녀 · 도깨비 · 요정 등과 함께 불길한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또한 이 날은 악마의 도움으로 결혼 · 행운 · 죽음에 관계되는 점을 치기에 좋은 때라고 생각하였다. 그리스도교의 전파와 함께 할로윈 축제는 모든 성인(聖人)의 날 대축일(11월 1일) 전날 밤의 행사로 자리 잡았다. 'hallow' 란 앵글로색슨어(語)로 '성인(聖人)' 를 뜻하며, 'All Hallows' Eve(모든 성인의 날 대축일 前夜祭)' 가 줄어서 'Halloween' 이 되었다. 오늘날에는 미국 어린이들의 축제로 유명하다. 할로윈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잭오랜턴(Jack O'Lantern)은 속을 도려낸 큰 호박에 악마의 얼굴 모습을 새기고 그 안에 초를 고정시켜 놓은 것이다. 학교에서는 가장(假裝) 파티가 열리고, 밤이 되면 도깨비 · 마녀 · 해적 등으로 가장한 어린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과자를 주지 않으면 장난을 치겠다(Trick or Treat)' 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초콜릿과 캔디를 얻어 간다. (출처: 두산백과)

추수감사절(Thanksgiving Day)

감사절(Thanksgiving Day)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의 절기에서 유래한다.≪구약성서≫에서 유태인들은 그들의 민족적 경험과 감사의 축제 전통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삼대명절은 모두 감사절이었다. 과월절(Passover)은 민족해방에 대한 감사절로 기념하였고, 봄의 맥추절은 첫 열매의 수확에 대한 감사절이었다. 초막절(Tabernacles)은 1년 중 가장 큰 절기로서 가을에 모든 곡식과 올리브, 포도를 거두어들이는 명절로, 또한 선조들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며 유랑하던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하다.

가톨릭교회에서는 부활 후 40일이 되는 날 목요일 승천일 전의 3일 동안 풍년 기원제를 가졌다. 스위스의 개혁파교회에서는 9월에 지켰다.

영국은 8월 1일 라마스날(Lammas Day)을 추수감사절로 지낸다.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는 성(聖) 미카엘의 날(9월 29일) 후의 일요일을 감사절로 지켰다. 미국의 감사절은 영국의 국교도들에 의하여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 1621년부터 시작되었다. 온갖 역경을 겪고 첫 수확을 감사하며 지낸 감사절은 지방 행정관 브래드 포드(Bradford,W.)가 언명하여 시작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러고 보니 유명 백화점에서 마주치던 인디언의 펜던트(pendant), 아프리카 토산품이 주술용 부적이었다. '크리스마스 트리, 할로윈 호박, 추수감사절 칠면조' 는 우리네 솟대, 영혼, 고사음식과 다를 바 없다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은 우리가 미신이라 밀쳐놓은 것을 문화, 예술, 성스러운 종교, 상업으로까지 발전시킨 점이다. 평범함이 깃든 우리의 전통도 문화이고 예술이라는 긍지를 가져야겠다.

태백시로 떠나보자

서울을 벗어나기만 해도 명당의 풍수를 가진 자연, 영험한 기운이 넘친다는 보호수, 어려움을 털어버리는 신명나는 지역문화행사가 널려있다. 그중 단군과 천제에 얽힌 전설이 깃든 곳은 강화도 마니산과 태백시 태백산이다.

천제(天祭)는 하늘신[天神]에게 제(祭)를 올리는 제의다. 우리나라의 천신숭배는 부여 · 고구려 · 가락 · 신라 · 고조선 등이다. 시작은 고조선 단군(단군왕검)으로 단군은 하늘에서 제사를 지내는 최고의 우두머리를 뜻하고, 왕검은 큰 칼을 갖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를 뜻한다. 즉, 고조선은 제사와 정치가 일치된 나라임을 알 수 있다. 천제는 상고대(上古代) 왕국의 창건주인 시조왕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격적인 존재로 관념됨으

로써 구체화된다. 이들 시조왕은 모두 하늘에서 강림한 천신이자 지상 왕국의 왕으로서 섬겨진 존재들이다. 부여의 영고(迎鼓)와 고구려의 동맹(東盟)이 하늘에 제사지내는 의례였고, 백제 고이왕(古爾王) 5년(238) 정월에 북과 피리를 사용하여 천지(天地)에 제사를 지냈다는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과 신라 혁거세(赫居世) 임금이 남태백산 아래에 천부소도를 건설하고 가운데 봉우리에 있던 허물어진 천제단을 수축하여 하늘에 제사지냈다는 『부도지(符都誌)』의 기록이 있다. 『부도지』에 따르면 천신신앙의 유래는 부여 · 고조선 및 삼한 당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신라의 영성제(靈星祭) · 일월제(日月祭) · 오성제(五星祭) 및 고구려의 영성제 등을 고려한다면 우리 상고시대 사회의 천신신앙은 보다 더 다양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태백시는 천제, 우리의 전통문화를 활성화 시키는 곳으로는 단연 으뜸이다.

필자의 태백시 방문

필자에겐 역술적 도움을 주는 2명의 친분이 있다. 한분은 나와 20년 지기로 80세 이인환선생님, 또 한분은 10년 지기로 70세의 두꺼비보살이다. 이선생님은 남자로 원성(원주)군청 공무원이었고, 두꺼비보살은 대구에서 원단을 수출하던 사장이었다. 탄탄한 직업을 가진 그들이 역술계로 들어오기까지는 드라마 같은 사연이 있다. 이선생님은 60세까지는 한 달에 한번씩, 5년 전까지도 일 년에 한번은 태백산을 다녀오곤 했다. 이선생님은 자신의 태백산 애정을 주변에 권유했는데 필자와 두꺼비보살에게는 닦달 수준이었다. 이선생님의 성화에 시작된 필자의 태백산 방문 사연은 저서 '행복여행' , '향기' 에 밝혀 놓았다. 그중 '향기' 내용을 옮겨 본다.

(응답바위)

어느 날, 필자는 두꺼비보살 사무실을 찾았다. 두꺼비보살은 고성이 오고가는 전화통화 중이었다. 통화의 상대방은 두꺼비보살이 소개해준 사람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였다. 채무자는 사업이 망했다며 돈 갚기를 거부했다. 읍소(泣訴)) 처지에도 채무자는 두꺼비보살에게 화를 내며 거만을 떨었다. 두꺼비보살이 필자에게 한탄하며 채무자에 대해 설명했다.

"두꺼비보살은 한산한 채무자의 식당을 우연히 찾았고, 가끔씩 매상을 올려주며 가까워졌다. 어느 날, 두꺼비보살은 '굿판의 달인이었다' 는 채무자의 넋두리를 듣게 되었다. 평범한 채무자가 굿판을 선택하기까지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고, 그 과정을 다독여준 스승은 태백산의 전설적인 예언자였다. 채무자의 스승도 아낙네에서 하루아침에 예언자가 되었는데 비결은 우연히 발견한 태백산의 응답바위 덕분이었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던 채무자는 두꺼비보살에게 돈 거래를 부탁했다. 두꺼비보살은 채무자에게 돈을 연결해 주는 조건으로 태백산 응답바위 답사를 확약 받았다. 그런데 채무자는 두꺼비보살이 소개해준 거래자에게 돈을 융통받고도 응답바위 위치를 함구했다."

두꺼비보살은 채무자의 돈을 갚아 주는 대가로 응답바위를 찾으러 태백산을 가자는 요구를 하고자 했다. 나는 두꺼비보살의 쪼들리는 생활을 알기에 바위덩이 때문에 빚을 지려는 그녀의 행동에 환장할 노릇이었다. 두꺼비보살은 '성질나면 물건을 던지는 채무자가 무섭다' 며 나에게 옆에 있어 주길 부탁했다. 간만에 나의 까칠함과 맞장 뜰 인물이란 기대에 채무자와의 대면을 결정했다.

두꺼비보살이 채무자에게 전화하며 호출을 명령했다.

채무자가 왔다. 큰 키에 둔해 보이는 퉁퉁한 몸매는 굿판의 작두를 다룰지 의심스러웠다. 풀어진 눈매, 어눌한 목소리, 둔한 움직임은 귀신은 고사하고 사람부리기도 버겁겠다. 굿판달인을 고대하던 나의 예상은 빗나갔고 인정에 목마른 두꺼비보살을 이용한 채무자의 사기란 생각이 들

었다. 두꺼비보살이 응답바위 답사를 제시하자, 채무자는 어린 자식을 고아원에 맡기고, 남편을 설득하여 자신이 술집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채무를 책임지겠노라 큰소리쳤다. 두꺼비보살이 눈물을 글썽이며 신세 한탄을 뽑자 채무자가 마음을 누르는 듯했다.

"나는 우울증에 죽겠다는 사람도 한 번의 굿판으로 흥을 살려 주었다. 굿판 결정은 고객이 아니고 나를 대하는 공손한 자세일 정도로 손님이 많았다. 나에게 돈 버는 것은 하찮은 거였다. 그러던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식당을 하니 처참함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젊은 것들이 나를 식모 부리 듯 하면 행주를 던졌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다행이야. 건방진 사람에게 당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천기의 저주를 읍(泣) 조리고 있는 거야. 그럴 때면 세상만사가 서러워서 손님을 내 고 통곡하지. 나의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울던 아이가 춤을 추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내가 화려한 과거를 짓누르며 일이천 원 벌이에 발버둥 쳤다. 이유는 단 하나, 또 다시 굿판을 뛰면 응답바위 마력에 나를 잃는 두려움 때문이지.

나도 스승의 뒤를 밟으며 응답바위에 가 보았다. 손님에 의문거리를 가지고 응답바위에 앉아 하늘과 땅에게 성실히 살 것을 맹세하면 해결책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 그 소리는 소름이 돋고 가슴이 찢기는 형형할 수 없는 울림, 괴물형상을 한 저승의 울림이라는 확신이 들지. 울림이 끝나면 저승 문이 보이고 잡아당기는 환상이 보이지. 그래서 응답바위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응답바위에서 일어나 가려면 뒤 쫓아 오는 저승의 환상에도 삼십 발자국은 걸어 가야해. 이유는 그 뒤부터 나타나는 몸 저림 현상 때문이지. 삼십 발자국쯤 걸어가면 힘이 빠지고 숨을 못 쉬는 증상이 나타나지.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뛰면 그 현상을 견디지 못하는 거야. 몸 저림 현상을 이기고 기어서라도 마을까지 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쓰러지지. 실제로 응답바위를 찾던 젊은 남자 2명이 근처에서 심장마비 사인으로 발견 되었어. 체력적으로 심장마비를 일으킬 요인이 없어서 모두들 의아해했지만 나와 스승은 남자 2명이 응답바

위를 뛰어서 나오다가 그 현상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걸 알았어. 더 기막힌 건, 집에 와서 잠깐이라도 졸면 응답바위 위치를 잊는 거야.

위치를 기억하려면 응답바위를 다녀와서 다음 날 해뜨기 전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데, 요령은 저녁 8시전에 응답바위를 다녀와서 다음 날 해가 뜨기 전까지 버티는 거지. 이것은 스승의 방식으로 해가 일찍 지고 늦게 뜨는 겨울은 제외야. 모든 면에서 나보다 처지는 스승을 깍듯이 대접한 것은 응답바위를 다녀와서 졸음을 참는 초인적인 능력 때문이지. 밀려드는 굿판, 작두의 부담에 수면제를 털어 넣어도 잠을 못자는 내가 응답바위에 다녀온 10번 모두 졸고 말았어. 응답바위에 다녀오면 해가 뜨기까지 서있어도 졸음은 밀려와. 졸음을 참고 못 참고와 상관없이 다음날 해가 뜨면 입맛이 생기고, 의욕이 치솟고, 막혔던 일이 술술 풀리며 근심걱정이 없어지는 거야. 그 느낌을 감사하며 소중히 간직하면 삼년이 간다는데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어떤 일에 욕심이 생기면 느낌은 일순간에 무너지고 또다시 버둥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지. 응답바위 느낌은 보통 6개월에서 길어야 일 년이지. 평범한 사람과 달리 굿판을 벌이며 욕심을 키워서인지 나는 3개월이 고작이고, 다시 응답바위가 그리워지는 거야. 응답바위가 그리워지면, 나를 부르는 환청이 들리면서 미친 듯이 찾으러 떠나지. 발톱이 빠지도록 산길을 헤매다가 정신이 들기도 하고, 코 앞 절벽에서 나를 발견 한 적도 있어. 그러다보면 응답바위를 못 찾는다는 참담함에 죽고 싶지.

스승은 응답바위 덕분으로 돈을 끊어 모았어. 어느 날 응답바위에서 '다시는 찾지 말라'는 소리가 들리더래. 그래도 스승은 응답바위 명령을 듣지 않았지. 스승도 응답바위 마력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거야. 가족에게 변고가 생기고, 스승까지 먹지도 잠자지도 못하고 운신을 못하고서야 응답바위를 끊겠다는 결심을 했지. 결심을 하자 음식이 넘어가고 잠을 자는 정상의 몸으로 돌아왔지만 또 다시 응답바위를 그리워하는 거야.

스승은 물론이고 나 또한 응답바위를 버리지 못하면 말라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내가 스승에게 애원했어. 살기위해 태백산을 떠나자. 그 과정에서 나와 스승은 서로에게 많은 막말과 상처를 입혔지. 치유 불가능한 서로의 상처는 갈라서는 확실함이 되었고, 태백산을 떠나는 이유가 되었어. 최신형 냉장고, TV, 장롱, 분신인 부채, 장고, 작두, 등 열거하기 벅찬 살림살이를 우리는 경쟁하듯 주변에 처분했어. 죽어서도 만나지 말자, 태백산 쪽으로는 침도 뱉지 말자는 다짐과 함께 우리는 헤어졌어. 그리고 스승과 나는 가슴 속의 사랑인 응답바위를 부셔버렸지. 나와 스승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이성보다 더한 매력을 가진 응답바위를 향한 지독한 짝사랑을 했고 결말은 파산이었지. “

술을 들이키며 과거를 되씹던 채무자가 태백산행을 결심했다.

신바람의 두꺼비보살이 나에게 참여를 강요했다. ‘연꽃’ 예명으로 굿판을 날렸다는 채무자의 과거는 믿지 못해도 응답바위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응답바위는 사람에 의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 같다.

그날, 우리는 청량리역에서 밤차를 타고 태백으로 출발했다. 새벽에 태백시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아침을 먹은 후 응답바위를 찾아 나섰다.

5시간을 헤매고도 강행을 주장하는 두꺼비보살에게 포기를 끌어내기까지는 나의 엄청난 투정이 있었다. 두꺼비보살은 ‘응답바위 소문이라도 듣겠다’ 며 10년 거주자를 찾는 땡 고집을 부렸다. 넘치는 집념에 하늘이 도와주었는지, 전설적인 스승을 아는 증인을 찾았다. 증인은 기도원직원이었다. 두꺼비보살은 만세삼창과 증인을 향해 질문거리를 쏟아냈다. “전설적인 스승, 연꽃의 화려한 과거, 응답바위”

증인은 채무자의 과거를 사실로 확인해주었다. 기도원직원의 증언이 끝나자 기도원장이 말을 이었다.

“저쪽으로 1시간 올라가면 질문에 대답하는 바위가 있어요. 옛날부터

득도 장소로 소문난 바위입니다. 득도에는 관심 없고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이 찾으면 패가망신 한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렇게 영험한 바위를 마을사람들 대부분이 모르는 것은 근처에서 사람이 잘 죽으니 흉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사체유기도 조사했다는데, 사인의 대부분이 심장마비였어요. 응답바위 위치가 외진 곳이라 쓰러지면 발견되기 어려운 점도 있고요. 지난겨울에도 2구(具)의 시체가 발견되었고, 열흘 전에는 불이 나서 당분간은 출입통제입니다. 나는 이곳에서 10년을 살며 바위소문을 들어도 가지 않았어요. 응답바위 덕분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사람 욕심이란 끝이 없어 또 찾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면 나의 일상이 응답바위에 매달릴 테고 그것보다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게 마음 편하지요."

날카로운 눈매, 다부지고 남성적인 목소리의 기도원장은 확실한 자신의 세계가 있었다. 기도원장의 훈계가 강했던지 두꺼비보살에게 박힌 응답바위가 날아갔다.

두꺼비보살의 궁금증이 기도원과 원장에게 옮겨졌다. 태백산 장군봉에 있던 사당에서 철거된 이순신장군 동상을 모시고 있는 기도원은 전국에서 찾아오는 기도 객을 맞고 있었다. 원장은 구국기도를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구국기도를 해야지요. 뭘 바라고 하는 건 구국이 아니지요."

원장의 확신 앞에 나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찾고 싶은 강인함을 받았다.

이탈리아 여인

1년이 지난 후, 나와 두꺼비보살은 동행인을 데리고 기도원을 찾게 되었다. 동행인은 프랑스유학파 교수(여자), 메이저신문사 편집장, 광고인, 한의사(여자)였다. 나와 두꺼비보살은 동행인에게 숙방장소가 기도원이란 사실을 숨기고 펜션이라 둘러댔다.

오색 깃발 · 용왕전 · 산신각이 있는 기도원에 들어서자 편집장, 교수가 거부감을 드러냈다. 광고인, 한의사는 '한번쯤 방문하고 싶었던 곳이다' 며 숙박을 찬성했다.

"오색 깃발은 오방(五方 동 · 서 · 남 · 북 · 중앙), 산신각은 태백산 장군봉과 이순신장군, 용왕전은 물을 상징한다." 기도원장이 동행인에게 설명했다.

기도원장 설명, 광고인과 한의사 설득에 편집장 마음이 누그러졌다. 편집장은 모태신앙이지만 평소 이순신장군에 대한 강한 존경심을 품기 때문이었다. 편집장과 한의사가 교수를 설득했다.

그러나 동행인을 설득하는데 결정적 요인은 이탈리아 여인이었다. 50대에 기품과 미모를 갖춘 이탈리아 여인은 유창한 영어, 프랑스어를 비롯하여 5개 국어가 가능했고 기도원 방문이 3번째라 했다. 그녀와의 교감은 영어가 부족한 기도원장과 두꺼비보살이 가능했고, 영어대화는 나와 광고인이 원활했다. 편집장과 교수는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했다. 참고로 편집장은 일류대 불문과 출신이다.

"이곳에 왔을 때 편집장과 교수가 들어낸 거부감이 태백산과 이순신장군의 좋은 기운을 막고 있어서 피곤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두꺼비보살이 설명했다.

이탈리아 여인은 역사를 전공했고, 교사재직, 대학생 딸을 두고 있었다. 역사전공, 교사직업 탓에 학생들 방학 때마다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었다. 편집장은 그녀가 이탈리아에서는 상류층이라는 걸 알았다.

그녀의 한국방문은 반복되는 꿈 때문이라 했다. 꿈은 '산, 바다, 긴 머리의 동양여자, 그림' 이라 했다.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방문 후에도 계속되는 꿈은 그녀의 관심을 동양권으로 돌렸고 인도, 중국대륙, 일본 등을 방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방문에서 편안한 느낌을 받았는데도 꿈이 반복되자 주변에 하소연을 해 보았다.

"일본에서 기록되어지는 역사의 시초는 한국이다. 나도 당신처럼 반복

되는 꿈을 꾸고서 한국을 찾았고, 한국의 설악산을 찾고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일본 상담자 조언은 이탈리아 여인에게 한국행을 결심하게 만들었다.

한국행 3 태백문화 24집

비행기 안에서 이탈리아 여인은 자신과 같은 사연을 가진 외국인을 여러 명 만났다. 그들은 한국방문으로 안정을 찾은 후 지속적인 방문과 한국관련 사업을 이어간다고 했다. 이탈리아여인은 자신과 같은 처지로 한국방문이 처음인 젊은 남녀 3명과 함께 했다. 공항의 관광책자에서 태백산을 보는 순간 그들은 함께 소리쳤는데 '꿈속의 산' 이었다. 공항 관광안내소에서 교통편이 편한 북한산(서울), 설악산을 추천하자 젊은 남녀 3명은 고집을 꺾었고, 이탈리아 여인만 겨우 태백시를 찾아왔다. 태백시에 도착해서는 택시운전기사에게 식사해결과 여자만 있는 숙박장소를 부탁했고, 기사는 이곳 기도원으로 데려다 주었다고 했다.

이탈리아 여인의 증언은 세계 곳곳에는 자신과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이탈리아 여인은 출국하며 공항에서 샀던 '한국의 산' 사진을 주변에 나누어 주었고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러나 그녀는 특정 국가의 산을 신봉하는 행위로 비춰져서 조사를 받고 징계를 받고 주변의 따돌림을 받았다고 했다. 나와 편집장이 '특정 산을 신봉하여 주변에 떠벌인다면 대한민국에서도 따돌림 받고 심하면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고 위로했다.

"예수님, 부처님 사진은 가능한데 왜 산 사진은 안 되는가?" 이탈리아 여인이 반문했다. '예수님, 부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랑을 지녔지만 사람들은 자연에는 사랑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연을 드러내놓고 신봉하면 안 된다. " 내가 말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탈리아 여인이 나에게 질문했다. 내가 이탈리아 여인에게 2번의 개인전을 열었던 전시회 안내장을 건넸다. 이탈리아 여인이 호들갑에 가까운 강한 반응을 보였다. 그녀가 꿈속에

서 본 그림, 그것은 당산나무를 그린 나의 그림이라 했다. 나는 전국을 돌며 찾은 당산나무, 당산석, 부도를 작품 주제로 삼는데 이탈리아 여인이 가리킨 2개의 그림은 울진의 당산나무였다. 이탈리아 여인이 나에게 자신과 동행하는 울진 당산나무 방문을 요청했고, 자신이 왜 태백산과 울진 당산나무 꿈을 꾸었는지를 설명해 달라 졸랐다. 나는 '전생과 인연' 의 저자로서 그녀의 상황을 해석해주었다. "당신의 전생은 여럿 있지만 당신이 가장 행복했던 전생은 한국의 상고시대(上古時代)다. 한국 상고시대의 정신세계는 하늘처럼 맑아서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 시대를 그리워한다. 대한민국에서 상고시대 기운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은 험준한 산이다. 상고시대 태백산과 당산나무는 상류층에서 제를 드리던 장소였다. 전생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니까 문학으로 예술로 추억으로 당신 마음에 간직하길 바란다. "나의 설명에 이탈리아 여인이 환한 웃음을 보였다.편집장은 이탈리아 여인의 사연과 기도원을 잡지에 소개하고 싶어 했다. 이탈리아 여인이 승낙을 했다.

서울로 올라와서 편집장은 후배기자를 기도원으로 보냈다. 그런데 이탈리아 여인이 처음 보는 기자를 믿지 못하여 인터뷰를 거절했다. 편집장 또는 내가 함께하는 인터뷰에만 응하겠다고 했다. 이유는 이탈리아에서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소개된 언론 인터뷰로 인해 가정불화를 겪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편집장은 잡지 마감으로 바빴고 나는 몸이 아팠다. 편집장은 나에게 보약과 보양식 대접을 제시하며 부탁했지만 들어 주지 못했다. 이런 사정을 설명하기 위해 편집장은 영어가 능통한 후배기자를 다시 기도원으로 보냈지만 이탈리아 여인의 인터뷰 거부를 꺾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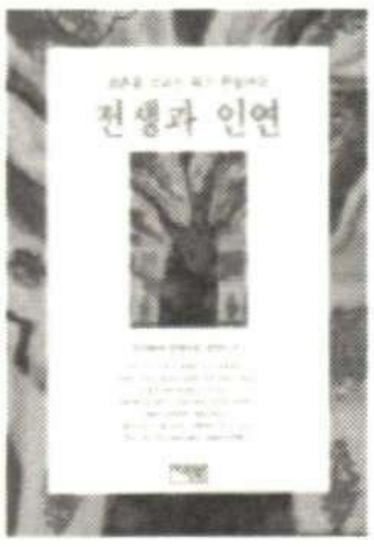
태백산이 찾아간다.돌이켜보면 그 당시, 나는 편집장의 권유를 받아들여 이탈리아 여인과 함께하는 인터뷰에 동참했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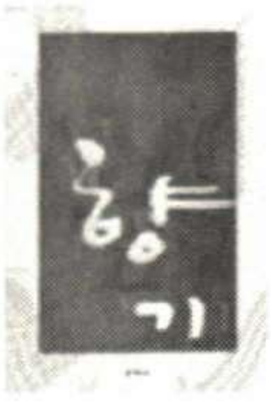
'태백산, 이순신장군, 기도원, 두꺼비보살, 이탈리아 여인, 편집장,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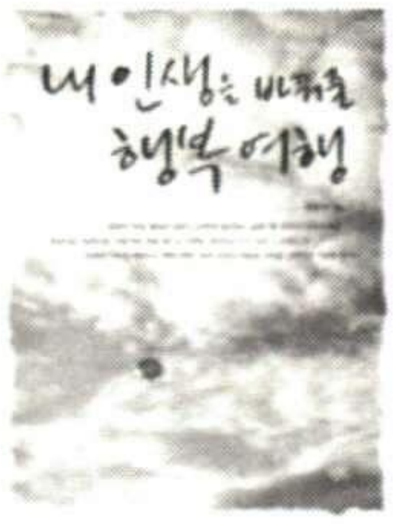
영선' 이들은 수천 년의 동안 이어져온 '자연과 사람의 인연을 증명하는 순간' 에 선택되어졌을지 모른다. 이글을 읽는 독자들은 태백산이 곁으로 찾아오면 망설임을 밀쳐내고 자연과 하나 되길 바란다.

영혼을 그리는 화가 은영선

서양화가, 전시회작품, 소설연재, 여행기, 평론 수록
전 시 회
1회 그림 전시회
(1996. 6.12 ~ 6.18 , 서울 인사동 갤러리 '도올')
2회 그림 전시회
(1999. 7.18 ~ 7.22. 울진군 골길 용왕전(상왕전))
저 서
전생과 인연 1997년 (기린원)
가이공주 (저작권 등록번호 : 제 C-2007- 002701)2002년 (소담출판사)
내 인생을 바꿔줄 행복여행 2007년 (동아일보)
봉황의 나라 2010년(동아일보)
경기전설과 문화 (G-LIFE (경기도 정책정보지)연재2009.4.~2010.8.)







교육칼럼

'태백'의 교육환경과 향후 추진과제

홍종배
강원도태백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은 인간의 정신능력을 신장시킴으로써 삶의 내적 조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삶에 필요한 사회·경제적인 외적 조건의 확보를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연유로 교육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부여 되어야 하며, 헌법에서도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태백을 비롯한 폐광지역 학생들에게도 공평성 혹은 출발점 평등이라는 기본 개념에서 '교육 기회의 평등'의 의미를 심도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는 폐광지역 학생들은 도시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적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육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도시지역 학생들이 누리는 교육 기회를 그들에게도 제공하여야 한다는 '과정의 평등' 의식이 폐광지역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출발점이 된다.

폐광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생활환경은 총체적으로 열악하다. 개인의 주거환경, 생활 수준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까지도 낙후된 것이 현실이다. 또한 타시·군에 비하여 다목적실 등 학교 시설 환경조차 낙후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폐광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누가, 어떻게 개선시켜 나

가야 하는가? 의 물음에 가장 현시적(現示的)인 답을 구하는 것이 '태백 교육' 의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화두(話頭)가 될 것이다.

사실 지역의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할 1차적인 책임은 강원교육의 밑그림을 그리는 '강원도교육청' 에 있다. 그러나 빈약한 교육재정에 허덕이는 '강원도교육청' 에서도 폐광지역에 한정된 특단의 대책을 별도로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만나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고민할 뿐,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폐광지역 전체의 교육격차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강원도교육청' 에서부터 일선학교에 이르기까지 폐광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할 뚜렷한 방안을 갖고 있지 못하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심점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원인과 대책을 거슬러 살펴보면 '폐광지역 교육격차 해소방안' 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결국 빈약한 교육재정의 문제이다.

낙후된 교육여건은 폐광 지역 주민의 정주의식을 떨어뜨리고 이는 곧 교육의 공동화(空洞化)와 연결되어 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는 폐광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제고,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태백시' 가 이 문제에 대하여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미 폐광지역의 민간기업인 '강원랜드' 에서는 '하이원 리조트 사회공헌위원회' 를 중심으로 폐광지역 미래 교육발전 전략을 위하여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사업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폐광지역의 교육지원 사업은 지역 교육여건 향상 및 지역인재 양성으로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대도시를 능가하는 학력향상 교육 프로그램(S/W)과 교육시설 환경개선(H/W)의 과감한 투자는 교육경쟁력 강화는 물론, 교육의 지역간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폐광지역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자체(태백시)의 획기적인 인식전환과 과감한 투자와 함께 지역교육청(태백교육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지자체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강원랜드' 등 지역 민간기업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 지역교육청에 있기 때문이다.

지역교육청은 폐광지역 지역주민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 공동 대응하는 유연성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정교한 교육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자체(태백시)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방세 수입의 일정 비율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하며, 지역교육청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의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도권을 가지고 '교육재정 투자 우선순위' 를 재설계하고 다양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다져 나가야 한다.

학교(교육기관)와 지역사회(지자체)는 성쇠(盛衰)를 같이하는 동일체로서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학교(교유기관)는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을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지자체)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과 '행정' 의 '역할과 책임' 에 관계는 기존의 고정관념에 젖어 기관간의 위상 및 권한 배분의 문제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지역주민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인적 자원이 중심이 되는 사회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우수한 인적 자원이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태백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

교육청에서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의 투자 확대를 이끌어 내고 교육재정 투자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깊이 있는 연구 ·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며, 효과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교한 기법까지 도출해 내야 한다.

이제 태백에서 폐광지역의 우울한 교육적 현실을 온 몸으로 목도(目睹)하고 있는 지금, 우리 교육계에 몸 담고 있는 모든 교직원은 그간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다시 한번 온 몸을 추스려 일어서야 한다.

그리하여 헌법에 명시된 '교육기회의 평등' 을 우리 태백지역의 아이들에게 시현(示現)하기 위하여 한시도 지체 없이 정진해야 할 절절한 책무성을 가슴마다 품고 있어야 한다. 끝.

교육소감

평생교육사 실습을 마치고...

방 부 자
공감가족상담소 소장

시작이 반이라는 말에 용기를 내어 몇 과목 씩 시작한 평생교육사2급 자격과정이 실습을 남겨두고 다 끝이 났다. 학교에 실습과목을 신청하고 실습기관을 찾고 있던 중 태백 문화원을 방문하게 되었다.

평생교육 기관인 태백문화원은 우리지역 전통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문화학교 9개 강좌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이 태백에서 가장 많이 운영되는 곳이어서 내가 찾던 곳이 바로 여기라는 생각에 실습신청을 하게 되었다.

평생교육이란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평생에 걸쳐 보장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교육활동 가운데 정규학교교육을 제외한 교육을 의미한다. 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란 평생교육을 주도하는 기관이 그 기관의 비전에 따라 학습자의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수립하는 지식과 경험을 포함한 모든 학습지원활동인데

태백 문화원 프로그램이 평생교육 교과에 나오는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산교육의 장소로 선택을 잘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론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체계적인 실습지도 내용이 좋았으며 이론 공부 할 때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것들을 실습

을 통해 체득해보니 더욱 흥미롭게 느껴졌으며 더욱 열심히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았다.

또, 평생교육의 실제 현장에서 교육 참여자들과 같이 호흡하며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해 보면서 실습할 수 있어 또한 다행으로 생각하였고 특히 찾아가는 문화학교가 인상에 깊었다.

경로당, 양로원,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곳에서 이루어진 태백 문화원의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발, 진행, 평가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게 해 주었는데 찾아가는 문화학교는 경로당, 양로원, 아동센터 등 문화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직접 학습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내용을 접하므로써 책으로 대할 수 없는 연령별 교수 방법에 대하여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연령은 각기 다르지만 참여하는 학습자들의 학습에 대한 열정과 내면에 흐르는 심성은 그다지 다를 것이 없음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참여를 지시해 주신 실습 지도자에게 감사드린다.

찾아가는 문화학교에서 보조강사로 가르친 것보다는 오히려 배운 것이 더 많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다양한 프로그램은 강사로서의 전문성, 교육내용지도방법, 강의 태도 및 자세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다. 특히, 무엇보다도 프로그램 진행시 강사의 마음가짐에 따라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더욱 더 열심히 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에 정진해야 함을 통감할 수 있었다.

평생교육사로서 교육실습은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유익한 시간들로 특히 프로그램 기획에서부터 설계, 실행, 평가, 마무리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평생교육사로 한걸음 내딛는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에 바쁘신 하루하루 시간시간 질문에 열심히 답해 주신 직원들께 감사드리며 훗날 내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나도 그렇게 지도 할 것을 배웠다.

처음 실습을 신청하였을 때 사무국장님(지도 선생님)이 실습생의 나이를 고려하여 직접 기관소개, 기관 안내를 해 주셨고 직원들은 실습생 나이가 많아 일반 학습자(교육생)로 착각한 문제로 약간의 오해가 있었지만 두 직원들의 많은 도움으로 실습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 그 문제 또한 많은 깨달음으로 공부가 되었다.

과제로 주신 프로그램 개발은 지도 선생님께서 상위 기관에 제안서로 제출 해 보신다고 하셔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지도 선생님은 실습기관 동안 프로그램 진행속도에 따라 실습자인 본인도 같이 성장하는 느낌을 받도록 지도 하셨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실습에 대한 효과를 충분히 실감하여 실전에 나섰을 때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실습생의 책임을 다하며 열심히 공부하도록 세세히 지도 하셨다.

태백문화원의 프로그램 뿐 아니라 평생교육사로서 자질을 갖추도록 면모를 갖추는데 손색이 없도록 하려면 노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지도 선생님이 칭찬과 함께 알려 주셨다.

그리고 태백문화원 프로그램에 참여한 문화교실 294명 수강생들도 나와 비슷한 생각과 목적으로 하루하루 교육에 임하였을 테고 많은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갔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한 면에서 태백 문화원은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원장님의 수료식 인사에서 “배우고 익히니 기쁘지 아니 한가” 라는 성현의 말씀과 “배움은 나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 라면서 태백 문화원이 평생교육의 목적을 전하실 때 마음 뭉클함을 느꼈다. 나이 들어 한 공부가 헛되지 않고 널리 이익이 되도록 하고 싶다. 실습을 잘 마치고 성장에 도움주신 태백 문화원 사무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문화유적지탐방

만해 한용운 생가를 찾아서..

허 주 리 사업주임

두근두근 쿵쿵.. 드디어 11월 1일 목요일.. 문화유적지 탐방을 가는 날이다..

이번 문화탐방 유적지는 홍성에 위치한 '만해 한용운 생가' 이다..

만해 한용운 생가라.. 사실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분이시다.. 하지만..그 분이 쓰신 시집 '님의 침묵' 이라는 제목을 듣고 그 시집의 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승려이면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였던 만해 한용운 선생을 만나기 위해 그의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은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문화원에서 인원 확인 후 1호차와 2호차 버스 두 대가 출발하여 여행이 시작되었다.

난 먼 길을 가야한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밤새 잠은 잔 듯 만 듯 했지만.. 예전 학교에서 소풍가는 날이 되면 기대감에 잠을 설치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들떠 있었다.

그렇게 버스에 앉아 창밖을 보니 날씨도 내 마음만큼 화창한 듯 11월의 쌀쌀한 날씨와는 달리 푸근함이 느껴졌다.

버스를 타고 홍성으로 향한지 6시간 만에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다.

역시 충절의 고향 홍성이여서 그런지 누구나 홍성에 오면 가장 먼저 만해 한용운선생을 기억해 낼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또한 홍성에는 만해의 생가뿐만 아니라 남장리 언덕에 세워진 그의 동상도 볼 수가 있다고 한다.

만해 한용운선생 생가에서 우린 가장 먼저 단체 기념 사진촬영 후 문화해설사님을 통해 만해 한용운선생에 대한 일대기를 들을 수 있었다. 만해(萬海) 한용운선생은 1879년 8월 29일 충남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에서 한응준과 온양 방씨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고, 본관은 청주이며 자(字)는 정옥(貞玉), 속명은 유천(裕天), 법명(法名)은 용운(龍雲), 법호(法號)는 만해라고 한다. 어려서 그는 서당에서 한학을 수학한 뒤, 향리에서 훈장으로 학동을 가르치는 한편 부친으로부터 때때로 의인들의 기개와 사상을 전해 듣고 큰 감명을 받았고, 그리하여 기울어 가는 국운 속에서 홍주에서 전개되었던 동학농민전쟁과 의병운동을 목격하면서 더 이상 집에 안주하고 있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 때문에 1896년 선생은 홀연히 집을 나서 여러 곳을 전전하다가 설악산 오세암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여기서 불교의 기초지식을 섭렵하면서 수도하다가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노령 시베리아 등지를 여행하고, 귀국 후 1905년 선생은 다시 설악산 백담사로 들어가 속세와 인연을 끊고 연곡(蓮谷)선사를 은사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셨다고 한다.

한용운선생의 생가 앞에는 그의 시집에서 볼 수 있었던 '님의 침묵' 이었다. 그의 사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님' 은 불자로서의 님 이라 하면 당연히 부처님이 되겠지만 독립운동가로서의 님 이라면 그건 조국을 표현한 것이었다. 보통 사람들은 단순히 님 이라고 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지칭하는 데 그치는 것을.. 그는 더욱 더 존귀한 존재로서의 님으로 승화시켰던 것 같다. 이런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불교에 귀의한 승려로서의 한용운선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시간이 흘러 모든 답사를 끝낸 후 우린 다시 버스를 타고 전국 제일가는 젓갈의 고장인 홍성광천을 향했다. 초입에 들어서자 읍내는 깨끗하고 조용했다. 한용운 선사의 고향이라면 관광객들이 많을 듯도 한데 평일이라 그런지 지나다니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젓갈시장을 도착하자 버스에서 내리기 무섭게 코를 자극하는 향을 느낄 수 있었다.

TV에서만 보던 토굴이라는 곳을 들어가 젓갈과 액젓 등을 보는 건 신기하고 좋았지만 코를 자극하는 냄새는 적응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여러 젓갈을 맛을 보고, 맛있는 김 또한 구매 했다. 역시 광천이라 그런지 그날따라 김 맛이 달리 느껴졌다.

그렇게 마지막 코스였던 문화탐방의 젓갈시장을 뒤로 한 채 우린 다시 버스를 타고 내 고향 태백을 향했다.

생각해 보면 강원도 태백과 서해에 위치한 홍성은 당일코스로는 힘든 여정이다. 하지만 그런 나와는 달리 어르신들의 어린아이와 같은 해 맑은 모습을 보니 그날은 '힘들다' 라는 마음보다는 다음에는 내 부모님 또한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이 문득 생겼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문화유적지 탐방이 놀고, 먹기만 하는 사업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태백문화원에 들어와 틀에 갇히지 않은 어르신들의 가장 행복하고 해 맑은 모습은 문화탐방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었다. 그 분들 또한 문화탐방을 통해 유적지를 방문 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내 자식들도 함께 왔으면..' 하는 마음이 드실 꺼라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좋을 것을 볼 때면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들을 생각한다고 한다. 그렇게 1년에 한번 있는 문화유적지 탐방은 잠시나마 가까이 있지만 소중히 느끼지 못한 가족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이번 문화유적지 탐방을 통해 난 배운 것이 많다.

우국충정(憂國衷情)이란 말처럼 나랏일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참된 마음을 만해 한용운선생님을 통해 조금은 알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함을 느꼈다.

초대시

가을이여! 안녕

丹野 김 창 진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우다가
어느덧
가을이 깊어만 가는 것을 느낍니다
간간히 불어오는
희뿌연 새벽 찬 공기가
옷깃을 여미게 하고
차가운 냉기가
나의 마음과 육신을 더욱 무겁게 합니다
동틀 무렵
연화뫼 능선으로부터
짙은 안개가 내리더니
어느새
자그마한 도시를 삼켜버리고
밤 지새우던 가로등도
하나, 둘
그 빛을 잃어만 갑니다
사라진 도시
그 한가운데에 서서

홀로라는 쓸쓸함에 눈물을 삼키며
깊어가는 가을을
가슴에 품으며
가을을 잊으려 몸부림 쳐 봅니다
회색장막이 드리워진 도심
그 안에서
나는
가을이란 나그네를 잊기 위해
바닥에 뒹구는 낙엽들에게
이별을 고합니다
안녕이란 단어로
가을이여! 안녕

短簫(단소)의 향기

丹野 김 창 진

내 어찌! 이 나이에 단소를 접하랴
민족의 얼이 깃든 대나무의 혼을.....

여민 손으로 단소를
가지런히 잡으며
여염집 아낙에게 입술을 포개듯이.....

여인의 갈색 입술에
나의 입술 살짝 포개어 본다.

두근거리는 마음 삭이면서
가만히 긴 숨을 들이키며
여인의 입술 속으로 살며시 미풍을 밀어 넣는다.

대통 속에서 흘러나오는
단소의 청아함과 단아함이
폐 깊숙이 저미어 오고

아름다운 음률은
한밝뫼 운무를 따라

연화뫼 산허리를 휘감아 돌아
나의 귓전에 가느다란
파장을 일으키며 여운을 남긴다.
(태)汰, (황)潢, (무)無, (림)林, (중)仲

장단에 흥을 돋우면서
限서린 우리가락 아리랑을.....
국립국악원 樂長이신 寬熙선생 장단에 따라

깊어가는 겨울 밤 헤아리지 못하고
아름다운 여인과 긴 밤을 지새우네.

긴 밤 함께 지새운
나의 여인이여!

그대의 고운 자태로 일구어낸
고운 소리의 향기가.....

하얀 눈꽃송이 되어
이곳 한밝의 땅 어귀마다 스미어 들어

옛 조상의 魂을 느낄 수 있게.....

독자기고

1. 개천을 한 목적

이 수 복
국민주권 의식 운동가

위 한인 안파견이 {홍익인간} 세상을 열라는 명을 따라 한웅이 한국시대에서 나와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배달국이라 했고 천신을 상제[上帝]라고 신명지어 신봉하고 개천을 했습니다. 홍익인간[弘益人間]세상을 열고자 나라를 새로 세우고 개천까지 했지만 역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천 후에도 문제는?

"한단고기 171쪽, {삼성말기}에서 말한다. 여기에 따르면," "[한국시대는 7대의 한인이 다스린 시간] 한국말기 다스리기 어려운 강한 족속이 있어, 이를 우환으로 여겼다."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인용하면, "한국말기에 다스리기 어려운 강한 족속이 있어 이를 우환으로 여겼다. 한웅께서는 나를 위해 삼신으로써 가르침을 삼아 무리를 모아 서약을 만드셔서 은밀하게 전제[剪除]의 뜻을 가졌다." 위의 우환 거리를 내 쫓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전제[剪除]입니다.

그때는 종족의 이름도 서로 달랐으니, 풍속도 차츰 달라져서 원래 살던 백성을 호랑이 [호족]이라 하고, 새로 살기 시작한 백성을 곰 [웅족]이라 했다." 그런데 호랑이는 성질이 탐욕스럽고 잔인하여 애오라지 약탈만 일삼고, 곰은 어리석어 사람을 따르지 않고, 사부하는 마음이 세어

조화되기를 거부하였으니, 더 필요한 부분을 인용하면 "깨우칠 수 없는 지라 이들을 사해로 쫓아 버렸다." 이 부분이 전제[剪除]입니다.

개천에 대한 이해

오늘날 대중들이 우리 것을 아는 것은 부족하고 일반 지식은 고지능 상태에 도달했고 어설픈 과학지식에 포로가 된 분들이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반면 기독교, 불교, 유교사상 등등을 접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우리 한민족의 개천[開天] 사상은 거의가 희박한 실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개천[開 天]을 글자 그대로 보면 하늘을 열었다는 말이 되어 혼동 또는 오해 소지가 다분합니다. 왜 대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역시도 처음엔 한웅이 어떻게 하늘을 열어 말도 안 되어 그렇게 불신했습니다. 지금 대중들 역시도 비슷할 것 갔습니다.

그래서 한웅이 직접 우주를 열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 답은 아닙니다. 우주를 연 개천이 아닙니다. 라고 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배달국 위로 한국시대가 장장 3301년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개천인가?

"한국(桓國)은 9부족 즉, 구한(九桓)으로 이루어진 나라로서, 모두 12개의 나라로, 비리국(卑離國), 양운국(養雲國), 구막한국(寇莫汗國), 구다천국(句茶川國), 일군국(一群國), 우루국(虞婁國), 객현한국(客賢汗國), 구모액국(句牟額國), 매구여국(賣句餘國), 사남아국(斯納阿國), 선비국(鮮裨國), 수밀이국(須密爾國)으로 이루어진 연방국이다. 동쪽으로 바다에 이르고 북으로는 흑룡강에 이르며, 서쪽으로는 사막과 삼위산에 이르러, 동서로 2만 리고 남북으로 5만리에 해당하는 영역을 가졌다고 기록되고 있다."

이때 여기서 천신을 믿고 받들며 살아온 민족이란 것입니다. 한웅께서 개천을 열 때 이 발전을 일으킨 7대 한인 안파견을 천신상제로 신봉했던 것입니다. 절대자의 그 유래가 바로 여기서 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북두칠성 사상도 바로 이 7대 한인 안파견을 상제로 개천한 여기서 부터 그 유래가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사람이 천신명을 지었다.

다시 말해 위 선대 조상들을 개천에서 천신으로 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 기록이 나오고 "모두 7분으로, 한인(桓仁), 혁서한인(赫胥桓因), 고시리한인(古是利桓因), 주우양한인(朱于襄桓因), 석제임한인(釋帝壬桓因), 구을리한인(邱乙利桓因), 지위리한인(智爲利桓因)통치와 한국시대 3301년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한웅 역시도 여기서 7대 한인의 명을 받고 여기서 나와 새로 세운 나라가 배달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이 내가 천신상제라고 하지 않았고 한웅이 사람의 몸으로 신명을 지은 것입니다.

배달국 한웅천왕은 ?

한국시대에서 나와 사실은 위 선조들 맥을 이어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천신께 예를 다하고 살아오며 스스로들 나라를 세우고 주인이 되어 그 결과 상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제를 그대로 천신이라고 한웅께서 인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민족의 개천입니다.

아래서 위의 뜻을 이어간다는 뜻도 되고 위와 아래를 놓고 풀때 아래는 땅이고 위는 하늘이 됩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 오랜 세월이 흐르며 하느님으로 사람에 의해 만들어 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한민족은 위를 하늘처럼 받든다는 예를 다 하고 위의 가르침을 아래서 본받고 배우고 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 의해 상제님이 천신이 되고

천신이 하느님/ 또는 하늘님 / 하나님/ 한울님/구천상제님/옥황상제님 등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개천을 함으로써 하늘에서 내려온 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천손이 된 것입니다. 하여 배달국을 세우고 제왕명이 한웅천왕이 된 것으로 봅니다. 태백을 밝히고자 이 땅에 내려온 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국은 18대 한웅천왕이 배달민족 맥을 잇는 제왕으로 이 땅에서 제왕정치를 재정립하신 분이 된 것입니다.

개천 사상 세 줄기

한줄기는 바로 상제[上帝]라고 한웅천왕께서 천신명을 지은 여기서 부터 그 문명의 기초를 재정립 하신 분이 한웅천왕입니다. 여기서 발달해 세상 만물명을 사람이 다 지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후손이 위를 받드는 예절 차원입니다. 천제를 통해 우리가 우리 역사를 말하듯이 각자도 자신들 개인 선조들 제를 지내고 선조들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고 위를 본받는다는 차원입니다. 이 역시도 개천문화발달로 봅니다.

두 번째 줄기는 인구가 팽창함을 따라 지구촌 곳곳으로 가나 곳곳에서 무리들이 모여 무리를 규합하고 단결하는 수단으로 이들이 나름의 천제를 만들어 써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또 발전한 것이 오늘날 세계 종교와 무속이라고 봅니다.

셋째 줄기는 나라를 세우고 배달국이라고 하고 당시 통치자가 18대 한웅까지 계셨으니 인간 세상에서 제왕정치를 여신 분입니다. 왜 배달국을 세운 1대 한웅천왕과 이어서 18대 한웅천왕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터 발달한 것이 전 지구촌에 제왕정치가 세상에 대유행했고 그 정치가 발달해 오늘날 현대 정치가 있게 하신분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개천 사상이 우리 생활 문화 기초를 재정립하도록 만드신 분이 BC3898년대1대 한웅천왕 거발한 우리의 한민족할아버지입니다.

"한단고기 72쪽에 따르면 이 맥을 타고 흘러 옛 조선 5대 한배검{단군}께서 명을 내려 태백산에 단을 쌓고 사자를 보내 제를 올리게 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이란 곳이 강원도 태백산 태백을 말하는지 어디를 말 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단, 확실한 것은 배달국에서 부터 나라가 하는 일이라 추정컨데 참석해 배운 분도 있을 것이고 듣고 배운 분도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배운 것이 우리도 우리 한민족 맥을 타고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생활에서 배워서 생활풍습을 이루면서 오늘날 강원도 태백산에서 지금도 천제를 제천하지 않은가 추정합니다. 배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공부 방법이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세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까지 이어오는 한민족의 개천사상으로저는 생각합니다.

선조들의 깊고 깊은 사람 사랑

한웅에게 천부인[天 符 人]을 내려 주시고 명을 내렸고 한웅도 홍익인간 세상을 열기 위해 개천을 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뜨거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이 없어도 우리 선조들 이렇게 사람을 사랑한 사실을 이제는 알자고 한민족 모두에게 제안합니다. 그 근거는 우리 민족의 모든 사상이 오직 사람에게 초점이 맞추어 졌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가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개천문화가 녹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을 열고 가르침을 세워 우리란 개천사상 입니다. 그래서 우리[宇 里]란 말도 우주[宇宙]를 한 마을로 압축 시킨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우주철학을 녹이면서 한국시대 한인께서 홍익인간[弘益人間] 세상을 열라고 천명하셨고 한웅은 위 가르침을 받아 홍익인간세상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한민국을 세운 주인 한민족이 인존, 상생정치를 열어 이 결과로 홍익인간 세상을 이제는 열자고 제안 합니다.이것을 우리가 만들어 이룰 때 바로 태백[太白]이란 광명을 우리가 만들어 맞이합니다.

따라서 언제고 시간이 될 때 인존, 상생정치제안[1 이 제목을 확인합시다. 여기서 부터 신 홍익인간 제도가 탄생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알 때만 우리들 희망 태백을 우리가 만들어 이룰 수 있습니다. 태백은 밝고 밝은 광명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 희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루고자 2008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현재까지 국민주권의식운동을 인터넷 공간에서 하루 적어도 3시간 이상씩 5년이 넘어가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중입니다.

왜 저절로 되는 것이 인간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의 이 깊은 사랑을 어찌 후손들이 되어 본받지 않으리까?이것이 태백 광명을 만들

어 가는 길인 것을., 이글도 그 노력 중에 하나란 것을 알려 드립니다.

2. 신, 홍익인간 세계의 제도 탄생

1]홍익인간[弘益人間]은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소수[小數]가 아니고, 대수[大數]가 이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수 강자들만 이로운 것이 아니고 강자와 약자가 두루 이로운 것입니다. 모두에게 돌아가는 이로움을 말합니다. 그 이해를 돕고자 예를 누구나에게 돌아갈 자신들 이권 몫을, 가로채는 자가없이 돌아가는 것을 말 합니다.

2] 인존[人尊]은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홍익인간을 만들어 낼 때 이 비슷한 생각에서 만들어 낸 것은 아닐까요? 지금까지 나만 귀하고 상대가 귀한 것을 서로가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왔고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서로가 자신이 귀하듯이 상대도 귀한 것을 인정하자는 이것이 인존 성립 입니다.

인존사상은 조선말 전라북도 고부군 객 망리로 태어난 강증산이란 분의 가르침을 인용합니다.

3] 상생은 인존성립 2]번이 될 때 상생하고 너와 내가 같이 공존하는 신뢰가 여기서부터 성립됩니다.

여기서 상생은 가장 작게는 너와 나의 신뢰를 말하고 가장 크게는 대한민국에서 시작해 세계로 발달해 세계 21세기의 새 질서를 열자는 제안입니다.

상생 역시도 조선말 전라북도 고부군 객 망리로 태어난 강증산이란 분의 가르침을 인용합니다. 물론 이것은 저가 한때 대순진리회란 종교와 인연이 있어서 여기서 종교를 통해서 강증산 이 분의 사상을 알았고 18년간 종교 체험과정에서 저로선 종교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종교를 떠나 2008년 10월부터 국민주권의식운동가로 활동을 하면서 이분의 사상을 생활에 응용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과거 조선 500년간 중국 공자 유교사상을 가져와 조선 국교로 삼고 우리들 생활에 응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점을 보고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응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홍익인간 제도에 인존. 상생을 응용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오해가 없기를 당부합니다. 이것은 분명코 생활에 응용하는 것입니다.

1]홍익인간을 이루기 위해서 2] 사람이 사람을 서로 소중함을 생각하는 인존의 성숙도가 성립되고 여기서 발생하는 너와 나의 관계가 상생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이로움이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할 홍익인간제도를 열수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응용합니다. 때문에 자신이 소중한 사람은 상대도 나와 같이 소중한 것을 이제는 인정합시다. 이것이 인존입니다.

이것은 인존 홈 미래 매뉴를 열면 인존상생정치 제안[1이 제목 속에서 본제안 1호에서 5호

까지 우리역사 정상복원제안 민족성제안 민족근근제안 새가족맞이제안 5호의 경우는 구급 공무원에서 대통령까지 국사 1시간/ 우리미풍양속 1시간/ 인존 상생 1시간/ 1일 3시간씩 이 교육을 4회를 받는 자만 나라 일을 할 자격을 주도록 한민족인 우리가 만들어 가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제안을 도안으로 나타낸 것이 제공된 이 도안입니다.

이 교육에서 인존 교육이 우리 선조들이 전한 민족경전이 있는데 대중의 눈높이에 맞도록 다듬어서 잃어버린 도덕을 되살리는데 응용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물론 인존 상생정치를 우리들 힘으로 열었을 때만 본 제안이 현실이 됩니다. 이것을 대비한 그 대책이 바로 제안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런 세상 새 희망을 열어 가자는 제안으로 봐야 그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립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우리가 원하는 새 희망의 그림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그림이 마음에 들면 우리 모두가 만들어 가자는 것을 알리는 것이 제안의 취지란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 주인인 우리들 자신이 깨어나 그 필요성을 느끼고 만들어낼 방법을 따라 만들어낼 때 그래서 제안이 현실 정치노선이 될 때 여기서 부터 정치가 이런 교육을 국민들 뜻을 따라 법이 바뀐 그 기준을 거역하지 못해 인존 상생정치를 열고 그래서 자리매김을 하고 그래서 정치가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이것이 현실이 될 때 현재 영호남 갈등을 조화로 바꾸게 되고 사회 곳곳에 타락된 도덕기준이 새로 살아 날 것으로 예상 합니다.

이것이될 때, 다 방면으로 준비되어야 할 남북통일 준비 중에 한 측면, 인간관계 성숙도가 여기서 덤으로 마련됩니다. 왜 진정 정신적으로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남북통일도 무리 없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될 때 홍익인간 의식이 우리들가치로 이해가 충분히 되어서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란선조들 가르침이 점차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때문에 이제는 홍익인간을 열기위한 제도로 연결할 인존 상생정치를 열어야 할 필요성 명분이 이제는 더욱 확실해 졌습니다. 5년 동안 수 없이

많은 생각을 청한 끝에 신, 홍익인간 세계를 열 제도를 이제찾았습니다.그래서 인존 상생정치를 모두가 함께 열어 가자고 한민족 모두에게 이수복이 제안합니다 .

제안자의 고백

우리 할아버지들이 홍익인간에 쓰신 그 제도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전해오는 단어만 막연히 알았습니다. 따라서 실지로 쓸 이 제도 하나를 찾는데 저는 국민주권 의식운동 5년과 우리역사 정상 복원하기 운동 3년과 헌법위헌 집단소송을 추진도 동시에 병행 하는 가운데 그동안 생각에 생각을 끝없이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존이란 단어를 수 없이 쓰고, 상생이란 단어도 수없이 쓰고, 홍익인간이란 단어도 썼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세 가지 사상을 연결지으면 홍익인간 제도가 된다는 그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 사상을 따로놓고 연결 지으면 발생할 그 효과를 전혀 깨달지 못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상 중에서 연결된 것은 민족회의 카페에서 [홍익상생]이란 단어를 구경한 것이 전부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상생이란 단어를 5년이 넘도록 유포시키면서도 이 세 가지 사상을 연결하는데 2012년 12월 3일에 겨우 깨달았습니다. 무지자가 깨닫기란 이렇듯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사상 중에 핵심은 인존입니다. 왜 사람이 사람의 귀함을 실지로 생각지 못하면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면 홍익인간 세계가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추정컨데 홍익인간을 국가이념으로 설정한 우리 할아버지들 그 마음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 생각이 민족의 맥 속에 내재되어 흘러와 조선말 강증산에 의해서 다시 인존으로 표출되고 상생으로 표출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왜 증산 이분도 우리 민족 중에 한분이고 앞에 다녀가신 선각자고

이분이 이르시길 옛 법으로 부터 도가 나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정신과 마음이 없다면홍익인간이란 단어가 발생 할 수가 없었다고 봅니다. 진실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한 그 근거가 있어서 홍익인간이란 단어가 발생 했다는 것입니다.

인존상생은 아닐지라도 비슷한 어떤 제도가 홍익인간 이념 속에 들어 있어 그 결과3301년이란 역사 시간을 써왔다고 봅니다. 때문에 위 할아버지들께 깊은 감사를 마음으로 올리고 이 세 가지 사상을 연결할 것을 할아버지들에게 마음속으로 고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상을 연결한 홍익인간을 신 홍익인간세계라고 그이름을 지어 한민족 모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신, 홍익인간세계를 예를 들면, 남녀가 사랑이 깊어지는 이 자체가 인존입니다. 그래서 함께 부부가 되면 이 상태가 바로 상생입니다. 따라서 2] 3]번이 연결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신 홍익 인간세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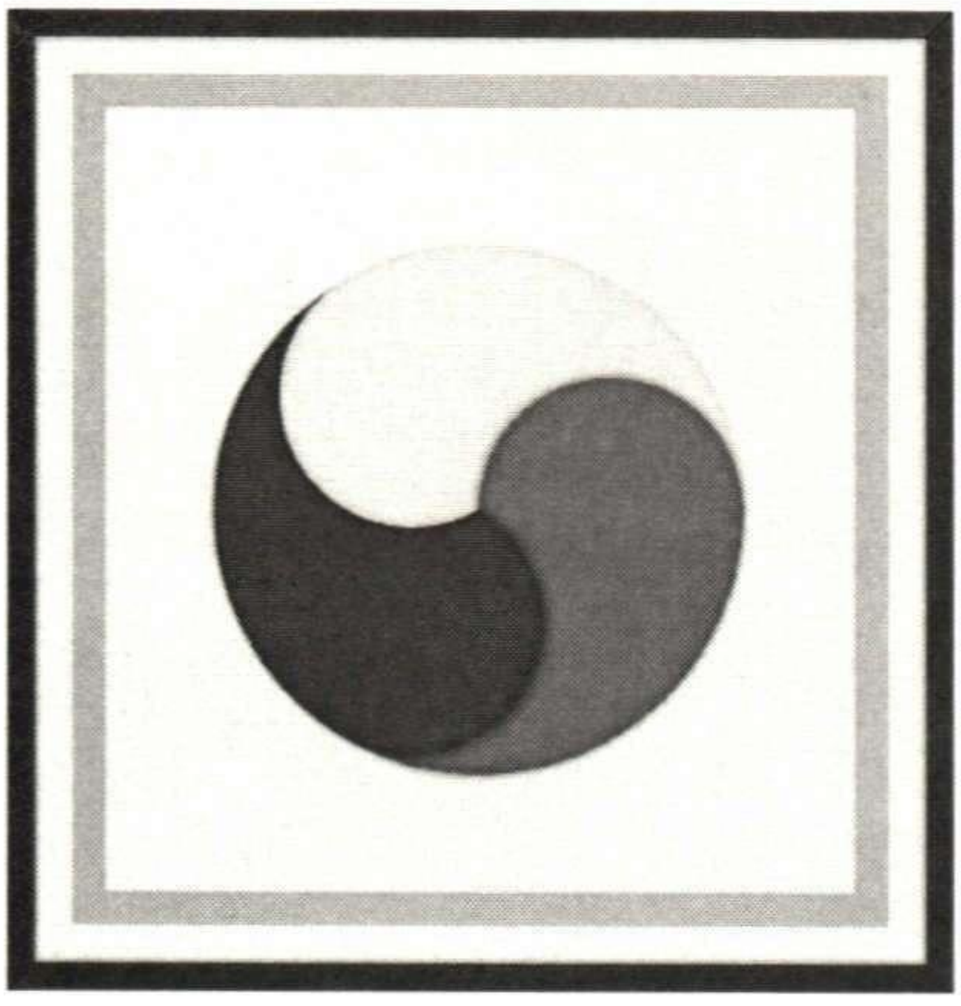
예를 들면 남여가 부부가 되어서 서로가 인존하고, 상생하며, 일생을 서로 사랑으로 자식을 낳고 기르며 일생을 같이 살아가는 이치입니다. 따라서 언제고 시간이 될 때 인존 상생정치 제안[1 이 제목을 확인해 봅시다.

바로 여기서 제안 되는 내용이 태백 광명을 만들어 이룰 제안입니다.

삼태극의 황색역활 國民이 한다.

삼태극은 중심 한국시대 한인좌측 배달국 한웅천황 우측 옛 조선 한검 위 선조들이 전하사 민족 맥을 타고 아래로 아래로 지금까지 전해왔다. 따라서 너도 나도 삼태극이 우리것이란 것 정도는 알지만 삼태극에 담긴 예언을 아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1. 국민이 삼태극의 황색
2. 여당 홍색
3. 야당 청색



국민들 속에서 나온 불같은 여당과 물 같은 야당이 상생 조화를 이루도록 할 자가 국민밖에 없다는사실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에서 논뚝길을 걷다말고 2008년 10월부터 노력해 오던 국민주권 의식 운동을 여기서 삼태극으로 또 깨달았습니다.

홍익인간[弘益人] 놓고 여기서도 끝없이 이화세계 [理化世界]를 여행하다 2012년 4월 29일 오후 13시26분에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역활은 5년전에 알았지만 삼태극에서 황색역활을 국민이 해야 된다고 하는 그사실은 이때 깨달았습니다.

삼태극의 비밀을 풀면 흙 기운이 언젠가는 우주의 가을천기를 만날때가 있다고 예언되어 전해온 뜻이 황금색[黃金色]입니다. 왜 黃은 5, 10土 흙기운 말합니다. 황금색에서 金은 4,9金 기운을 말합니다. 금은 작게는 땅에서 매년 보여주는 가을도 말하지만 크게는 우주의 가을천기가 열리는 서신 사명[西神 司命]의 기운을 말합니다.

따라서 언젠간 한번은 흙기운이 금기운을 만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예언한 것이 흙 황색+금 백색= 결과= 이 두가지 색을 합성한 것이 토금색[土,金=色]으로 이것이 지금 노란 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태극에서는 황금색이란 것입니다.

이 예언을 담고 있는 색이란 것입니다.

때문에 과거 제왕들이 용상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는데 그 용상의 그림이 황용을 넣고 황금 도포를 입고 불교 석가모니 동상에도 황금색을 입혀 놓고 우리들 자신도 금붙이를 백금 보다 황금을 선호하며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실에서도 만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황금이 아닌가? 일명

금괴를 말합니다. 전지구촌의 인류가 너도 나도 선호하는 것이 바로 황금이란 것입니다. 황금같은 인기를 백금이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듯이 황금색은 태고로 부터 우리 한민족 선조들이 삼태극에 담아 세상에 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때가 되지 않아 그 비밀이 밝혀지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오다 이제 그 때를 만나 세상에 이 비밀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자연으로 풀면 가을을 맞아 빨갛게 잘 익어 홍실이 달콤한 제 맛을 내는 이치와 같습니다. 따라서 때가 되지 않으면 풀지 못하는 것이 하늘의 일이고 또한 아무나 쉽게 풀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따라서 쓸데 없는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삼태극에서 빨간색은 불기운이다. 파란색은 물기운 여와 야가 대립하는 것은 불과 물이 싸우는 이치다.

이런 정치권에 나라주인들이 나서서 사람세상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인존세상을 선포하고 상생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이며 삼태극의 황색역활을 국민이 하는 것이다.

작게는 이것이 한국을 위한 것이고 크게는 세계 인류平化를 정착하는 것이다. 왜 평화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고 화평[化平]은 될化 평평할平으로 인존 상생시대를 21세기에서 한국이 먼저 열고자 한다.

왜 정보가 불꽃 튀는 이 세상에서 선방치는 우선권은 후일 인존세상이 발달했을 때 그 영향이 우리 후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작용을 해주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한국에 국적으로 두고 태어난 까닭에 내 나라와 내 민

족과 우리 후손들에게 신경을 먼저 쓰는것이 순서이기 때문이다. 또한 만들어 이루는 인간에 나도 해당하기 때문이다.

우리 국운 5,10土

지구촌에서 봄, 여름에 나간 모든 것이 가을을 맞아 열매도 잎새도 다 땅으로 돌아온다. 이와 같은 이치로 우주의 봄, 여름천기가 돌아갈 때 흙기운을 받고 살아온 우리민족속에서 갈라져 나간 모든것이 우주의 가을천기를 맞아 한민족에게 돌아옵니다. 이 의미가 삼태극에서 보여주는 황색 황금색에 암시된 우리 국운입니다. 땅에서 나간 모든 것이 가을에는 다 땅으로 돌아오는 이치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이미 1995년 7월 30일 태백인근 두문동산 정상에서 네 가지 八卦圖를 풀고 여기서 밝혀진 네가지 천기[天氣] 종류를 여기서 풀어 밝혔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깨달아 온 것이 축적되어와 삼태극에 숨겨 전해오던 황색의 그 비밀이 지금와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삼태극에서 황색역활을 할 사람은 한국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5,10토란 흙기운을 받고 살아온 민족이 이 지구촌에서 한민족입니다.

그 근거는 정확한 사계절이 세계에서 가장 정확히 돌아가는 이것이 바로 5,10토란 흙기운을 받고 살고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때문에 이 운을 알고 운을 받는 그릇을 이루려는 노력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운이 열린다고 말하고 운이 저절로 좋아져 福이 되는 줄 아는 이들이 많은 실정인데 내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보는 運은 밥상을 받은 이치와 같다고 봅니다. 때문에 運을 받는 이 노력은 날마다 하루 세 번씩 밥 먹는 손놀림을 통해서 누구나 노력해야 밥 먹고 산다는것을 우리는 배워 왔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노력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운이 좋아도 노력하지 않으면 그 운은 뜬구름 같은 것이 운이란것을 또한 밝힙니다. 운이 열린것을 미리 내다보고 이것을 받을 그릇을 만들고 그래서 운을 받는것이 지혜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2012찾아가는 어르신문화학교(규방공예)

사업담당 : 허주리 주임

■ 사업 소개

▶ 사업명

첫 바늘 땀 과 한 땀 한 땀의 여유..

▶ 핵심키워드

규방공예를 통한 집중력 향상으로 어르신들의 생각의 눈을 뜨게 하라.

▶ 사업목표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생활예술이며 전통기술로 옛것을 소중히 여기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유의 전통문양기법을 알려드림으로써 배움의 가치를 알고, 서로 협동하여 활발하게 움직임으로서 육체적. 심적으로도 밝고 활달해져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된다.

▶ 사업 개요

기　간 : 2012년 6월~11월(총6개월)

장　소 : 삼수효자 경로당. 동점동 행복 경로당

수혜자	인원	산출근거	비고
1차 수혜자	50명	각 동의 경로당 25명 기준 (삼수.동점경로당)	
2차 수혜자	60명	각 지역복지관 60명 기준 (기관방문 3곳)	자원봉사

▶ 사업내용

공예품이 생활용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많은 각광을 받고 있다. 월1회 1시간30분씩 선정된 경로당 2곳을 총 20회 방문하여 남.녀노소 60세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바느질부터 시작하여 방석, 다포, 무지개 속보, 식탁보, 커텐(가리개), 등등 다양한 실용품을 만들어 나감. 또한 이수한 어르신들과 지역 복지관 3곳을 방문하여 규방공예 자원봉사를 나간다.

삼수호자경로당 이야기

ㅇ 실 바늘과 사투중

● 동료 작품 도와주기

ㅇ 바느질의 편한자세

● 초 집중 상태

ㅇ 잠시 쉬는시간

● 내 작품 자랑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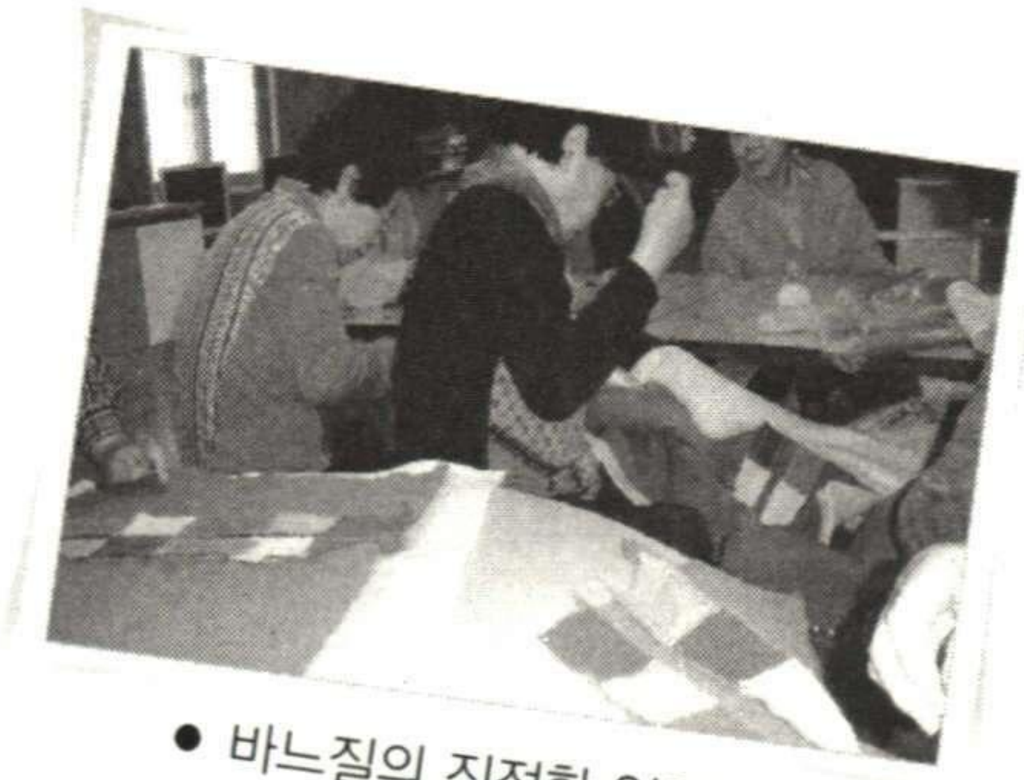
ㅇ 다함께 바느질 고고씽

● 에이스의 바느질 포스

ㅇ 완성 단계의 작품

정행복경로당 이야기

ㅇ 규방공예 듣고, 배우기



● 바느질의 진정한 일인자

ㅇ 어르신 작품 인증샷

● 오순도순 사이좋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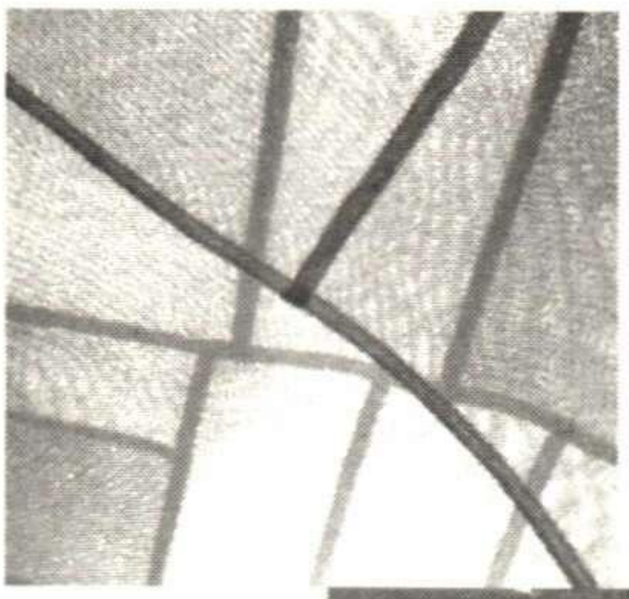
ㅇ 정성과 인내의 힘

자원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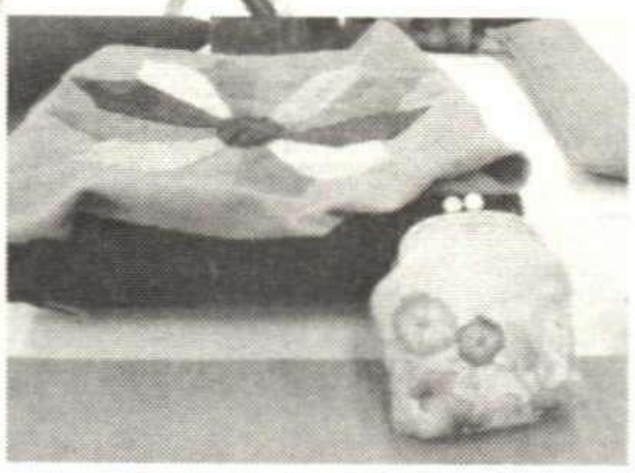
✣ 노인전문요양원

✣ 태백실버요양원

✣ 안식의 집



규방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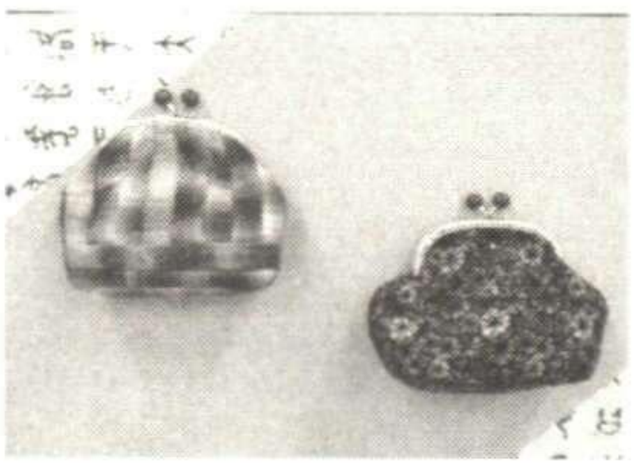


색동 꽃잎. 삼수동

어화둥둥. 삼수동

아장아장. 삼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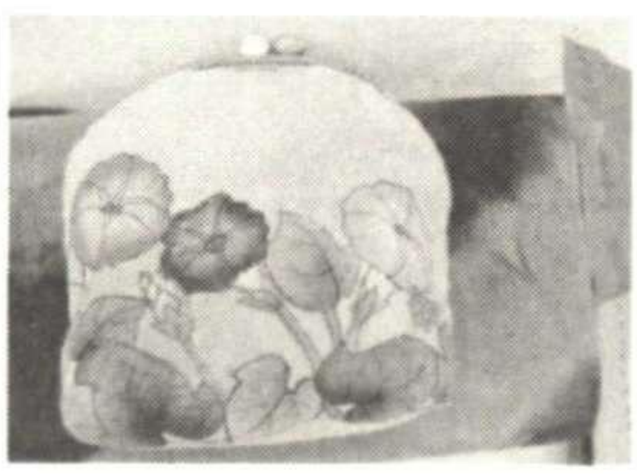
학창시절. 동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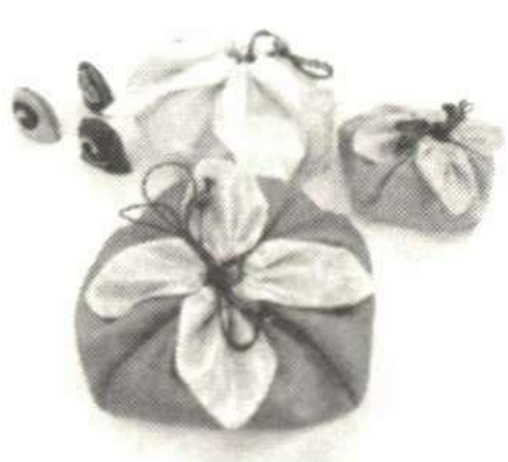
부자의 꿈. 동점동

옛 시절. 동점동

따뜻한 자리. 삼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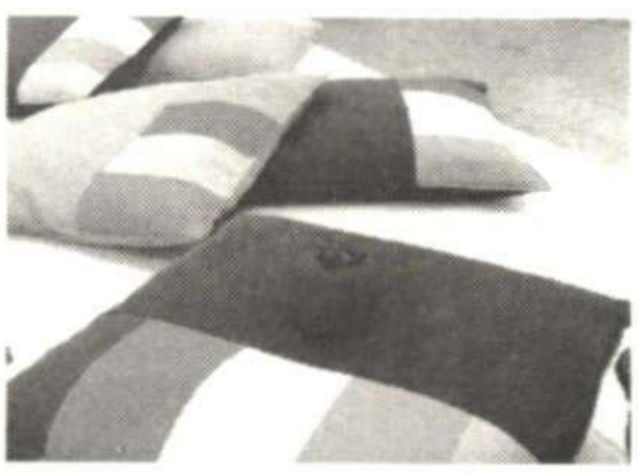
나팔의 꽃. 삼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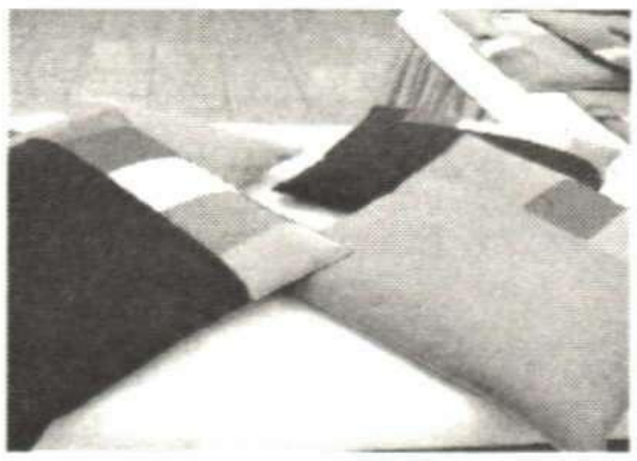
행복만땅. 삼수동

색동가방. 동점동

여자의향기. 동점동



첫 만남. 동점동



우리자리. 삼수동

그대와 함께. 동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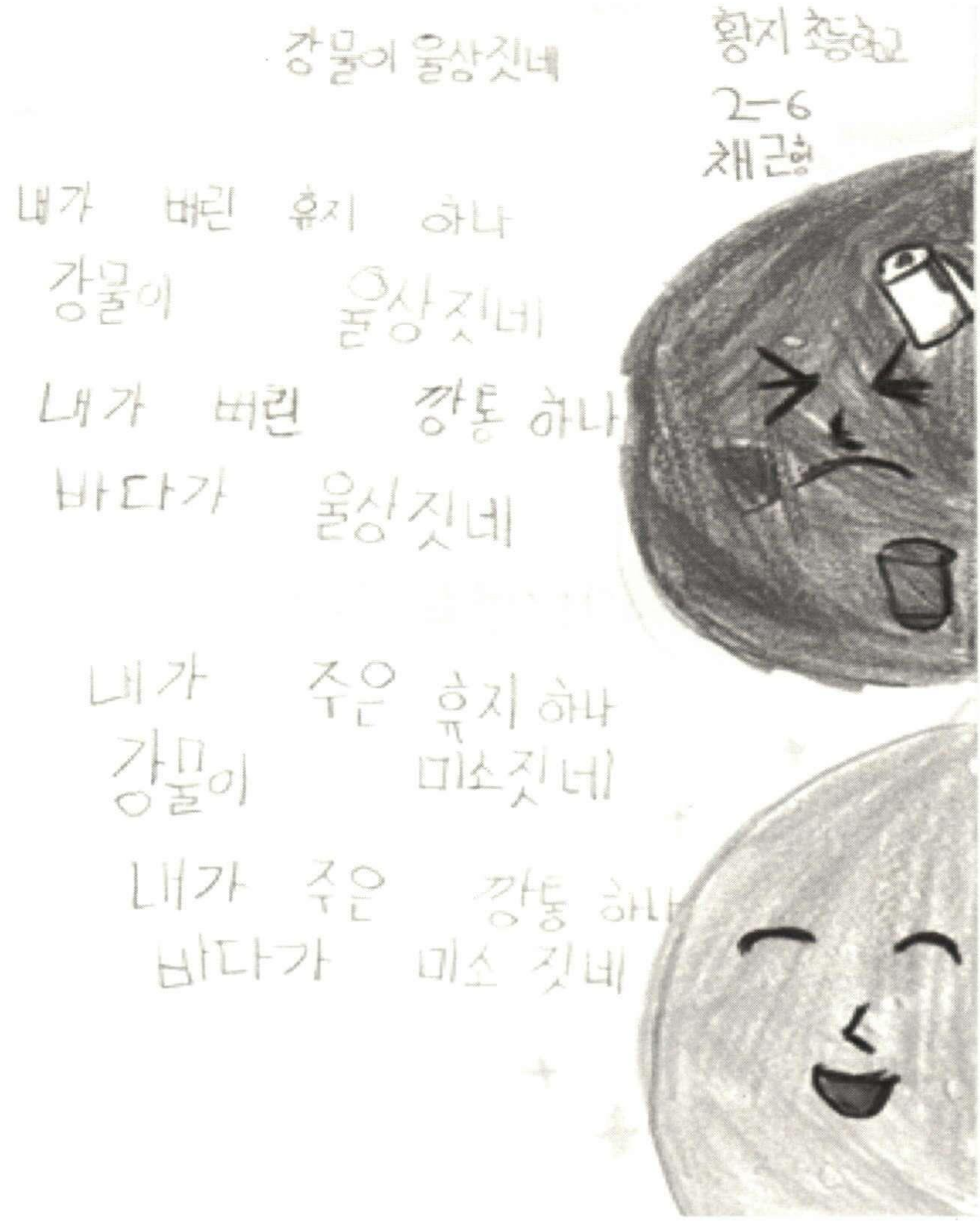
전통의 향. 삼수동

전시회 전경

2012 꿈나무공모전수상작

▣ 초등부 저학년 |최우수상|

황지초등학교 2-6
채 근 형



▣ 초등부 저학년 |우수상|

내 고향은 태백

황지중앙초등학교 3-2
이 우 호

연못 가득 펑 펑 펑
어딜 가나 했더니
모두의 바램 싣고
낙동강으로 흐른대

푸른 숲 속 퐁 퐁 퐁
어딜 가나 했더니
더 많은 곳 도움 주러
한강으로 흐른대

흐르고 흘러서
해야 할 일 다 마치면
시작했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겠지?

▣ 초등부 저학년 |장려상|

물의 소중함

황지초등학교 1-2
조 세 현

우리에게 물은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의 물이 약 3%라도 모 자르게 된다면 우리는 탈수증에 걸릴 것입니다.

게다가 밥은 일주일 못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물은 3일만 못 마셔도 죽게 됩니다. 그 만큼 물은 우리 몸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2010년도에 태백시에 단수가 되었을 때 시간마다 샤워를 하고, 물을 받아놓고 써서 많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물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2011년부터 물을 소중히 여기려고 학교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안내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물을 아껴 써야겠습니다.

물은 순환됩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는 공기 중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물이 오염되지 않게 세제, 샴푸, 린스, 비누 등을 적당히 쓰고, 씻거나 이를 닦을 때 물을 받아 놓고 쓰거나, 수도꼭지를 꺼 놓습니다.

그리고 변기에 벽돌이나 물을 담은 페트병을 넣어 두면 물이 들어갈 공간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어서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물의 소중함을 아시겠죠?

지금부터라도 제가 가르쳐드린 방법으로 물을 아껴 쓰도록 합시다.

▣ 초등부 저학년 |입 상|

물

황지초등학교 2-4
손 준 호

물은 요술쟁이
냄비에 들어가면 모락모락

냉장고에 들어가면 꽁꽁
가는 곳 마다 다른 소리 다른 모양

물은 마술쟁이
화초들을 활짝 쑥쑥

더러운 건 뽀득뽀득
어디서나 무엇이든 마법처럼 바꿔주네

▣ 초등부 저학년 |입 상|

황 지 연 못

동점초등학교 2-목련반
장 세 민

퐁 퐁 퐁 졸 졸 졸
끝없이 솟아 나오는
낙동강의 시작 황지연못

모두모두 싹 싹 싹
행운을 빌어 보자
황지연못 속 동전던지기

소곤소곤 속닥속닥
노랭이 황 부자 집 며느리
돌이 된 전설을 들어보자

▣ 초등부 저학년 |입 상|

물소리가 좋다

행복한지역아동센터 2학년
김 종 우

물소리가 좋다
천둥소리 같다
얇은 옷 입고 오길 잘 했다

시원한 그늘 물소리
은으로 만든 것 같다
올챙이 한 마리만 잡고 싶다

▣ 초등부 저학년 |입 상|

재미있는 물소리

황지초등학교 1-3
유 서 이

물은 소리가 있다네
졸 졸 졸, 콸 콸 콸 재미있다네

물고기들은 좋겠네
늘 재미있는 소리가 있는

강에서 사니까
물은 쉼 없이 흘러간다네

▣ 초등부 저학년 |입 상|

물은 식량이다

황지초등학교 3-3
이 금 아

지난 3월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한국 물 포럼 박은경 총재님은 "물은 그 자체가 식량이에요." 라고 말씀하신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다.

왜냐하면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물은 우리가 먹는 식량을 키워내고 또, 전기 등 다양한 에너지를 얻는데도 쓰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2005년 물 부족 국가로 분류 되었다.

강수량은 많지만 여름에만 집중되고 빗물이 대부분 하천을 따라 바다로 흘러가 버려서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적다고 한다.

만약, 빗물을 많이 모아두면 생활용수로 이용할 수 있고 도시의 온도를 낮춰 주는 기능도 한다니 반드시 물을 저장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얼마 전에 지구촌 나눔 가족 "희망편지" 를 쓴 적이 있다.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자말" 이라는 친구가 아픈 가족을 위해 물을 멀리서 길어와 빨래를 해서 번 돈으로 생활하는 영상을 보면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낄 수 있었다.

엄마께서는 몇 해 전 이곳 태백의 물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때를 말씀 하신다. 모두가 불편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과학이 점점 발달해서 우리의 생활은 편리하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은 빠르게 파괴되어 간다.

온난화로 인하여 빙해, 히말라야 산맥이 녹고 바다는 오염으로 아파한다.

자연, 인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물 한 방울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것이다.

늦기 전에 우리 다 같이 물 절약을 실천해 보자.

▣ 초등부 고학년 |최우수상|

물길 따라 오세요

철암초등학교 6-1
강 채 현

해마다 우리 고장 태백에서는 한강발원지 '검룡소' 에서 한강대제가 열린다.

한강의 용왕께 제사하는 용신제안 검룡소 물먹기 대회 등의 행사로 한강의 발원지로 국토의 뿌리인 태백을 알리고 소중한 물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축제 행사다.

석탄도시 또는 폐광촌이라 불리는 태백에서 사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을 생각할 때면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과 둘째 도시인 부산이 태백에서 시작된다는 자부심으로 어깨가 으쓱해지곤 한다.

이렇게 해발 700m에 위치한 태백만의 자랑이다. 우리 태백시에는 명산 중의 명산인 태백산이 있다. 태백산은 천제단이 있는 영봉을 중심으로 북쪽에 장군봉, 동쪽에 문수봉, 영봉과 문수봉사이의 부쇠봉 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에는 고산식물이 자생하고 봄이면 산철쭉, 진달래의 군락지가 등산객을 맞이하고 여름에는 울창한 수목과 차고 깨끗한 계곡물이 한 여름 더위를 잊기에 충분하다. 가을에는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수놓으며, 겨울은 흰 눈으로 뒤덮인 주목군락의 설경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산이다.

태백산 입구에는 석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석탄박물관이 있고,

겨울철에는 대규모의 눈썰매장이 문을 연다.

낙동강 1300리 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은 태백시내 중심부인 황지에 있으며 하루에 5000톤의 물이 솟아오른다. 황부자 전설에 따르면 이 황지연못은 욕심 많은 황부자의 집 지리고, 마음착한 며느리는 바위가 된 채 산등성이에서 이곳을 바라보며 서있다고 한다.

태백으로 찾아오시는 길은 서울 분들은 한강, 부산 분들은 낙동강 물길 따라 오시면 된다. 꼭 꼭 오세요..

나는 이런 태백시에서 살고 잇는 것이 기쁘다.

태백시는 미래의 땅이고, 세계에 자리 잡을 한국에서 제일가는 "태백시" 자랑스러운 나의 고향이다.

▣ 초등부 고학년 |우수상|

기다란 우리 꿈

태백초등학교 6-1
김 진 경

기다란 물줄기
이 물줄기는 어디로 갈까?
저어기 길 고 먼
낙동강으로 가나봐

끊임없이 흘러가는
낙동강 물줄기는
크고 기다란
우리들의 꿈과 닮았다

기다란 물줄기
우리 꿈처럼 크고 기다라네
저어기 끝에 가면 뭐가 있을까?

보물이라도 있을까?
아니면 먹을 것이 잔뜩 있을까?
돈이 잔뜩 있을까?

뭐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기다란 물줄기는 끊임없이
계속 계속 흘러간다

▣ 초등부 고학년 |장려상|

물을 아끼는 방법

철암초등학교 4-1
박 윤 경

우리 지구의 물은 많지만 그 대부분이 바닷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수로 사용할 수 있고 생활에 필요한 데에 사용 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에는 많은 나라들이 물 부족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라고 합니다. 몇 해 전에 태백에도 물이 나오지 않는 단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방차나 차들이 물을 가져오면 사람들이 물통을 받아와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해도 차들이 오지 않으면 물을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물을 아껴 쓰는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을 아껴 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도 물이 정말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필요로 해서 물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나 생활에 물이 필요할 때, 물을 마시지 않거나 농작물이나 식물에게 물을 주지 않거나, 씻지 않게 되면 우리의 생활은 불편해집니다.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금이나마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물을 절약하면 되는데요. 그 방법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실천이 쉽게 되는 일이죠. 먼저 씻을 때 세수를 하거나 양치질을 할 때에 적당히 물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또 머리를 감을 때에도 샴푸를 조금만 사용하면 물을 조금 더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또 목욕을 할 때에 욕조에 물을 틀어놓고 하지 않고 샤워기로 적당량의 물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물을 사용하고 나면 꼭 수도

꼭지를 잠그고 샤워하는 시간도 줄이면 물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빨래를 할 때 빨래를 한꺼번에 모아서 하게 되면 빨래를 하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물이 더 아껴지게 되고요. 또 세탁을 할 때에 합성세제의 사용량을 줄이고 그 대신에 천연세제나 저공해 세제를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 물을 받아놓고 하거나 변기통에 벽돌을 넣어서 하면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방법들은 실천이 가능하고 간단해 보이지만 이 정도에 방법들만 실천해도 우리나라 물이 없어지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 부족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노력해서 물이 없어지는 것을 막아보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초등부 고학년 |입 상|

황지연못

황지초등학교 6-3
설 아 연

내가 엄마 따라 시장에 갈 때 항상 지나치거나 들리는 곳, 바로 낙동강의 발원지 황지연못이다.

연못에 들릴 때에는 동전을 던져서 행운을 알아보는 것을 한다. 점괴를 볼 때마다 꽝이면 미신이 라고 생각하고 당첨이면 진짜 점괴로 생각한다.

그리고는 연못다리에 올라가서 밑에서 흘러가는 물을 본다. 그 물이 낙동강의 일부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 신기하다.

그 물은 목적지인 낙동강에 도착할 때 까지 휴게소도 없이 계속 흘러 갈 것이다.

그런데 그 물에 침을 뱉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실제로 엄마께서 있으셨던 이야기인데 다른 지역에서 온 단체 애들이 물에 침을 뱉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엄마께서는 한 소리 해줬다고 한다. 어떤 물이든 간에 모두 소중하다.

우리나라는 특히 물 부족 국가여서 더욱더 소중하다.

낙동강 옛 선조시절에도 계속 있었던 강이므로 우리가 보존하고 잘 지켜 줘야 한다.

▣ 초등부 고학년 |입 상|

비를 기다리는 나무

태백초등학교 5-1
장 보 인

따사롭게 비친 햇볕아래
축 처진 나무는 가지로
비님에게 보낼 편지를 쓴다.

바람이 부는 날
집배원이 올 때까지
편지 보낼 날을 기다린다.

휘 잉 휘 잉
집배원은 비님에게
나무가 보낸 간절한 편지 한통을
배달한다.

편지 배달이요!!
그 편지에는
나무가 비를 너무나 기다린다고
빨리 오지 않으면 죽어 간다고

마침내
나무와 비가 만나는 날
나무는 예전의 푸르고 싱그러운 모습으로
돌아가 웃고 서 있다.

▣ 초등부 고학년 |입 상|

우리의 동반자 물

태백초등학교 6-1
김 찬 빛

산과 들로 바다로 흘러
빙글빙글 맴 도는 물
있는 듯 없는 듯
우리 곁을 지켜주는 물

그러나 우리는
더럽히고, 써버리고, 비웃으며
물을 모욕한다.

물은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믿고 기다리다가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외면하고 멀어져간다

가뭄이 들고 물이 부족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 우리는 후회 한다

아! 그때, 그 맑은 물 그립다
후회는 늦으리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물을 지키고 아끼자

물은 영원한 우리의 동반자

▣ 초등부 고학년 |입 상|

방울방울

태백초등학교 6-1
황 현 희

똑 똑 똑 물이 떨어지네
꽃잎에 방울방울

똑 똑 똑 물이 떨어지네
풀잎에 방울방울

똑 똑 똑 물이 떨어지네
땅에 방울방울

똑 똑 똑 물이 떨어지네
바닥에 방울방울

또 륵 또 륵 물이 굴러가네
수도꼭지 저 끝으로

또 륵 또 륵 물이 굴러가네
계속계속 떨어지네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물

똑 똑 똑 물이 멈췄네
미안해 물아

▣ 초등부 고학년 |입 상|

수도꼭지야 미안해

태백초등학교 6-1
정 혜 진

또르르 툭
수돗가에서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내가 가본 수돗가엔
여러 개의 수도꼭지가
조금씩 울고 있었어

하지만..
수도꼭지를 달래주는 사람은 없었어
울리는 사람만 있을 뿐이지

수도꼭지야 미안해
앞으로는 네가 울지 않게
수도꼭지를 꼭 잠그고 다닐게

◆ 태백문화원 연혁 ◆

1984. 1. .	황윤덕씨 등 19명이 태백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 구성
1984. 8. 17	문화원 공보부 법인설립허가. 황윤덕 초대원장 취임
1984. 10. 1	태백시 장성동 69-2번지에 태백문화원 개원
1985. 7. 18	운영위원 위촉 이진호씨 등 12명
1986. 12. 31	민속놀이 "태백갈풀썰이" 등 12개 사업완료
1986. 2. 27	제2차 정기총회 개최
1986. 7. 21	문공부로부터 정관변경허가. 부원장제도 신설
1986. 12. 31	청소년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 15개 사업완료
1987. 2. 24	제3차 정기총회 개최
1987. 12. 31	"태백문화" 지 창간호 발간 등 13개 사업완료
1988. 3. 24	제4차 정기총회 개최
1988. 8. 16	임시총회 개최
1988. 12. 31	사시랭이발굴사업 및 웅변대회 등 10개 사업완료
1989. 3. 24	제5차 정기총회 개최
1990. 3. 6	제6차 정기총회 개최 - 정관개정
1990. 6. 13	문화부지정 90년도 시범문화원 선정
1990. 10. 16	임시총회 개최 - 김영훈 부원장선출
1990. 12. 31	불우소년소녀가장돕기 통기타콘서트 등 14개 사업완료
1991. 2. 26	제7차 정기총회 개최
1991. 12. 31	폐광기록사진집 "막장사람들" 발간 등 12개 사업완료
1992. 2. 27	제8차 정기총회 개최
1992. 12. 31	전통향토음식솜씨대회 등 13개 사업완료
1993. 8. 17	제3대 우성조 원장 취임
1993. 12. 31	효자비건립 등 15개 사업완료
1994. 4. 18	문화체육부로부터 한국문화학교 태백문화학교 설립인가
1994. 12. 31	문화학교 운영 등 16개 사업완료
1995. 2. 25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1995. 12. 31	태백문화 제9집 발간 등 15개 사업완료
1996. 2. 25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1996. 10. 25	신축문화원 원사 이전
1996. 12. 9	태백문화원사 준공식
1996. 12. 31	백일장 등 12개 사업완료

1997. 3. 11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1997. 12. 31	한강대제 등 12개 사업완료
1998. 2. 24	제14차 정기총회 개최
1998. 12. 31	솟대복원사업 등 14개 사업완료
1999. 12. 31	제15차 정기총회 개최
1999. 4. 23	임시총회 개최 – 우성조 원장 연임
1999. 12. 31	태백학술대회 등 22개 사업완료
2000. 2. 29	제16차 정기총회 개최
2000. 12. 31	태백산천제 등 23개 사업완료
2001. 2. 27	제17차 정기총회 개최
2001. 12. 31	전통음식솜씨대회 등 23개 사업완료
2002. 2. 26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2002. 12. 31	초금연주회 등 21개 사업완료
2003. 3. 28	제19차 정기총회 개최
2003. 4. 15	임시총회 개최 – 제6대 김강산 원장 선출
2003. 12. 31	낙동강발원제 등 22개 사업완료
2004. 2. 25	제20차 정기총회 개최
2004. 12. 13	문화원사 증축 준공
2004. 12. 31	태백산천제 등 23개 사업완료
2005. 3. 22	제21차 정기총회 개최
2005. 12. 31	생활문화실천강연회 등 21개 사업완료
2006. 3. 7	제22차 정기총회 개최
2006. 12. 31	태백산천제 등 23개 사업완료
2007. 2. 26	제23차 정기총회 개최 – 제7대 김강산 원장 선출
2007. 12. 31	태백산천제 등 21개 사업완료
2008. 2. 12	임시총회 개최 – 제8대 권영한 원장 선출
2008. 2. 15	제24차 정기총회 개최
2008. 12. 31	태백산천제 등 12개 사업완료
2009. 2. 25	제25차 정기총회 개최
2010. 5. 26	임시총회 개최 – 제9대 김강산 원장 선출
2010. 12. 31	태백산천제 등 12개 사업완료
2011. 2. 27	제26차 정기총회 개최
2012. 5. 25	임시총회 개최 – 제10대 김해운 원장 선출
2012. 12. 31	낙동강채수제 등 15개 사업완료

◆ 태백문화원 임원 ◆

제1대 원장 황윤덕
제2대 원장 장인원
제3,4,5대 원장 우성조
제6,7대 원장 김강산
제8대 원장 권영한
제9대 원장 김강산
제10대 원장 김해운

직위	성명	주소
원장	김해운	태백시 삼수동 4통2반
부원장	배팔수	태백시 황지동 이화연립 306
이사	조미영	태백시 황지동 대윤아파트2-506
이사	이상출	태백시 삼수동 사랑의집 가동102호
이사	김병철	태백시소도동19 한솔아파트2-306
이사	김영호	태백시 동점동 498-42 10통3반
이사	전영숙	태백시 상장동18/8 시영아파트101-403
이사	김창진	태백시황지동229-16 주공1차아파트 6-508
이사	양진모	태백시 대림4차아파트107호
이사	남주수	태백시 황지동64-15 영동보험대리점
이사	김남진	태백시 화잔동 24-85 로젠택배
이사	김효열	태백시 황지동274-640
감사	심금술	태백시 창죽동 22-1
감사	이원섭	태백시 황지동 29-15 4/1

◆ 태백문화원 사무국 ◆

직 위	성 명
사무국장	장 화 윤
간사	김 수 빈
주임	허 주 라

◆태백문화학교 강사◆

교 실	강 사
국악교실	심금분
노래교실	김만식
라인댄스	윤경아
룰루랄라미술	김다은
스포츠댄스	전인석
요가	이선미
천연염색	조미영
토들러동작놀이	조영미
하모니카	이광수

태백의 12경 설정과 설명

제 1 경 太白日出(태백일출)

제 2 경 靈塔觀眺(영탑관조)

제 3 경 四拜俯省(사배부성)

제 4 경 蓮花浮雲(연화부운)

제 5 경 黃池影月(황지영월)

제 6 경 金臺花海(금대화해)

제 7 경 儉龍吐水(검룡토수)

제 8 경 天儀圃田(천의포전)

제 9 경 求門洞天(구문동천)

제 10 경 天壇祭市(천단제시)

제 11 경 龍窟幽景(용굴유경)

제 12 경 大朴瑞雪(대박서설)

태백 12경 설정과 설명

그 동안 태백의 경치에 대해 뜻있는 사람들이나 기관 단체에서 설정한 태백 8경이란 것이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을 살펴보면 특정한 곳에 편중된 느낌과 태백의 풍경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폭 넓게 바라보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8경을 12경으로 늘려 설정하고 12달에 맞추어 앞으로 달력 제작이 라던가 또는 각종 홍보물에 태백시를 폭 넓게 알릴 수 있는 주제로 정하게 되었다

또 한 태백산에 편중된 태백 8경은 전체 태백을 상징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었고 태백의 특징을 대변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 태백12경을 새로이 정하게 되었다. 이번에 설정한 12경은 옛 선인들의 문적(文籍)과 현실적 지역 안배와 알려지지 않은 명승을 고려하여 향후 태백의 관광적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도움을 더하기 위해 선정하였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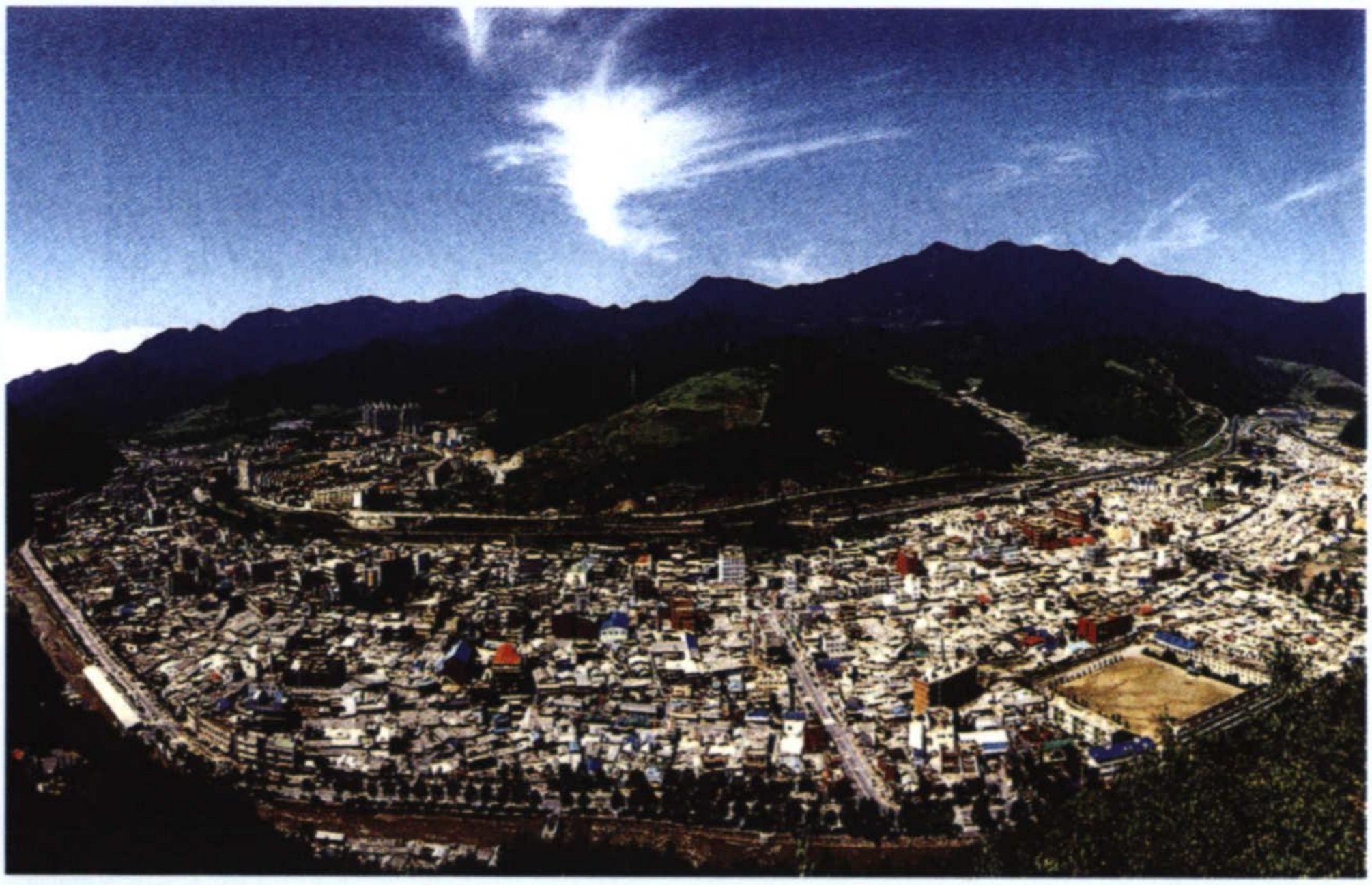
제 1 경 太白日出(태백일출)

태백산에서 바라보는 일출(日出)의 경치이다. 태백산에서 바라보는 일출(日出)은 동해에서 곧 바로 떠오르는 천하 제1경이라 할 만한 장관으로 그 빛이 우리나라의 첫 아침을 여는 생명의 빛이다.

(사진 : 태백시청)

제2경 靈塔觀眺(영탑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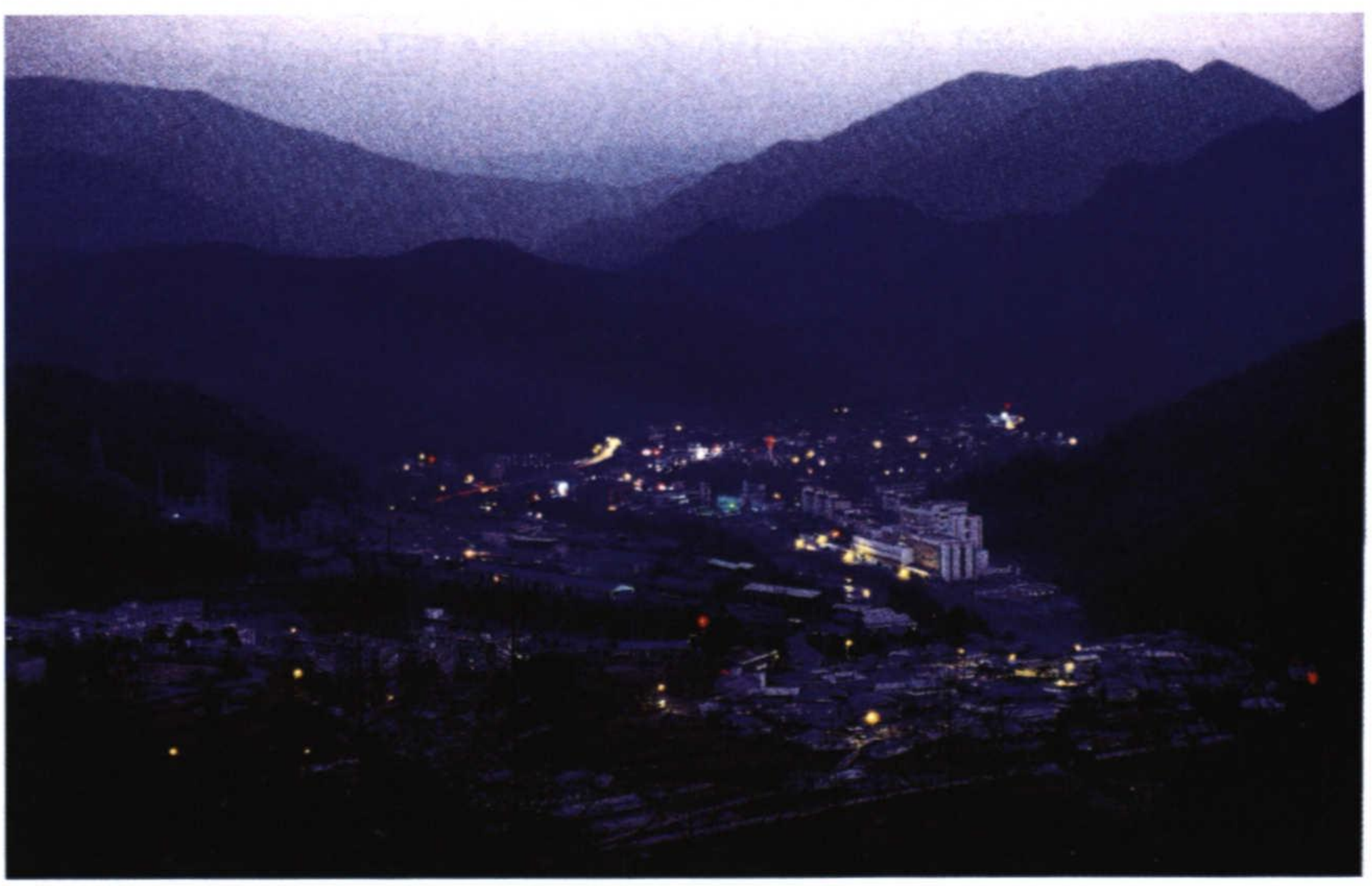
산업전사 위령탑에서 황지 시내를 바라보는 경치이다. 산업전사 위령탑에서 황지시내를 바라보면 상장동뿐만 아니라 멀리 화전동과 태백산 함백산 은대봉 금대봉을 비롯 시청과 스키장 등을 한눈에 바라 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곳이다.



(사진 : 정기복)

제3경 四拜俯省(사배부성)

장성의 장명사 뒤쪽과 문곡의 사배골 사이에 있는 사배재(四拜峙)에서 장성 쪽을 굽어보는 경치이다. 이곳에서 굽어보면 장성 시내뿐만 아니라 화석산지인 사리미산을 위시하여 금천의 이중교, 석공 장성광업소, 장성병원, 수갱탑, 용암사 뒷산인 용호농주암, 태백경찰서 망루 등이 한 눈에 들어오는 전망이 뛰어난 곳이다.



(사진 : 이석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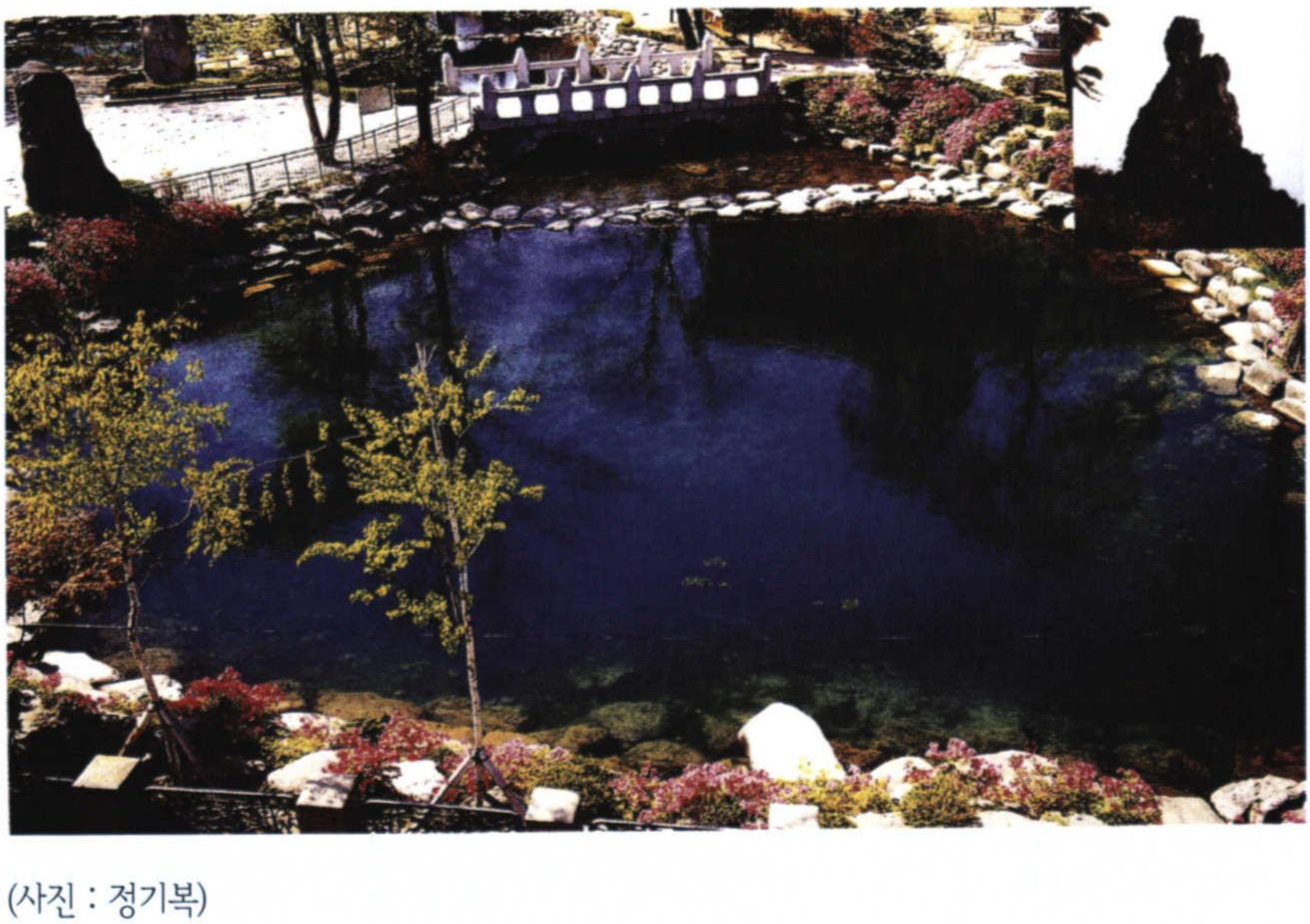
제4경 蓮花浮雲(연화부운)

연화산에서 바라볼 때 구름 아래로 시내가 보이는 경치이다. 태백 시내 한가운데 자리한 연화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산허리에 감돌고 그 구름 아래로 시내가 보이는데 신선이 따로 없는 듯 장관이 펼쳐진다. 보기 드문 기관이다.

(사진 : 박문교)

제5경 黃池影月(황지영월)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에서 바라보는 달빛의 경치이다. 옛 시인들이 찬미했던 시 제목에 많이 등장하는 말이다. 지금은 주변에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경관이 옛날 같지는 않지만 오히려 야간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사진 : 정기복)

제6경 金臺花海(금대화해)

금대봉의 꽃 바다와 같은 경치이다. 금대봉은 천상화원(天上花園)이라고 불려지는 곳으로 그 만큼 꽃들이 많은 곳이다. 전국의 유명 사진작가들이 금대봉의 야생화를 찍기 위해 몰려오고 많은 국민들이 금대봉의 꽃 바다를 보기 위해 관광버스로온다. 환경부가 지정한 자연생태계보호지역이며 가까운 곳에 한강의 발원샘인 제당굼샘이 있다.

(사진 : 태백시청)

제7경 儉龍吐水(검룡토수)

한강의 발원지 검룡소의 경치이다. 검룡소는 국가지정 명승지 제73호로 지정된 태백시의 자랑이다. 하루 5천 톤의 용출수는 신비한 검룡이 토해내는 물줄기로 514km의 유장한 한강의 발원이 되는 곳이다.

(사진 : 태백시청)

제8경 天儀圃田(천의포전)

천의봉의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의 경치이다. 매봉산의 원래 이름인 천의봉은 고랭지 채소 재배로 유명하다. 수 십 만평의 재배지는 하늘 마루금까지 이어지고 그 끝에는 풍력 발전기의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어 바람의 언덕으로 유명하다.

배추밭의 초록색과 하늘의 파란색 그리고 바람개비의 하얀색이 조화를 이루는 환상적인 경치가 일품이다.

(사진 : 태백시청)

제9경 求門洞天(구문동천)

동점동에 있는 구문소의 경치이다. 구문소는 구문소동이라는 행정동명을 낳게 한 명소로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17호로 지정된 곳이다. 구문소에는 구문8경이 있고 최근에 개관한 고생대자연사박문관이 있다. 중국 황하강 용문(龍門)과 비견되는 구문소는 낙동강의 명소로 유명하다.

(사진 : 전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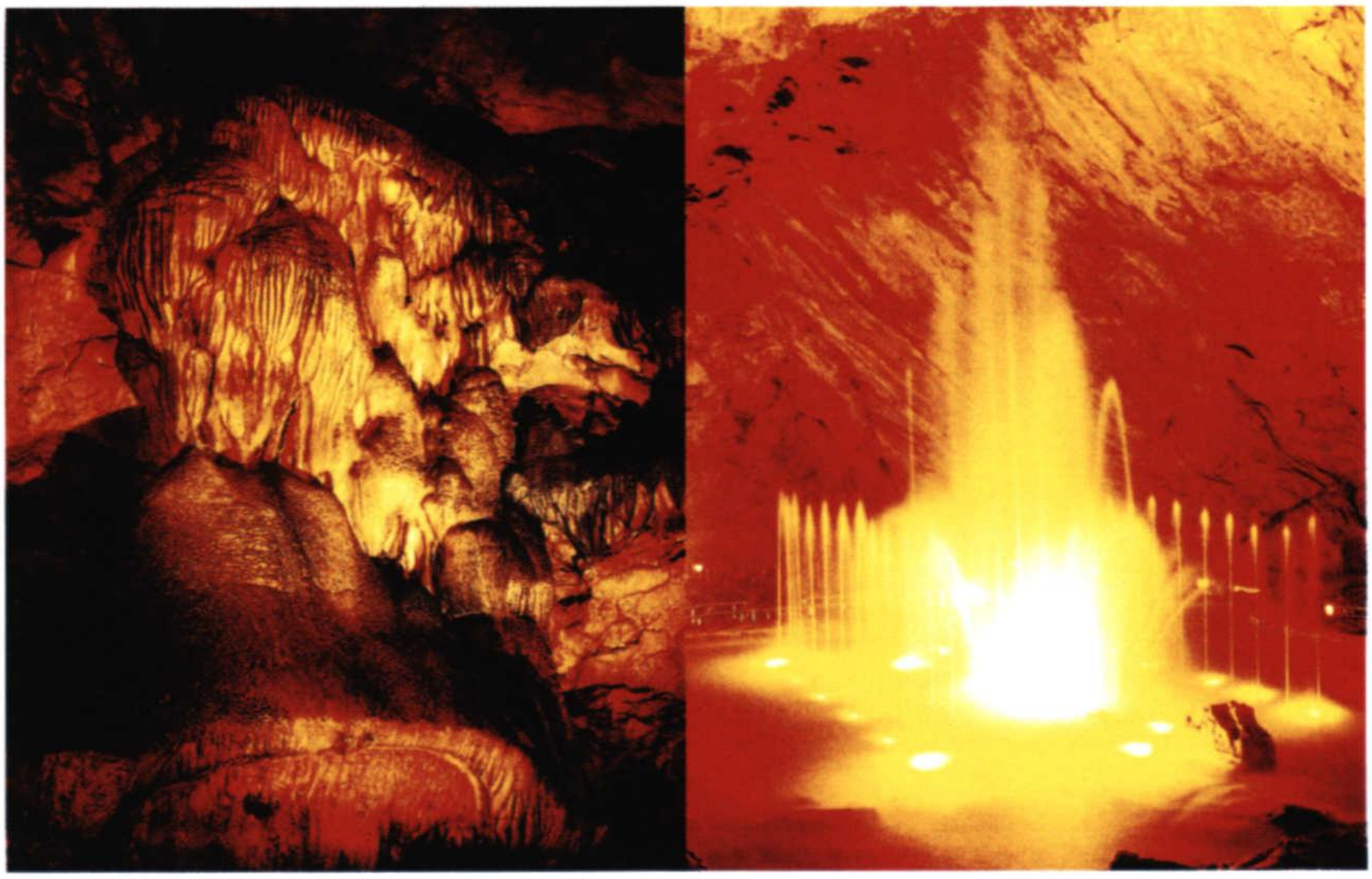
제10경 天壇祭市(천단제시)

태백산 천제단에서 천제하는 광경이다. 천제단은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28호이다. 해마다 개천절이면 천제를 봉행하는데 전국에서 국민들이 구름처럼 모여와 산꼭대기 천제단 앞이 마치 장터와 같아 제시(祭市)라고 한데서 유래하였다.

(사진 : 김강산)

제１１경 龍窟幽景(용굴유경)

화전동에 있는 용연동굴의 경치이다. 국내 최 고원에 위치한 용연동굴은 강원도 기념물 제 39호이다. 태백시에서 동굴을 개방하여 관광지로 만들면서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모여와 즐기고 가는 명소이다. 동굴 내부의 그윽한 경치는 태백의 또 다른 자랑거리이다.



(사진 : 전인석)

제12경 大朴瑞雪(대박서설)

대박산의 설경(雪景)이다. 함백산의 본래 이름인 대박산은 각종 옛 지도에 나오는 산 이름으로 태백산의 옛 이름이기도 하다. 최근엔 스키장이 설치되어 전국의 많은 국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곳이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곳으로 눈꽃 열차가 지나가는 국내에서 가장 높은 기차역인 추전역이 산허리에 있다.

(사진 : 태백시청)

태 백 문 화 24집

▫ 발 행 일 : 2012년 12월

▫ 발 행 인 : 김 해 순

▫ 편 집 인 : 장 화 윤

▫ 발 행 처 : 태백문화원

수)235-019 태백시 태백로 1136 (☎ 033-553-3160)

▫ E-mail : tb3161@kccf.or.kr

▫ 인 쇄 처 : 문 성 사 (☎ 033-552-2318)

이 책은 태백시의 지원금으로 발간함.

※책의 내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무단 사용을 금함.

(주) 대우레미콘

K 인증업체

레미콘, 아스콘, 석회석 광산 · 샌드플랜트

강원도 태백시 통동 산213~4번지(솔안길 85)

TEL : 033) **554-4885~8** FAX : 033) **554-4889**